

신규 취농의 실태와 정책 과제

김 정 호 선임 연구 위원
마 상 진 전 문 연 구 원

연구 담당

김 정 호	선임연구위원	제1장, 2장, 5장, 6장, 7장	집필
마 상 진	전 문 연 구 원	제3장, 4장, 6장	집필

머 리 말

최근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젊은 농업인력은 점점 감소함으로써 농업의 미래를 담당할 후계인력 특히 농업경영자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농업 후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농업인 후계자육성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후계자 육성사업이 이미 취농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농림부는 2004년부터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을 농업종합자금 지원사업에 편입하고, 신규 취농을 위한 창업농 제도를 신설하였다.

신규 취농은 농가를 상속하는 경영 승계와 외부에서 진입하는 경영 창업의 두 가지 경로로 나눌 수 있다. 그간의 취농 형태는 경영승계를 통한 상속 농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들어 고학력자의 창업이나 도시로부터의 이직 취농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신규 취농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신규 취농의 실태에 관한 통계자료나 조사연구가 미흡하다.

이 연구는 신규 취농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농업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가 농업인력 정책 및 관련 연구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요 약

이 연구는 신규 취농자가 영농을 하게 된 배경, 영농에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현재의 농업경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정책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신규 취농자의 영농에 대한 의향 및 취농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 그리고 사단법인 전국귀농운동본부의 교육 참가자 및 귀농자 중에서 임의 선정하여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신규 취농은 단순한 농업 인력이 아니라 농업 경영자를 확보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취농의 경로는 농가를 상속하는 경영 승계와 외부에서 진입하는 경영 창업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취농의 형태로 과거에는 후계자가 경영주의 농업경영을 승계하는 경영 승계(상속 농가)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고학력자의 창업 농이나 도시로부터의 이직(離職) 취농 또는 귀농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젊은 취농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취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영농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므로 리커트 척도에 의한 태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취농 예정자와 신규 취농자의 영농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영농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가 출신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가장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촌 출신 여부, 영농 경험 유무,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 등은 영농에 대한 태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비 취농자와 신규 취농자들의 취농 환경과 여건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출신은 도시와 농촌 출신, 농가와 비농가 출신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이 영농 준비를 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언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농의 이유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아, 농촌 생활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 등 비경제적인 배경이 많았으며, 영농을 통한 소득 확보나 부모의 영농 승계 등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예비 취농자의 취농 의향과 준비 상황을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경영 승계보다 신규 창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연고지에 취농을 예정하고 있었다. 또한 취농시에 희망하는 작목으로는 채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축산, 일반 밭작물, 과수 등이었으며, 특용작물이나 화훼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예비 취농자들의 취농 의향은 대체로 높았으며, 취농 예정 시기는 3년 후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예비 취농자들은 취농 준비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정신 무장은 잘 되어 있지만, 영농자금과 토지, 영농지식과 기술, 경영기법, 주변 사람들의 지지 등은 미흡하였으며, 특히 영농기술이나 경영기법에 대해서는 스스로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편, 신규 취농자들의 영농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영 승계보다 신규 창업의 형태가 많았고, 대체로 비연고지에 취농하고 있었으며, 일반 밭작물이나 논벼와 같이 영농기술이 용이한 작목을 선호하였다. 또한 신규 취농자들이 영농 초기에 투자한 자금은 3천만 원 이하가 반수 이상이었으며, 취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은 대부분이 자기자본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들의 영농규모는 과반수가 3천 평 이하의 영세한 경영규모이며, 농축산물 판매규모도 과반수가 2천만 원 이하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농 초기에 설정한 경영 목표를 대체로 달성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기술 부족이 가장 크고, 그 밖에 자금 문제, 판로 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 등이었다. 이들의 경영 수준을 자가 진단한 결과를 보면 영농 계획, 재배(사육)관리 기술, 경영 분석 진단 등은 높게 평가하지만, 농자재 구입, 농산물 판매 등은 대체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대체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특히 가족 및 배우자의 지지가 높았다. 그리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영농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현상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예비 취농자들의 취농 의향과 취농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영농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이 없을수록 취농 의향이 높았으며, 반면에 실제 취농 준비는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잘 되어 있었다.

신규 취농자들의 영농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농촌이나 농가 출신으로 농업계 학교 졸업생이고 나이가 적을수록 경제적인 이유로 경영 승계의 형태로 취농하였다. 또한 신규 취농자들은 논벼나 일반 밭작물보다는 축산, 과수, 채소, 특용작물, 화훼 등과 같은 고소득 작목을 경영함으로써 다른 농업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축산물 판매 규모나 경영 성과가 양호하였다.

외국 사례로서 일본은 최근 들어 신규 취농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직업에서 전환하는 전직 취농이 증가하고 있어 농업의 미래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신규 취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과 상담 활동, 원활한 기술 습득, 정착 자금 융자, 경영 승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성의 외곽단체인 농업회의소 계통조직을 통하여 취농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한 취농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써 잠재적인 신

규 취농자를 확보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규 취농의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신규 취농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확충해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부터 농업에 관한 긍정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교과서에 반영하거나 교과 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계 학교교육을 통하여 취농 예정자의 농업경영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영농교육이 필요하며, 농업계 대학의 농업경영자 과정을 내실화하고 심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 취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상시적으로 취농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상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취농상담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민의 귀농을 지원하는 관련기관과 단체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셋째, 농가의 경영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족경영협약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영농후계자가 가족경영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주와 후계자 사이에 경영 분담, 수익 분배, 근로 조건, 장래 경영이양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신규 취농이 강조되고 있으나 관련 통계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농업총조사에서 창설 농가를 파악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농림부 차원에서도 신규 취농자의 성격과 경영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New Farmers' Settlement and Supporting Polic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farm settling and the current farming status of prospective farmers and beginning farmers and to identify strategies to induce new human resources to farming and to facilitate their settlement.

For the purpose, this study surveyed 273 prospective farmers and 107 beginning farmers, interviewed some of them, and reviewed precedent researches and Japanese policy related with human resources induction to farming.

Survey analysis indicated the followings. Farming attitudes of prospective and beginning farmers were generally positive. Specially, if people are farm-bred or not and they are currently farming or not explain the positiveness of their farming attitude. However, rural area origin, farming experience, and agr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have no relationship with the attitude. Whereas the main influencing factor of farming intention of prospective farmers was farming attitude, that of farming readiness was agr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The main effecting factors of current farming status of beginning farmers were agr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age, farming career, farming objective, rural area origin, farm origin, farm succession, and farming products.

As results of survey analysis, interviews, and literature reviews, this study suggests such strategies to induce new human resources to farming and to facilitate their settlement as : intensifying general agricultural education for K-12 students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farming and professional agricultur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beginning farmers to develop their farm managing skills specified by farming duties and tasks; setting up ‘new farmer counseling center’ for prospective farmers to have an easy access to related information and assistance; inducing ‘family farm management contract’ to secure young farm successors' right and duty in farm management; improving *National Agriculture Census* to include basic statistics and farming status of beginning farmers.

Researchers: Kim Jeong-Ho, Ma Sang-jin

E-mail address: jhkim@krei.re.kr

차 례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선행연구 검토 3
-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7

제2장 농업 후계인력의 동향과 전망

- 1. 농가의 가족 구성과 후계자 동향 9
- 2. 농업 경영주와 후계 인력의 전망 16

제3장 신규 취농자의 영농에 대한 태도

- 1. 태도의 개념과 분석 방법 23
- 2. 영농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 25

제4장 신규 취농의 실태와 관련 요인

- 1. 분석의 관점 36
- 2. 신규 취농의 환경과 여건 38
- 3. 예비 취농자의 취농 의향과 준비 상황 46
- 4. 신규 취농자의 영농 실태 54
- 5. 신규 취농의 관련 요인 분석 70
- 6. 신규 취농의 사례 75

제5장 일본의 신규 취농 실태와 정책 동향

1. 농업 인력과 신규 취농의 동향 85
2. 신규 취농의 관련 정책 90

제6장 신규 취농의 정책 과제

1. 신규 취농 관련정책의 현황 96
2. 신규 취농의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 102

제7장 요약 및 결론

1. 보고서의 요약 113
2. 결론 및 정책 건의 117

부록 1. 예비 취농자 설문 조사지 119

부록 2. 신규 취농자 설문 조사지 125

참고 문헌 132

표 차 례

제2장

표 2- 1. 농업경영주 연령별 분포	11
표 2- 2.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 분포	11
표 2- 3. 농가의 영농 승계자 보유 상황	13
표 2- 4. 영농 승계자의 성별 분포	14
표 2- 5. 영농 승계자 보유농가의 영농 형태별 분포	14
표 2- 6. 영농 승계자 보유에 대한 로짓 분석	15
표 2- 7. 2000년 현재 영농경력 5년 미만의 경영주 수	16
표 2- 8. 농업경영주 수(=농가 수) 전망	17
표 2- 9. 신규 취농의 자원 및 인력 전망	19
표 2-10. 귀농 추이와 연령 분포	20
표 2-11. 귀농 추이와 영농 형태 분포	20
표 2-12. 여주자영농고의 졸업생 진로 동향	21
표 2-13. 여주농전 졸업생의 취농 동향	21
표 2-14. 2004년 귀농운동본부 교육 실적	22
표 2-15. 귀농운동본부 교육 이수자의 취농 실적	22

제3장

표 3- 1. 조사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26
표 3- 2. 조사 응답자의 성별 분포	26
표 3- 3. 조사 응답자의 직업 상태 분포	27
표 3- 4. 조사 응답자의 영농경력 분포	27
표 3- 5. 영농에 대한 태도 문항별 점수 및 총점	28

표 3- 6. 영농에 대한 태도의 회귀분석 결과	35
----------------------------------	----

제4장

표 4- 1. 예비 취농자의 농촌 출신 여부	38
표 4- 2. 신규 취농자의 농촌 출신 여부	39
표 4- 3. 예비 취농자의 농가 출신 여부	40
표 4- 4. 신규 취농자의 농가 출신 여부	40
표 4- 5. 예비 취농자의 영농조언자 유무	41
표 4- 6. 신규 취농자의 영농조언자 유무	41
표 4- 7. 예비 취농자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지지	42
표 4- 8. 신규 취농자에 대한 취농전 주변 사람들의 지지	43
표 4- 9. 예비 취농자의 취농 이유	44
표 4-10. 신규 취농자의 취농 이유	45
표 4-11. 예비 취농자의 연령대별 취농 형태	46
표 4-12. 예비 취농자의 취농 예정지	47
표 4-13. 예비 취농자의 영농 예정 작목	47
표 4-14. 예비 취농자의 취농 의향	48
표 4-15. 예비 취농자의 취농 예정 시기	49
표 4-16. 예비 취농자의 취농 준비 수준: 정신 무장	51
표 4-17. 예비 취농자의 취농 준비 수준: 정착기반(자금/토지)	51
표 4-18. 예비 취농자의 취농 준비 수준: 영농지식과 기술	52
표 4-19. 예비 취농자의 취농 준비 수준: 경영기법	52
표 4-20. 예비 취농자의 취농 준비 수준: 주변지지	53
표 4-21. 예비 취농자의 취농 준비 수준: 주민과의 관계	53
표 4-22. 신규 취농자의 연령대별 취농 형태	54
표 4-23. 신규 취농자의 취농 장소	55
표 4-24. 신규 취농자의 영농 작목	56

표 4-25. 신규 취농자의 총 초기투자자금 상황	57
표 4-26. 신규 취농자의 주택관련 초기투자자금 상황	57
표 4-27. 신규 취농자의 농장관련 초기투자자금 상황	58
표 4-28. 신규 취농자의 자금조달 방법	58
표 4-29. 신규 취농자의 경영규모	60
표 4-30. 신규 취농자의 농산물 판매금액	60
표 4-31. 신규 취농자의 영농목표 달성 정도	61
표 4-32. 신규 취농자들이 생각하는 초기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	62
표 4-33. 신규 취농자들의 경영 수준: 영농계획 수립	64
표 4-34. 신규 취농자들의 경영 수준: 농자재 구입	64
표 4-35. 신규 취농자들의 경영 수준: 재배(사육관리) 기술	65
표 4-36. 신규 취농자들의 경영 수준: 시장 판매	65
표 4-37. 신규 취농자들의 경영 수준: 경영분석 진단	66
표 4-38. 신규 취농자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지지: 가족과 배우자	67
표 4-39. 신규 취농자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지지: 지역 주민	67
표 4-40. 신규 취농자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지지: 동료 농업인	68
표 4-41. 신규 취농자들의 정보취득 방법	69
표 4-42. 신규 취농자들의 향후 영농계획	70
표 4-43. 취농 준비의 관련요인 분석결과 개요	73
표 4-44. 취농 준비의 관련요인 부하량	73
표 4-45. 신규 취농 관련요인 분석결과 개요	74
표 4-46. 신규 취농의 관련요인 부하량	75

제5장

표 5- 1. 일본의 신규 취농 추이	86
표 5- 2. 일본의 취농 분야별 및 취농 형태별 구성비	86
표 5- 3. 일본의 신규 취농자 실태조사 결과	87
표 5- 4. 일본의 영농형태별 영농후계자 보유 상황	88
표 5- 5. 일본의 농업계 학교 졸업생의 진로 상황	89
표 5- 6. 신규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융자 지원내용	92

제6장

표 6- 1. 경영 승계와 창업의 비교	97
표 6- 2. 농업인의 정의와 자격 기준	98
표 6- 3. 신규 후계자와 취농창업 지원 실적	100
표 6- 4. 귀농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현황	101
표 6- 5. 예비 취농자가 생각하는 취농 장애요인	103
표 6- 6. 신규 취농자가 생각하는 취농 장애요인	104
표 6- 7. 예비 취농자가 생각하는 취농교육 시 보완이 필요한 교육내용	106
표 6- 8. 신규 취농자가 생각하는 취농교육 시 보완이 필요한 교육내용	107
표 6- 9. 예비 취농자가 생각하는 신규인력 유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	108
표 6-10. 신규 취농자가 생각하는 신규인력 유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	109

그 립 차 례

제2장

그림 2- 1. 농업취업자의 연령구조 곡선	10
그림 2- 2. 농업경영주 연령별 가족구성 분포	12
그림 2- 3. 농업경영주 수(=농가 수) 전망	17

제3장

그림 3-1. 연령에 따른 영농에 대한 태도 문항별 점수 분포	29
그림 3-2. 농촌 출신 여부에 따른 영농에 대한 태도 문항별 점수 분포	30
그림 3-3. 농가 출신 여부에 따른 영농에 대한 태도 문항별 점수 분포	31
그림 3-4. 농사 경험 유무에 따른 영농에 대한 태도 문항별 점수 분포	32
그림 3-5.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영농에 대한 태도 문항별 점수 분포	33
그림 3-6. 취농 여부에 따른 영농에 대한 태도 문항별 점수 분포	33

제4장

그림 4-1. 취농 요인의 분석 틀	71
---------------------------	----

제5장

그림 5-1. 일본의 신규취농 지원 체계	91
------------------------------	----

제6장

그림 6-1. 신규 취농과 농업경영체의 경로	97
--------------------------------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에 젊은 농업인구는 점점 감소함으로써 농업의 미래를 담당할 후계인력 특히 농업경영자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업총조사 통계에 의하면, 영농 승계자를 보유한 농가의 비율은 1990년 16.4%에서 1995년 13.1%, 2000년 11.0%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농업기본통계를 보면, 농업의 중추를 담당하는 50대 이하의 청장년 농업경영자는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39세 이하의 경영자는 2000년 9만 1천명에서 2004년 3만 8천명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에, 60세 이상의 경영자는 2000년 70만 6천명에서 2004년 73만 4천명(전체의 59%)으로 늘어나고 있다.

후계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1981년부터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까지 총 12만 3천명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은 신규 취농보다는 경영기반을 갖춘 기존 농업인 위주로 선정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농림부는 2004년부터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을 농업종합자금 지원사업에 편입하고, 이와는 별도로 신규 취농에 의한 농업경영자를 확보하기 위한 창업농 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는 젊고 유능한 농업인을 유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농업 인턴제, 대학생 창업연수, 창업농 후견인제 등을 도입하였다.

신규 취농은 단순한 농업 노동력의 확보가 아니라 장래의 농업경영자를 육성한다는데 의미가 크며, 신규 취농의 형태는 후계자가 선친의 농업경영을 상속하는 경영 승계와 외부에서 진입하는 경영 창업의 두 가지 경로로 나눌 수 있다. 그간의 취농 형태를 보면 경영승계를 통한 상속농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들어 고학력자의 창업이나 도시로부터의 이직 또는 전직(轉職) 취농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현재 농업경영자의 대부분은 부모의 농업경영을 물려받은 경영 승계자이며, 외부에서 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을 창업하는 형태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부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취농의 형태는 자영 창업 또는 농업법인 취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의 취농 형태로서 부각되는 것이 도시로부터의 귀농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하여 농촌으로 귀향하는 도시민이 늘고 있다. 이러한 귀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귀농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전국귀농운동본부』를 비롯한 몇몇 민간단체가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영농교육과 귀농 알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규 취농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신규 취농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취농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통계자료나 조사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도 대부분이 신규 농업인력의 확보를 위한 후계자 육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 취농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나 취농 성공사례 등에 관한 조사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신규 취농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농업인력의 확보 및 경영체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신규 취농자를 대상으로 영농을 하게 된 배경, 영농 정착 과정, 그리고 현재의 영농 상황 및 농업경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신규 농업인력의 효율적인 확보 및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는데 연구 목적을 둔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신규 농업인력의 유입과 영농정착에 관한 연구

정성봉·송해균(1987)은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 자영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농 정착은 ①농업 소득, ②영농 능력, ③직업 만족, ④사회활동 참여, ⑤영농계속 의사 등으로 구조화하여 접근할 수 있으며, 영농 정착에는 개인 요인(자아 개념, 성격, 농업에 대한 태도, 영농 적성, 영농 준비도), 교육 관련 요인(학교의 물적 조건, 학교의 사회적 풍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업 성취), 가정 요인(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정의 의사결정 구조, 가정의 가치 지향성, 가정의 상호작용 환경), 사회적 요인(지역사회의 가치 지향, 대중매체 접촉 정도, 동료 집단의 지위, 지역사회에 상대적 지위, 영농 선택시 경기 동향, 영농 선택시의 농업 특성(직업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조영철·김성수(1987)는 영농 정착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구분하여 관련 요인을 비교하였는데, 성공적인 영농 정착에는 농장 경험 수준, 농장 입지 조건, 작목의 적합성, 작목의 결합 및 작부체제, 농산물 가격정보 활용, 생산물 판매가격의 안정성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귀농자의 농촌 적응과 관련하여 민상기(1995), 이동하(1998) 등은 ①주거(생태) 적응(주거 만족, 농촌 정주의사, 농촌 친밀감, 귀농 만족, 자연환경 만족, 도시생활과의 비교), ②직업 적응(자금 조달, 농기계 구입 수리, 작목 및 작목전환 여부), ③사회 적응(이웃과의 친숙도, 주위의 평가, 지역 차별, 문화생활 만족도, 조직 참여 정도, 자녀 교육 만족도)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진호(1984)는 귀농 요인에 대하여 ①물질적 적응, ②사회적 적응, ③태도 및 만족도(심리적 정착) 등을 지적하였으며, 변용찬(1991)은 ①생태적 정착, ②농업에의 정착(연소득, 영농작목, 영농 애로사항), ③사회적 정착(가족·친척·친구의 지원, 참여하는 모임, 지역 차별), ④심리적 정착(농촌 정주의사, 귀농 만족도, 도시/농촌간 이웃/친구 비교, 현지역에 대한 애착) 등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록환(1998)은 귀농자들의 귀농 동기를 분석한 연구에서 귀농 동기를 ①전원 생활(농촌 생활이 좋아서, 자신·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정년 및 퇴직 후 여생을 위하여), ②창업(농업 전망이 좋아서, 부모의 영농 승계), ③도피형(도시에서 저소득을 피해서, 사업실패 또는 실직 때문), ④소속 단체 모임(환경 운동, 대안 교육, 종교 실천)을 위해서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동하(1998)는 귀농자의 성공적인 농촌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성공적인 영농 정착에는 초기 영농소득 향상의 경험으로 인한 만족도, 정보 획득원의 확보 및 지원자 확보, 귀농지와 연고지 여부, 가족들의

지원, 귀농 준비 정도(농지, 자금조달), 연령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서규선, 변재면(2000)은 귀농자 교육훈련 연구를 통하여 귀농자들이 귀농 시에 겪는 어려움을 ①자금 부족 및 영농기반 조성 곤란, ②영농 기술 부족, ③농산물 판매 곤란, ④주위 사람들의 시선 및 일손 부족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김성수 등(2004)은 귀농자들의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귀농자들의 특성을 ①귀농 이전 직업, ②귀농자 교육 수준, ③귀농 전의 영농 경험, ④귀농 동기, ⑤귀농 후 가족 구성원의 부업 종사 여부 및 이유, ⑥기타(귀농 초기 애로사항, 귀농 자금 출처, 귀농 정책자금 신청 및 수령 여부/자금사용 내역,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방법, 농산물 출하 장소, 영농지식과 기술 획득처, 귀농교육 내용 세분화 정도, 귀농교육 시기 및 기간 적절성, 귀농교육 내용 실효성, 추가로 받고 싶은 교육내용, 귀농 당시 작목 선정 기준, 현재 재배하는 작목 선정 기준, 필요한 귀농정책, 귀농 후 애로사항,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도시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리고 귀농 지원 프로그램의 방향은 귀농준비 단계에서의 충분한 개인적인 준비와 교육, 귀농 단계에서의 적절한 정보 제공과 지원, 귀농 후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더불어 소득과 자녀교육 여건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2. 신규 농업인력 확보 및 영농정착을 위한 정책 연구

김정호(1999)는 『한국농정50년사』에서 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 및 귀농

자 영농정착 지원의 실적과 성과를 지적하였다. 특히 1981년부터 착수한 영농후계자 육성사업이 1992년부터는 전업농 육성과 연계하여 사업 규모가 확충됨으로써 젊은 농업인을 농업경영자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신규 취농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훈련 등을 강화하여 잠재 인력의 영농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신규 취농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영 개선을 위한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영만(2005)은 농업인의 고령화에 의한 경영은퇴로 농업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후계인력의 부족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하여 신규 농업인력을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며, 현재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업농 과정은 영농정착을 위한 융자 지원이므로, 지자체가 주택 제공, 경영안정시까지 생계비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조기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철영 등(2001)은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양성 방안 연구에서 신규 진입 상의 문제를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①후계 농업인 선정 및 지원, ②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선정 및 지원, ③벤처농업 지원, ④귀농 정착 지원 등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성장단계별 육성대책의 체계화, ②사업 유형별 육성대책의 구체화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업 유형별 육성대책으로 후계농업인 선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의 조기 선정, 신규 창업농의 지원 정책 강화, 임대 귀농자 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강대구 등(2002)은 창업농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 현재 창업농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①창업농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방법의 타당성 및 효과성 문제, ②사업계획서의 제출과 심사·지원으로 이루어

지는 선발과정 상의 한계, ③신규 후계농업인 지원분야는 경종분야와 축산분야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벤처농업 부문을 사업항목으로 신청한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선정이 불가능한 실정, ④선정시의 점수 기준이 사업계획이나 교육훈련 등의 일부 항목에 대한 점수를 못 받아도 선정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태 등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농업후계인력 육성체제를 ‘예비단계 → 취농단계 → 정착단계 → 발전단계 → 안정단계 → 후계수련단계 → 경영이양단계’의 7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적절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신규 취농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신규 취농에 대한 의향과 실태를 분석하며, 신규 취농자들의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 및 일본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제2장에서는 신규 취농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한다. 농림부의 정책자료와 농업총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농업 경영주와 후계자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의 취농 인력을 전망한다.

제3장에서는 신규 취농 예정자 및 취농자들이 영농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취농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조사대상은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 중에서 각각 100명씩, 그리고 사단법인 전국귀농운동본부의 교육 참가자 및 귀농자 중에서 각각 100명씩으로 하였는데, 조사표가 회수되어 분석에 이용한 대상자는 총 380명이다.

제4장에서는 신규 취농자에 대하여 취농의 동기, 영농정착 실태,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기반과 생활기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영농정착 관련 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신규 취농자의 개인별 심층 사례조사를 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정리한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여건에 있는 일본의 신규 취농 실태와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일본은 최근 들어 도시로부터의 이직 취농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책에 유익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신규 취농 및 영농정착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검토한다. 특히 신규 취농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정책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신규 농업인력 정책의 기본 방향, 신규 취농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신규 취농자의 영농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장

농업 후계인력의 동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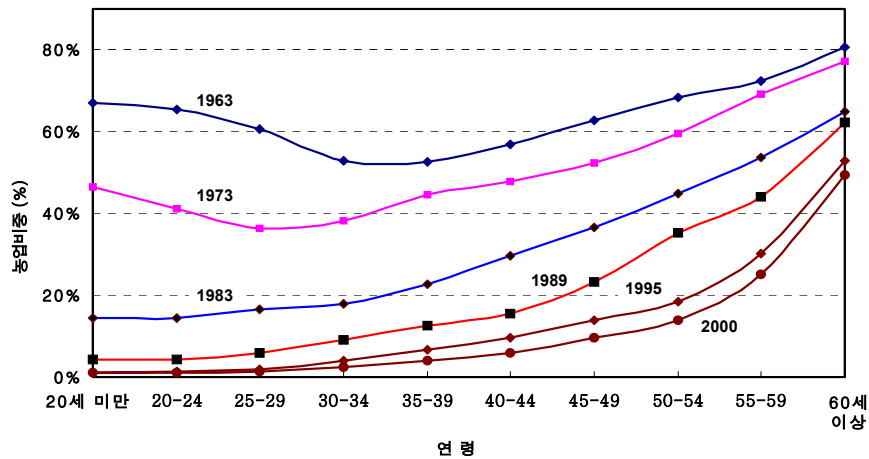
1. 농가의 가족 구성과 후계자 동향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농가는 농업경영주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경영주와 가족 구성원이 농업 노동력의 원천이 되고, 그 중에서 후계자가 대를 이어 영농을 승계해 나가는 것이 ‘상속 농가’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가의 가족 구성에 대한 특징으로 정기환(1992)은 가족의 생애주기(family life cycle)를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핵가족의 생애 주기는 두 남녀의 결혼으로 시작되며,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서 가구원 수가 증가하다가 자녀들이 결혼하고 분가하여 독립가구를 형성하기 시작하면 가구원 수가 감소하고, 결국은 부부의 사망으로 한 가족의 생애주기가 마감된다. 따라서 핵가족 농가의 가구원 수는 농가의 생애주기에 따라 증감하게 되며 가장(家長)의 연령이 45세 경에 가구원 수가 최대가 되다가 가장의 연령이 그 이상 높아지면 가구원 수는 감소하게 된다.¹

¹ 김성호, 정기환. 『촌락구조 변동과 농업구조 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그림 2-1. 농업취업자의 연령구조 곡선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서 농가의 자녀들은 무차별적으로 본가를 떠나 도시로 이동했기 때문에 농가의 전 계층에서 가족의 형태가 바뀌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농업취업자의 연령 구조가 고령화 추세로 변화하였다. <그림 2-1>은 산업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의 농업취업자의 연령구조 곡선(Age Profile Curve; APC)을 그린 것이다. 여기서 나타나듯이 1970년대까지는 40세 전후의 취업자가 적은 ‘U자’ 형을 나타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50세 이상의 비중이 점점 많아지는 직선이나 ‘J자’ 형태를 나타낼 정도로 젊은 인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농업경영주가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 농가의 경영체적 성격이나 경영의 존속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2004년 농업기본통계에 의하면 50대 이하의 경영주 비중은 2000년 49.0%에서 2004년 40.8%로 계속 감소하는 반면에 70세 이상 경영주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에 16.4%에서 23.0%로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 농업경영주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최근의 추세이며, 영농형태별로는 축산과 화훼 부문에 청장년 경영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편이다.

표 2-1. 농업경영주 연령별 분포, 2004

단위: 천명, %

구 분	합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합 계	1,240 (100.0)	38 (3.0)	182 (14.7)	286 (23.1)	449 (36.2)	285 (23.0)
남 자	1,033 (83.3)	37 (97.5)	172 (94.3)	253 (88.5)	357 (79.5)	214 (75.1)
여 자	207 (16.7)	1 (2.5)	10 (5.7)	33 (11.5)	92 (20.5)	71 (24.9)

자료: 통계청. 2004. 농업기본통계.

표 2-2.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 분포,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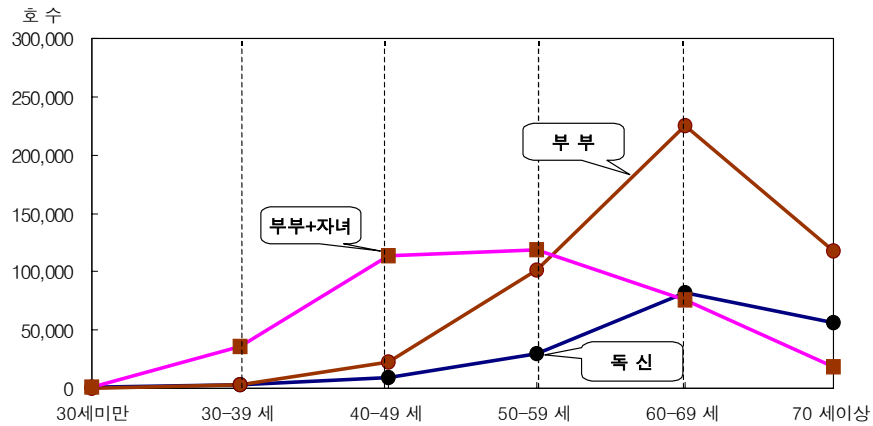
단위: 천명, %

구 분	합계	논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일반 밭작물	축산	기타
전체농가	1,240 (100.0)	640 (100.0)	136 (100.0)	262 (100.0)	36 (100.0)	11 (100.0)	69 (100.0)	83 (100.0)	4 (100.0)
50대이하 경영주	506 (40.8)	230 (36.0)	62 (45.4)	113 (43.3)	18 (49.1)	8 (71.6)	23 (32.5)	51 (61.3)	2 (40.5)
60대이상 경영주	734 (59.2)	409 (64.0)	74 (54.6)	148 (56.7)	18 (50.9)	3 (28.4)	47 (67.5)	32 (38.7)	3 (59.5)

자료: 통계청. 2004. 농업기본통계.

그렇다면 농가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림 2-2>는 농업총조사 통계를 분석하여 농업경영주 연령별로 가족 구성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부+자녀’ 형태의 가구는 50대가 11만 8천 호(32.6%)로 가장 많고, 부부 세대는 60대가 22만 5천 호(47.7%)로 가장 많으며, 독신 세대는 60대가 8만 1천 호(45.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영주의 고령화와 함께 농가의 가구 형태가 점차 부부 혹은 독신 가구로 변모해 가는 경향이다.

그림 2-2. 농업경영주 연령별 가족구성 분포, 2000



자료: 2000년도 농업총조사의 원자료 분석에 의함.

앞에서 농가의 가족 주기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세대 형태가 점차 핵가족화되어 가는 경향을 지적하였으나, 이것은 달리 말하면 상속 농가의 경우에 농업을 이어받을 후계자의 고갈로 농업경영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농가별로 영농의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데, 불행히도 농업총조사에서는 농가의 진입과 존속 그리고 이탈의 상황을 시계열로 연계하여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편적으로 경영주와 후계자의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약간의 유추 해석이 가능할 뿐이다.

농업총조사에서 영농 승계자란 나이에 관계없이 가족 중에서 현재 농업 경영주의 대를 이어 농사에 종사할 사람을 말하며, 가구원으로 같이 살고 있는 동거 승계자와 경영주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비동거 승계자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영농 승계자의 존재는 농가의 농업경영을 존속시키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개별 농가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표 2-3. 농가의 영농 승계자 보유 상황

단위: 호, %

구 분	연도		1990년		1995년		2000년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전 체			1,767,033	100.0	1,500,745	100.0	1,383,468	100.0
영농승계자 없는 가구			1,477,513	83.6	1,304,315	86.9	1,233,015	89.1
영농승계자 있는 가구			289,520	16.4	197,161	13.1	151,503	11.0
- 15~19세 후계자			67,389	3.8	25,348	1.7	16,237	1.2
- 20~29세 후계자			158,276	9.0	85,237	5.7	54,386	3.9
- 30세 이상 후계자			63,855	3.6	86,576	5.8	80,880	5.9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표 2-3>에서 영농 승계자의 상황을 보면, 영농 승계자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은 1990년 16.4%에서 1995년 13.1%, 2000년 11.0%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경영주와 동거하고 있는 후계자가 실질적인 후계자로서 의미가 큰데, 2000년 조사에서는 동거 후계자가 6% 정도에 불과하다.

영농 승계자의 연령별 분포에서 19세 미만의 승계자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1990년 6만 7천호에서 2000년에 1만 6천호 수준으로 줄었으나, 이들 연령층을 미래의 승계자로 확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 오히려 실질적인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30세 이상의 후계자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1990년 6만 4천호(전체 농가의 3.6%)에서 2000년에는 8만 1천호(5.9%)로 증가하는 경향이 고무적이다.

영농 승계자의 성격에 대하여 성별 및 영농 형태별 분포를 정리한 것이 <표 2-4>와 <표 2-5>이다. 영농 승계자 수는 2000년 당시 15만 1천 명 정도로 파악되며, 이 중 남자가 97%이고 여자가 3.2%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에는 남자 후계자가 99%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여자 후계자가 미미하나마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들어 여성 농업경영주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농 승계자의 절대 숫자를 영농 형태별로 보면, 농가 수가 많은 논벼, 채소, 과수, 전작, 축산 등이 역시 승계자 보유농가가 많다. 그러나 2000년의 영농 승계자 확보 비율을 보면 과수(13.3%), 논벼(11.7%), 축산(10.4%), 화훼(9.8%) 등의 순으로 승계자가 많이 분포한다.

그렇다면 영농 후계자의 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2000년도 농업총조사에서 영농 승계자와 관련되는 지표를 선정하여 요인의 관계를 로짓(Logit) 분석을 통하여 설명하여 보기로 한다. 로짓 모형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반응 범위를 갖는 종속변수

표 2-4. 영농 승계자의 성별 분포

단위: 명, %

연도 성별	1990년		1995년		2000년	
	실수	비율	실수	비율	실수	비율
전 체	291,172	100.0	197,161	100.0	151,503	100.0
남 자	288,264	99.0	189,349	96.0	146,612	96.8
여 자	2,908	1.0	7,812	4.0	4,891	3.2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에서 작성.

표 2-5. 영농 승계자 보유농가의 영농 형태별 분포

단위: 명, %

연도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실수	확보 비율	실수	확보 비율	실수	확보 비율
전 체	289,520	16.4	197,161	13.1	150,453	11.0
논 벼	206,800	16.8	111,089	13.5	91,995	11.7
과 수	21,752	20.3	24,009	16.7	18,957	13.3
채 소	23,827	13.9	28,250	11.4	20,150	8.5
특용 작물	6,216	15.9	4,948	10.8	3,091	8.1
화 훼	559	9.3	1,093	10.9	784	9.8
전 작	17,509	15.4	8,498	12.1	7,564	8.2
축 산	11,968	13.4	18,653	12.0	7,473	10.4
기 타	889	11.1	621	12.4	439	8.8

주: 후계자 확보 비율은 전체 농가에 대한 비율임.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를 설명하기 위한 계량분석 모형이며, 그 분포를 로지스틱(logistic)으로 가정하는 것이다.²

<표 2-6>에서 영농 승계자 보유에 대한 로짓 분석의 결과, 겸업을 하는 농가일수록, 가구원 수가 많은 농가일수록, 농업종사자 비율이 많은 농가일수록, 경영주 연령이 높은 농가일수록, 학력이 높은 농가일수록, 경지면적이 많은 농가일수록, 주 작목이 벼농사 이외의 작목을 경영하는 농가일수록, 농축산물 판매액이 높은 농가일수록 영농 승계자를 많이 보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6. 영농승계자 보유에 대한 로짓 분석, 2000

항	목	파라미터	표준오차
전·겸업형태	전업(기준), 겸업	-0.804875	0.010631
가구원수		0.564021	0.003389
농업종사자비율	농업종사자/가구원	0.081460	0.023232
경영주 연령		0.052730	0.000468
경영주 학력	고졸 이상(기준), 고졸이하	0.369323	0.012721
경지면적	논 면적 + 밭면적	3.71E-05	1.01E-06
영농형태	벼농사(기준), 기타	-0.067440	0.009515
농축산물 판매액	3,000만원 이상(기준)	0.286243	0.017391
상수항		-7.250562	0.035783
log likelihood	-204143.9	910,823	-

주: 종속변수는 영농승계자 보유 유무로 구분(영농승계자 보유 기준)

자료: 2000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² 동일한 로짓 분석을 한 연구로 김완배 외, 『농업총조사 종합분석』,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02를 참조할 수 있다.

2. 농업 경영주와 후계 인력의 전망

그렇다면 현재의 농업 경영주의 연령에 비추어 앞으로의 농가 수와 연령 구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여기서는 2000년도의 농업 경영주 연령별 분포를 기초로 코호트 분석(Cohort component method)을 이용하여 농가의 존속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다.³

농가 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새로 진입하는 농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데, 신규 취농에 관한 통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다만, 2000년 농업총조사에서 경영주의 영농 경력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영농 경력 5년 미만의 경영주는 총 5만 5천명으로 1995년 이후 5년 동안에 새로 진입한 경영주라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다소 무리이기는 하지만 농가의 신규 유입은 <표 2-7>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2000년의 농업경영주 연령별 취농 비율을 적용하였다.

코호트 분석을 통하여 2015년까지 농업경영주 수(=농가 수)를 추정한 결과<그림 2-3, 표 2-8>, 총 농가 수는 2005년 122만호, 2010년에는 103만호, 2015년에는 84만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의 경영주는 2005년 57.4%, 2010년

표 2-7. 2000년 현재 영농경력 5년 미만의 경영주 수

구 분	단위: 명						합 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 체	2,928	13,181	14,267	12,766	9,973	2,013	55,128
남	2,817	12,498	13,127	11,398	8,472	1,363	49,675
여	111	683	1,140	1,368	1,501	650	5,453

주: 2000년 농업총조사 원자료에서 작성.

³ 코호트 분석에 대해서는 김정호 등(2003)을 참조.

그림 2-3. 농업경영주 수(=농가 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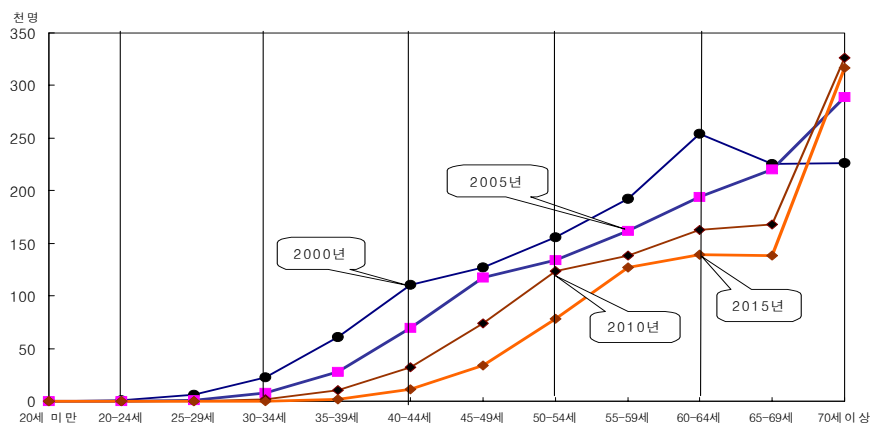


표 2-8. 농업경영주 수(=농가 수) 전망

단위: 명

연 도	25~29세	35~39세	45~49세	55~59세	65~69세	70세이상	합계
2000년	7,270	84,246	237,737	348,067	479,485	226,663	1,383,468
2005년	1,271	36,269	187,137	295,905	414,466	289,101	1,224,148
2010년	305	11,508	106,137	262,182	330,213	326,424	1,036,768
2015년	171	1,999	45,363	205,179	277,176	317,052	846,941

자료: 1990, 1995, 2000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63.3%, 2015년 70.1% 등으로 증가하는 반면 청장년층(40대까지) 경영주는 2005년 18.4%에서 2010년 11.4%, 2015년 5.7%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60세 이상의 고령 경영주에 의한 1ha 미만의 영세농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업인력 구조는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2015년에 20~30대 경영주는 2천여 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농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미래의 농업경영을 담당할 후계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래의 농업

인력의 소요를 추정하는 것도 흥미로운 과제이다.

농림부는 2004년 2월에 수립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통하여 2014년에 우리나라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업농으로 약 20만 호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주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30년으로 가정할 때 전업농 등 핵심인력을 매년 2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7천 명(20만 명/30년) 정도의 인력이 신규로 유입되어야 한다.

2003년 현재 경지규모 2ha 이상의 전업농가는 17만 3천 호이나 이중 경영주 연령이 55세 이상인 농가의 비율이 69.5%(12만 호)에 달하므로 향후 10년간 매년 1만 2천 명의 경영주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림부의 정책 목표대로 신규 취농자의 60%가 선도농이 된다고 가정할 때 2013까지 2만 7천 명의 선도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4,500명 정도의 신규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다.⁴

이러한 신규 농업 인력의 자원으로 <표 2-9>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2003년 현재 농업계 학교는 고등학교 101개(그 중 순수농고 24개), 전문대학 13개(그 중 순수농전 2개), 4년제 농업계 대학 44개(수의과대학 10개 포함)로 졸업생 수는 연간 총 20,291명에 달하지만, 이들 중에서 신규로 취농하는 사람은 1,500명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2003년에 농림부가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고 신규로 취농한 농업인 수는 농업계 고교 562명(취농 비율 6.4%), 한국농업전문학교 235명(취농 비율 98%), 여주농업전문학교 45명(취농 비율 50%), 연암축산원예전문대학 104명(취농 비율 20%), 기타 농대 532명(취농 비율 5%) 등으로 집계되었다.

⁴ 농림부, 『농업·농촌 발전 세부추진계획』, 2004.12.

따라서 농림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2004.12)을 통하여 농업계 학교 졸업자의 영농정착 비율을 높이고 아울러 도시민의 귀농 등 영농 희망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통한 우수인력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농림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농업계 학교 졸업자의 취농 비율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여나가면서 도시민의 귀농연수 등을 확충하여 2013년에는 연간 6천 명의 신규 취농자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1990년부터 행정조사를 통하여 귀농 인력을 파악하고 있는데, <표 2-10>과 <표 2-1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총 22,703명이 영농을 위하여 농촌으로 귀농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6,409명, 1999년에는 4,118명이 귀농하였으나, 그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연간 대략 1천명

표 2-9. 신규 취농의 자원 및 인력 전망

인력 자원		신규 취농자(추정)		
		2003년	2008년	2013년
○ 농업계 학교	총 20,291명	1,478명	2,388명	3,422명
· 농업계 고교	8,786명	562 (6.4%)	878 (10%)	1,318 (15%)
· 한농전	240	235 (98%)	235 (98%)	235 (98%)
· 여주농전	90	45 (50%)	54 (60%)	63 (70%)
· 연암농전	520	104 (20%)	156 (30%)	208 (40%)
· 기타 농대	10,655	532 (5%)	1,065 (10%)	1,598 (15%)
○ 비농업계	-	1,000명	2,000명	2,620명
· 직업훈련	-	-	200	200
· 대학생 창업연수	-	-	300	420
· 귀농연수 등	-	1,000	1,500	2,000
합 계		약 2,500명	약 4,388명	약 6,042명

주: ()안의 %는 취농 비율.

자료: 농림부 경영인력과 내부자료.

내외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귀농자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30대가 42.8%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최근 들어 고령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즉, 2002년까지는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이었으나, 2003년부터는 40대가, 그리고 2004년에는 50대가 가장 많다. 그리고 영농 형태별로는 논벼와 밭작물 등의 경종 농업이 54.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귀농자들은 대체로 영농기술 습득이 용이한 작목을 선택하여 취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0. 귀농 추이와 연령 분포

단위: 명, (%)

구 분	계(%)	'90~'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계	22,703(100)	3,285	2,060	1,841	6,409	4,118	1,154	880	769	885	1,302
29이하	1,906(8.4)	257	111	105	809	361	65	38	62	64	34
30~39	9,706(42.8)	1,444	681	711	3,222	2,077	515	316	258	239	243
40~49	6,158(27.1)	736	596	492	1,544	1,206	391	293	238	260	402
50~59	3,541(15.6)	534	477	334	659	422	155	187	149	201	423
60이상	1,392(6.1)	314	195	199	175	52	28	46	62	121	200

자료: 농림부 경영인력과.

표 2-11. 귀농 추이와 영농 형태 분포

단위: 명, (%)

구분	계(%)	'90~'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계	22,703(100)	3,285	2,060	1,841	6,409	4,118	1,154	880	769	885	1,302
경종	12,370(54.5)	1,271	1,197	1,084	4,001	2,236	533	533	360	432	723
원예	2,984(13.1)	575	204	204	692	621	214	104	87	141	142
과수	2,105 (9.3)	349	233	207	504	353	89	68	98	69	135
축산	2,656(11.7)	698	257	172	556	427	146	102	123	77	98
기타	2,588(11.4)	392	169	174	656	481	172	73	101	166	204

자료: 농림부 경영인력과.

참고로 이 연구의 조사대상인 여주농업전문학교 졸업생과 전국귀농운동본부 교육 이수자들의 진로 및 취농 실적은 <표 2-12>부터 <표 2-15>까지 정리한 바와 같다.

여주자영농고 졸업생의 취농 비율은 최근 들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1994~2005년 평균 41.4%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주농업전문학교의 취농 비율은 1998~2005년 평균 22.0%를 나타내고 있다.

표 2-12. 여주자영농고의 졸업생 진로 동향

단위: 명

졸업년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졸업생			104	100	108	114	102	119	157	159	154	155	121	147
진 로 현 황	취 업	자영자수	52	72 (53)	87 (55)	82 (66)	58 (57)	53 (34)	33 (29)	37 (32)	54 (41)	34 (31)	34 (33)	43 (42)
		농업관련	2	11	5	14	18	11	26	25	20	22	4	5
		비농업직	1	5	8	6	15	37	58	130	28	15	18	4
	진 학	동일계			1	10	5	8	28	32	36	36	30	36
		타계						8	4	10	11	8	9	34
		기타	49	12	7	2	6	2	8	27	38	31	27	25

주: () 내는 자영 목적이 뚜렷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전문교육원이나 한국농업전문학교 진학자는 자영자로 포함.

자료: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내부자료.

표 2-13. 여주농전 졸업생의 취농 동향

단위: 명

구분 \ 졸업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졸업생수		48	26	40	51	59	53	50	36	363
취 농 자 수	농·원예	6	6	8	9	7	3	4	5	48
	축산	2	4	3	1	5	3	6	2	26
	복합	0	0	1	2	1	1	0	1	6
	합계	8	10	12	12	13	7	10	8	80

자료: 여주농업전문학교 내부자료.

한편, 사단법인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는 서울을 비롯하여 각 도 단위 귀농 준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13회에 걸쳐 총 546명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귀농 교육이 시작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총 3,150명을 교육하였으며, 이 가운데 귀농한 사람은 약 350명으로 수강생 대비 귀농 비율은 약 11%에 달하고 있다.

표 2-14. 2004년 귀농운동본부 교육 실적

구분	서울			전국	경남	광주	울산	불교	부산		귀농 전문		합 계
기수	28기	29기	31기	30기	6기	9기	4기	2회	13기	14기	12기	13기	13회
시기 (월)	2~4	5~7	9~11	7	6~7	10~11	10	봄 가을	3~5	9~10	4~6	8~10	
인원	43	56	50	42	77	54	8	80	31	62	43		546명

자료: (사)전국귀농운동본부 내부자료.

표 2-15. 귀농운동본부 교육 이수자의 취농 실적

구 분	인원수	비 고
귀농학교 수강생	약 3,150명	1996~2004년 평균 350명×9년 = 3150 서울 4회 지역 4회 평균
수강생 중 귀농자	약 350명	수강생 대비 귀농 비율 11%

자료: (사)전국귀농운동본부 내부자료.

제 3 장

신규 취농자의 영농에 대한 태도

1. 태도의 개념과 분석 방법

일반적으로 태도란 사회적 사물과 현상에 대해 개인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비교적 일관성 있게 정서화된 경향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재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따라서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영농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영농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영농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취농 의향이 높고 영농 정착도 빠르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⁵

영농에 대한 태도 검사의 방법론은 송해균(1972)⁶이 처음 시도하였

⁵ 영농에 대한 태도와 취농 실태에 대해서는 조영철·김성수(1987), 민상기(1995), 이동하(1998) 등을 참고할 수 있다.

⁶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응답자의 긍정 또는 부정적 심적 상태를 묻는 각 문항의 진술문(예: 농업이란 직업은 즐거운 직

으며, 최근에 정철영 등(1998)⁷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연구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항목 중에서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뿐만 아니라 실제의 영농 종사 및 농촌 생활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나는 농업인이 되기를 원해 왔었다.
- 2) 나는 내 자식이 농업인과 결혼하는 것을 찬성한다.
- 3) 농업에 종사하려면 다른 직업만큼 교육을 많이 받을 필요는 없다.
- 4) 농업은 젊은 사람들이 장래를 위해 한번 뛰어들 가치가 있는 분야이다.
- 5) 농촌생활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
- 6) 나는 작물이나 가축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다.
- 7) 나는 농업이 도시 직장만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 8) 농업은 육체적으로 고달픈 노동을 많이 해야 한다.
- 9) 농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 10) 나는 앞으로 평생을 농촌에서 살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리커트 척도(Likert scales)가 널리 이용된다. 리커트 척도는 특정 진술에 대한 찬성과 반대 또는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는 5개의 응답 범주를 설정하며, 예를 들어 영농에

업이다)에 대해 절대찬성~절대반대 등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두 차례 예비조사를 통해 검사 척도가 개발되었는데, 1차검사는 농촌진흥청 공무원, 대학교수, 농고교사, 농업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차검사는 농고교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고, 두 검사간의 상관계수는 0.89였다.

⁷ 농업을 묘사하는 15개 형용사 쌍(예: 매력있는-매력없는)에 대하여 각 쌍의 가운데 7개의 점 중 응답자의 생각에 가까운 가운데 점을 표시하여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10개 항목에 대하여 ‘매우 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 반대’로 단계화한 5단계 척도 중 하나를 택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척도 단계에 따라 1에서 5까지의 점수를 부여하며, 모든 문항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응답자의 태도 지수를 산정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채용한 검사 척도의 신뢰도는 0.717(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0.766, 귀농운동본부 0.671)이었다. 그리고 통계분석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은 SPSS win 12.0을 이용하였다.

2. 영농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

2.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는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중 취농자 각각 139명과 45명, 전국귀농운동본부 교육생과 교육 수료생 중 귀농자 각각 134명과 62명 등으로 총 380명이다. 이들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영농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제 4장에서 분석하는 취농 의향과 영농 실태도 함께 조사하였다.

조사표는 부록에 게재한 바와 같으며, 2005년 6월부터 9월 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즉,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재학생과 전국귀농운동본부 교육생에 대해서는 교육 시간 중에 집단적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학교(두창목 교장)의 협조를 받아 담당 교사들이 직접 영농 현장을 방문하여 청취 조사하였다. 그리고 전국귀농운동본부 교육 수료생에 대

해서는 귀농운동본부의 추천을 받아 100명에게 조사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1>에서 <표 3-4>까지 정리한 바와 같다. 다만, 항목별도 무응답이 있기 때문에 전체 합계가 380명이 되지 않는 집계표도 존재한다.

표 3-1. 조사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연 령	취농예정자			신규취농자			전 체
	여주농전	귀농본부	소 계	여주농전	귀농본부	소 계	
20세이하	120 (87.0)	0 (0)	120 (44.6)	0 (0)	0 (0)	0 (0)	120 (32.0)
21~30세	7 (5.1)	9 (6.9)	16 (5.9)	32 (72.7)	0 (0)	32 (30.2)	48 (12.8)
31~40세	4 (2.9)	35 (26.7)	39 (14.5)	9 (20.5)	21 (33.9)	30 (28.3)	69 (18.4)
41~50세	5 (3.6)	56 (42.7)	61 (22.7)	3 (6.8)	30 (48.4)	33 (31.1)	94 (25.1)
51세이상	2 (1.4)	31 (23.7)	33 (12.3)	0 (0)	11 (17.7)	11 (10.4)	44 (11.7)
합 계	138 (100)	131 (100)	269 (100)	44 (100)	62 (100)	106 (100)	375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표 3-2. 조사 응답자의 성별 분포

단위: 명, (%)

성 별	취농예정자			신규취농자			전 체
	여주농전	귀농본부	소 계	여주농전	귀농본부	소 계	
남	121 (87.1)	86 (64.7)	207 (76.1)	43 (95.6)	50 (80.6)	93 (86.9)	300 (79.2)
여	18 (12.9)	47 (35.3)	65 (23.9)	2 (4.4)	12 (19.4)	14 (13.1)	79 (20.8)
합 계	139 (100)	133 (100)	272 (100)	45 (100)	62 (100)	107 (100)	379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표 3-3. 조사 응답자의 직업 상태 분포

단위: 명, (%)

직업	귀농예정자	귀농자	전체
직장생활	68 (50.7)	29 (46.8)	97 (49.5)
자영업	22 (16.4)	20 (32.3)	42 (21.4)
실직/퇴직	13 (9.7)	1 (1.6)	14 (7.1)
주부	23 (17.2)	4 (6.5)	27 (13.8)
기타	8 (6.0)	8 (12.9)	16 (8.2)
합계	134 (100)	62 (100)	196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전국귀농운동본부 교육생 및 이수자임.

표 3-4. 조사 응답자의 영농경력 분포

단위: 명, (%)

영농경력	여주농진 졸업생	귀농본부 이수생	전체
3년 이하	14 (33.3)	22 (35.5)	36 (34.6)
4 ~ 6년	11 (26.2)	31 (50.0)	42 (40.4)
7년 이상	17 (40.5)	9 (14.5)	26 (25.0)
합계	42 (100)	62 (100)	104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2.2. 영농에 대한 태도 분석 결과

예비 취농자와 취농자들은 모두 영농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응답자의 영농에 대한 태도의 총 평균 점수는 3.56으로 이론적 평균보다 높았으며, 특히 9번 문항(농업의 국가적 중요성)은 평균 4.65

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⁸ 또한 취농을 준비하고 있는 여주농전 재학생과 귀농운동본부 교육생들은 4번 문항(농업의 장래성)에 높게 응답한 반면, 취농한 사람들은 10번 문항(농촌생활 만족)과 6번 문항(농사일의 즐거움)에 높게 응답하였다.

표 3-5. 영농에 대한 태도 문항별 점수 및 총점

태도 문항 ^a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전국귀농운동본부				전체	
	재학생		졸업생 (취농자)		교육생		수료생 (귀농자)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1.나는 농업인이 되기를 원해 왔었다.	3.23	1.03	3.39	0.99	2.91	1.15	3.37	1.27	3.16	1.13
2.나는 내 자식이 농업인과 결 혼하는 것을 찬성한다.	3.07	0.98	3.39	0.95	3.27	1.03	3.79	0.96	3.30	1.02
3.농업에 종사하려면 다른 직업 만큼 교육을 많이 받을 필요 는 없다. ^b	3.79	1.04	4.11	1.04	3.80	0.93	3.77	1.10	3.83	1.01
4.농업은 젊은 사람들이 장래를 위해 한번 뛰어들 가치가 있 는 분야이다.	3.90	1.00	3.98	0.92	3.88	0.98	3.94	0.96	3.91	0.97
5.농촌생활은 여러 가지로 불편 한 점이 많다. ^b	2.62	1.10	2.93	1.30	2.60	0.90	2.80	1.06	2.68	1.06
6.나는 작물이나 가축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다.	3.49	1.04	4.21	0.74	3.82	0.88	4.19	0.57	3.80	0.93
7.나는 농업이 도시 직장 만큼 좋 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3.84	0.93	4.17	0.82	3.76	0.95	4.21	0.86	3.91	0.93
8.농업은 육체적으로 고달픈 노 동을 많이 해야 한다. ^b	2.47	1.02	2.38	1.04	2.02	0.81	1.92	0.97	2.21	0.97
9.농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 하다.	4.45	0.77	4.72	0.55	4.73	0.48	4.87	0.46	4.65	0.62
10.나는 앞으로 평생을 농촌에서 살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3.36	1.08	4.14	0.80	4.32	0.64	4.56	0.59	3.99	0.97
합 계 ^c	34.38	5.73	37.66	4.69	35.19	4.70	37.43	3.93	35.55	5.13

a: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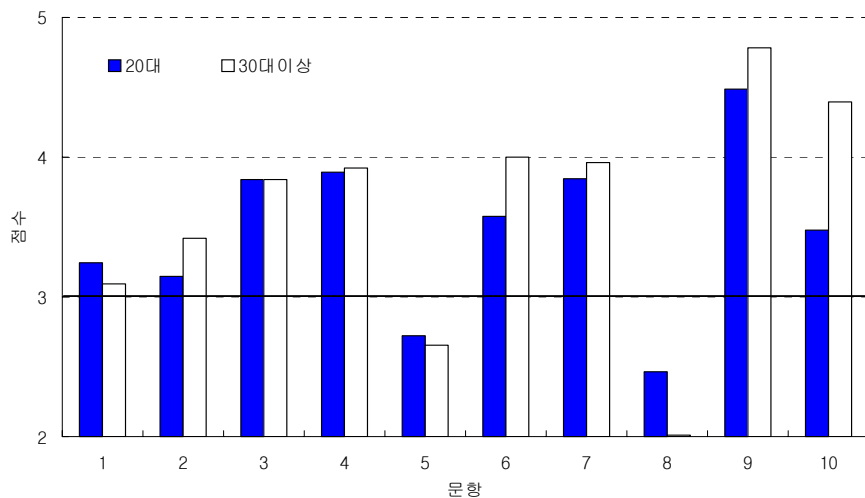
b: 역반응 문항

c: 태도 문항 합계의 이론적 반응범위는 최소 10 ~ 최대 50, 평균은 30점.

⁸ 정철영 등(1998)이 농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농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그림 3-1>에서 연령에 따른 영농에 대한 태도를 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영농에 대하여 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응답자의 연령대에 관계없이 모두 전반적으로 영농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었지만, 30대 이상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는 36.19인 반면에 20대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는 34.81로서 나이 든 사람들이 영농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나타났다($t=2.50$, $p=0.013$). 이로 미루어볼 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사회 경험은 쌓은 사람들이 취농 동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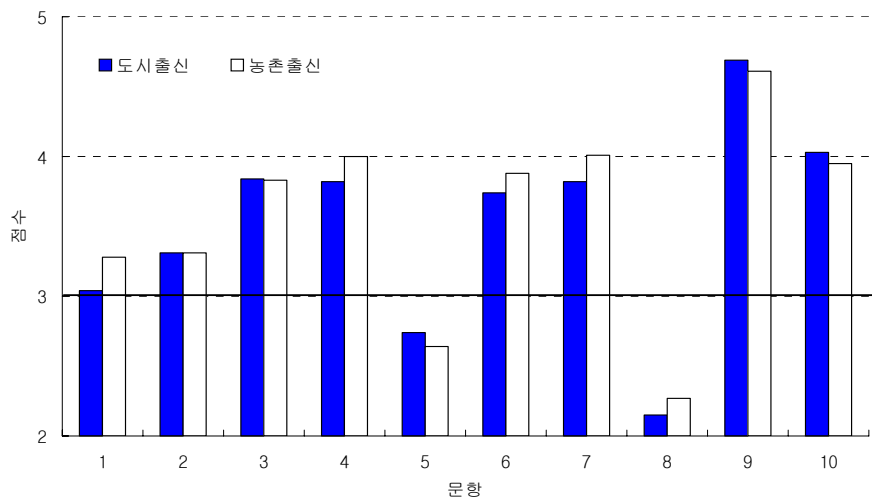
그림 3-1. 연령에 따른 영농에 대한 태도 문항별 점수 분포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응답자의 농촌 출신 여부는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농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농촌이나 도시냐의 출신 여부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영농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었고(농촌 출신

그림 3-2. 농촌출신 여부에 따른 영농에 대한 태도 문항별 점수 분포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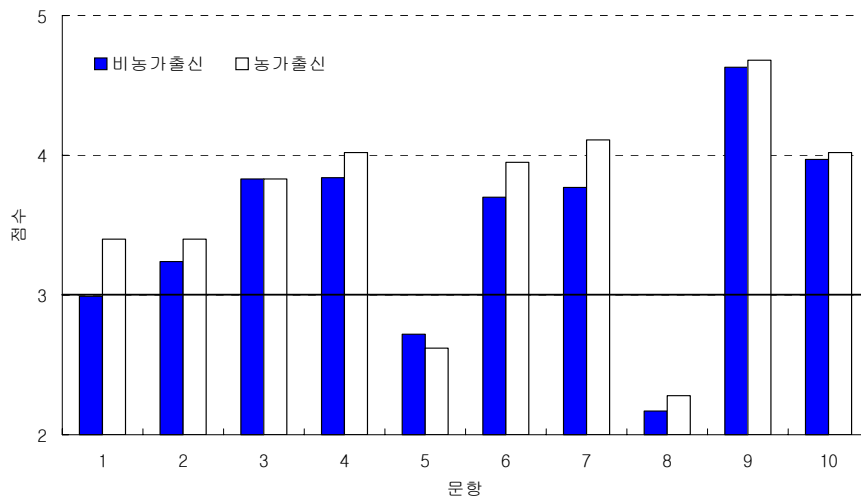
35.93, 도시 출신 35.16),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⁹

그러나 농가 출신과 비농가 출신을 비교하면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 출신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집단 모두 전반적인 영농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었지만, 농가 출신자들의 평균 점수는 36.56이고 비농가 출신자들의 평균 점수는 34.89로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t=3.00$, $p=0.003$).¹⁰

⁹ 송해균(1972)의 조사에 의하면 농촌지역에 위치한 농고의 교사가 도시지역에 위치한 농고의 교사보다 농업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고, 박기상 등(1984)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지역 농고 학생이 도시지역 농고학생보다 농업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다.

¹⁰ 박기상 등(1984)의 조사에 의하면 농가 출신 농고 학생과 비농가 출신 농

그림 3-3. 농가 출신 여부에 따른 영농에 대한 태도 문항별 점수 분포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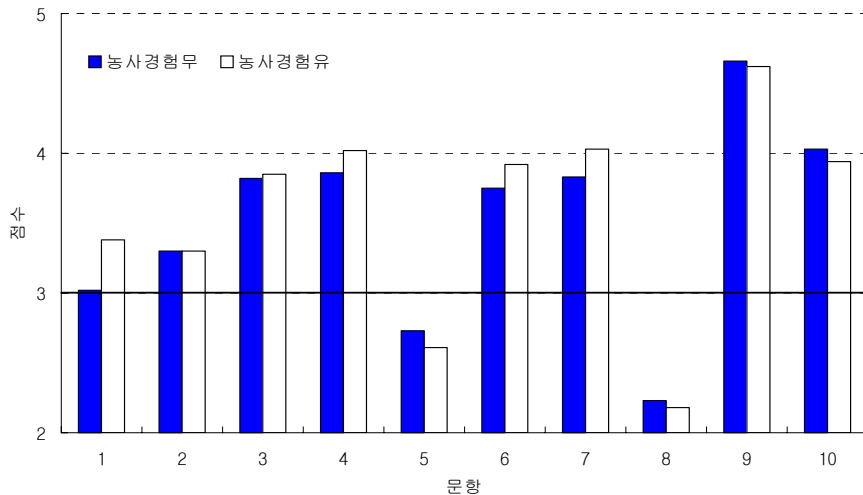
또한 <그림 3-4>에서 농사경험 유무에 따른 영농에 대한 태도를 보면, 영농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의 영농에 대한 태도는 평균 점수가 각각 35.35과 35.96으로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¹

이러한 분석 결과로 볼 때, 농가 출신 여부는 영농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농촌 출신이나 영농 경험 여부는 그 영향이 미미하며, 따라서 사전에 농업·농촌의 경험을 갖는 것이 영농에

고학생의 농업에 대한 태도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정철영 등(1998)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님의 농업생산직에 종사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농업의 가치, 농업의 장래 등에 대한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¹¹ 광기상 등(1984)의 연구에 의하면 농고에서 농업관련 서클 활동을 해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농업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다.

그림 3-4. 농사 경험 유무에 따른 영농에 대한 태도 문항별 점수 분포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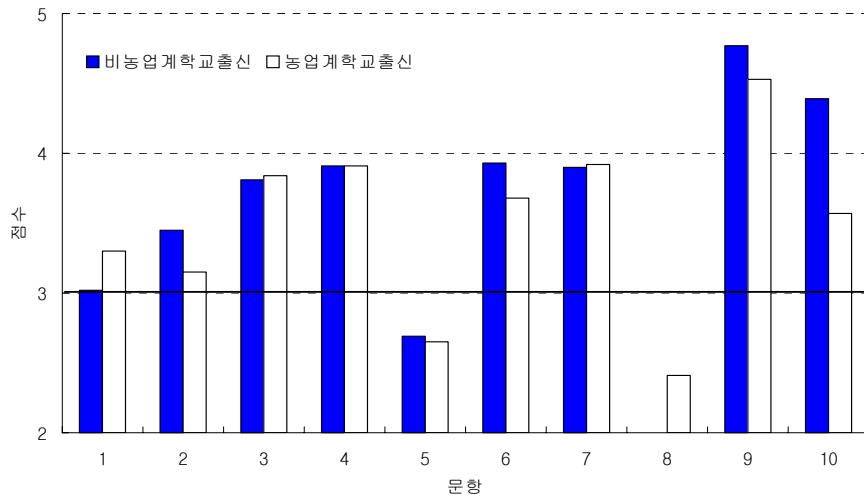
대한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3-5>에서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영농에 대한 태도를 보면, 농업계 학교교육의 경험은 영농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에 대한 태도 전반에 대해서 농업계 학교 출신자와 비농업계 학교 출신자의 평균 점수는 각각 35.14와 35.93으로 차이는 없었고, 모두 영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²

반면에, <그림 3-6>에서 취농 여부에 따른 영농에 대한 태도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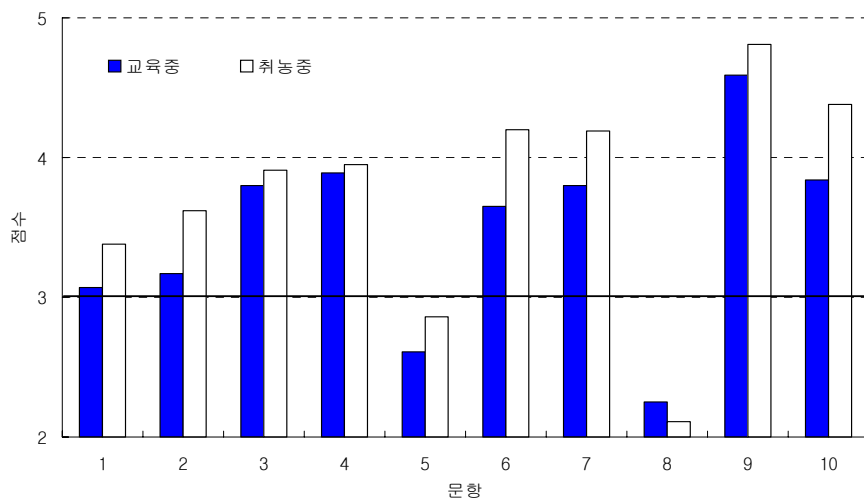
¹² 정철영 등(1998)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계 고등학생보다 농업계 고등학생은 농업의 수익성, 농업의 용이성,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농업의 장래 등에 대해 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농업의 국가적 중요성, 농업의 육체적 안전성 등에 대해서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림 3-5.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영농에 대한 태도 문항별 점수 분포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그림 3-6. 취농 여부에 따른 영농에 대한 태도 문항별 점수 분포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면, 취농한 사람이 취농 예정자보다 영농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응답자들은 취농 여부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영농에 대한 태도는 모두 긍정적이었지만, 현재 영농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취농자들의 평균 점수가 37.52이고, 교육 이수중인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는 34.78로서, 취농자들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4.64$, $p=0.000$).¹³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달리 말하면 영농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농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점점 긍정적인 태도가 함양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농업계 학교교육의 경험 여부는 영농에 대한 태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생들도 취농자에 비하여 영농에 대한 태도 점수가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농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이 영농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영농에 대한 태도는 취농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주변 여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영농에 대한 태도와 어떠한 인과관계를 갖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3-6>은 영농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6개 독립변수와 회귀분석 결과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농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재 취농 여부, 농가 출신 여부, 농업계학교 출신 여부¹⁴ 등이 통

¹³ 선행연구에는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¹⁴ 농업계학교 출신여부에 따라 t 검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게 된 것은 t 검증에 포함된 일부 사례가 회귀분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0.31$, $p<0.05$). 특히 현재 취농 여부가 전체 설명력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영농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취농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6. 영농에 대한 태도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치
취농 여부	2.56	0.23	4.28*
농가 출신 여부	1.82	0.17	3.12*
농업계 학교 출신 여부	-1.31	-0.13	-2.31*
농촌 출신 여부		0.04	0.57
농사 경험 유무		0.05	0.77
연령		0.01	0.14
(상수)	34.77		80.08

$R=0.31$, $F=11.73(p=0.000)$

*: $p<0.05$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석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회귀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인들 중에 하나라도 응답하지 않은 사례는 회귀분석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제 4 장

신규 취농의 실태와 관련 요인

1. 분석의 관점

신규 취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대체로 영농 능력 등의 개인적 요인, 직업 만족 등의 산업적 요인, 주변의 지지 등의 사회적 요인 등을 지적하고 있다. 즉, 취농자가 영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여 농업을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으며, 농업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취농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동기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취농의 동기나 목적에는 개인적 선호도나 가치관이 작용하기 때문에 평준화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취농의 동기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농촌의 전원생활이 좋아서 부수적으로 영농을 하는 형태(전원 생활형)가 있는가 하면, 직업으로서 농장경영을 창업하는 형태(농장 창업형)가 있고, 또한 소수이지만 환경운동이나 종교적 실천 때문에 정착하는 형태(소속 단체형)가 있으며, 나아가 도시생활이 싫어서 농촌으로 도피하는 형태(도시 도피형)도 존재한다.

다음 단계는 취농을 결정한 사람이 영농에 정착해야 하는데, 영농 정착에 관한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개인적 요인(자아 개념, 성격, 농업에 대한 태도, 영농 적성, 영농 준비도), 교육 관련 요인(학교의 물적 조건, 학교의 사회적 풍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업 성취), 가정 요인(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정의 의사결정 구조, 가정의 가치지향성, 가정의 상호작용 환경), 사회적 요인(지역사회의 가치 지향, 대중매체 접촉 정도, 동료 집단의 지위, 지역사회에 상대적 지위, 영농 선택시 경기 동향, 농업의 직업 특성)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영농 정착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를 서로 비교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성공적인 영농 정착에는 농장 경험의 수준, 농장의 입지 조건, 작목의 적합성, 작목의 조합 및 작부체계, 농산물 가격정보 활용, 생산물 판매가격의 안정성 등의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취농자가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얼마나 적응하느냐가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취농자의 농촌 적응과 관련하여 주거 적응(주거 만족, 농촌 정주의사, 농촌 친밀감, 귀농 만족, 자연환경 만족, 도시생활과의 비교), 직업 적응(자금조달, 농기계 구입 수리, 작목 및 작목전환 여부), 사회적 적응(이웃과의 친숙도, 주위의 평가, 지역 차별, 문화생활 만족도, 조직참여 정도, 자녀교육 만족도)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 동향의 연장선에서 신규 취농의 실태와 요인을 규명하려고 한다. 먼저, 신규 취농의 환경과 여건에 대하여 취농자의 농촌 출신 여부, 농가 출신 여부, 영농 조언자 유무, 주변 사람들의 지지, 취농 이유 등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취농의 의

향과 실태에 대해서는 여주농전이나 귀농운동본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 취농자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신규 취농자로 구분하여, 예비 취농자에 대해서는 취농 준비의 상황, 취농 의향 및 취농 예정 시기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신규 취농자의 영농 실태에 대해서는 투자자금 규모 및 조달 방법, 영농규모 및 농축산물 판매액, 영농목표 달성 정도, 현재의 경영 수준, 향후 영농 계획 등을 분석하였다.

2. 신규 취농의 환경과 여건

2.1. 농촌 출신과 도시 출신

먼저, 예비 취농자 및 신규 취농자가 농촌 출신이나 도시 출신이냐에 따라 취농 연령과 취농 형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표 4-1>과 <표 4-2>이다.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 취농자의 경우에는 도시 출신이

표 4-1. 예비 취농자의 농촌 출신 여부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형태		전 체
	~20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도 시	47 (39.8)	7 (46.7)	28 (71.8)	31 (51.7)	23 (69.7)	136 (51.3)	39 (41.5)	88 (55.3)	127 (50.2)
농 촌	71 (60.2)	8 (53.3)	11 (28.2)	29 (48.3)	10 (30.3)	129 (48.7)	55 (58.5)	71 (44.7)	126 (49.8)
합 계	118 (100)	15 (100)	39 (100)	60 (100)	33 (100)	265 (100)	94 (100)	159 (100)	253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표 4-2. 신규 취농자의 농촌 출신 여부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형태		전 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도 시	4 (12.5)	14 (46.7)	23 (69.7)	7 (63.6)	48 (45.3)	2 (5.4)	44 (64.7)	46 (43.8)
농 촌	28 (87.5)	16 (53.3)	10 (30.3)	4 (36.4)	58 (54.7)	35 (94.6)	24 (35.3)	59 (56.2)
합 계	32 (100)	30 (100)	33 (100)	11 (100)	106 (100)	37 (100)	68 (100)	105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농촌 출신보다 다소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예비 취농자 가운데 20대까지는 농촌 출신이 많고, 30대 이상은 도시 출신이 많았다. 또한 취농형태별로는 예비 취농자 중에서 경영 승계자는 농촌 출신이 많고, 신규 창업자는 도시 출신이 많았다.

한편,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 취농자의 경우 농촌 출신이 도시 출신보다 다소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세 이하의 농촌 출신이 많고, 41세 이상에서는 도시 출신이 많았다. 취농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는 농촌 출신이 높고, 신규 창업자는 도시 출신이 많았다.

2.2. 농가 출신과 비농가 출신

예비 취농자의 농가 출신 여부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예비 취농자들은 대체로 비농가 출신이 많았는데, 이는 연령대에 관계없이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반면,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 취농자들은 농가 출신과 비농가 출신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다. 연령대별로 20대는 농가 출신

표 4-3. 예비 취농자의 농가 출신 여부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형태		전 체
	~20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비농가	65 (55.6)	10 (62.5)	29 (74.4)	38 (62.3)	25 (75.8)	167 (62.8)	39 (41.9)	116 (72.5)	155 (61.3)
농가	52 (44.4)	6 (37.5)	10 (25.6)	23 (37.7)	8 (24.2)	99 (37.2)	54 (58.1)	44 (27.5)	98 (38.7)
합 계	117 (100)	16 (100)	39 (100)	61 (100)	33 (100)	266 (100)	93 (100)	160 (100)	253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표 4-4. 신규 취농자의 농가 출신 여부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형태		전 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비농가	5 (15.6)	18 (60.0)	25 (75.8)	6 (60.0)	54 (51.4)	3 (8.1)	50 (74.6)	53 (51.0)
농가	27 (84.4)	12 (40.0)	8 (24.2)	4 (40.0)	51 (48.6)	34 (91.9)	17 (25.4)	51 (49.0)
합 계	32 (100)	30 (100)	33 (100)	10 (100)	105 (100)	37 (100)	67 (100)	104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이 많지만, 30대 이상에서는 비농가 출신이 많았다. 또한 이들의 취농 형태를 보면, 농가 출신은 경영 승계자가 많은 반면에 비농가 출신은 신규 창업자가 많았다.

2.3. 영농 조연자 유무

영농 조연자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예비 취농자들은 대체로 영농 조연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세

표 4-5. 예비 취농자의 영농조언자 유무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형태		전 체
	~20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없음	54 (45.4)	11 (68.8)	25 (64.1)	46 (75.4)	27 (84.4)	163 (61.0)	39 (41.1)	113 (70.6)	152 (59.6)
있음	65 (54.6)	5 (31.3)	14 (35.9)	15 (24.6)	5 (15.6)	104 (39.0)	56 (58.9)	47 (29.4)	103 (40.4)
합 계	119 (100)	16 (100)	39 (100)	61 (100)	32 (100)	267 (100)	95 (100)	160 (100)	255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표 4-6. 신규 취농자의 영농조언자 유무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형태		전 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없음	12 (37.5)	23 (76.7)	27 (81.8)	11 (100.0)	73 (68.9)	15 (40.5)	57 (83.8)	72 (68.6)
있음	20 (62.5)	7 (23.3)	6 (18.2)	0 (0)	33 (31.1)	22 (59.5)	11 (16.2)	33 (31.4)
합 계	32 (100)	30 (100)	33 (100)	11 (100)	106 (100)	37 (100)	68 (100)	105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이하의 영농 조언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20대 이상은 영농 조언자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취농 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는 조언자가 있으나, 신규 창업자는 조언자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 취농자들은 대체로 영농조언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는 영농 조언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30대 이상은 영농 조언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취농 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는 영농 조언자가 있는 반면, 신규 창업자는 영농 조언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신규 취농을 위한

상담 등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2.4. 주변 사람들의 지지

주변사람들의 지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 취농자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농 종사에 대한 지지 정도가 긍정적이지도 그렇다고 부정적이지도 않았다.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취농 형태별로는 신규 창업자보다는 경영 승계자일 때가 대체로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높았다.

한편, <표 4-8>과 같이 신규 취농자들은 대체로 영농 종사 전에는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상대

표 4-7. 예비 취농자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지지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형태		전 체
	~20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매우 부정적	5 (4.2)	0 (0)	5 (12.8)	6 (10.0)	2 (6.3)	18 (6.8)	5 (5.3)	13 (8.2)	18 (7.1)
부정적	20 (16.9)	8 (50.0)	12 (30.8)	18 (30.0)	7 (21.9)	65 (24.5)	17 (18.1)	46 (28.9)	63 (24.9)
보통	56 (47.5)	4 (25.0)	13 (33.3)	13 (21.7)	13 (40.6)	99 (37.4)	34 (36.2)	59 (37.1)	93 (36.8)
긍정적	29 (24.6)	1 (6.3)	9 (23.1)	16 (26.7)	9 (28.1)	64 (24.2)	28 (29.8)	32 (20.1)	60 (23.7)
매우 긍정적	8 (6.8)	3 (18.8)	0 (0)	7 (11.7)	1 (3.1)	19 (7.2)	10 (10.6)	9 (5.7)	19 (7.5)
합 계	118 (100)	16 (100)	39 (100)	60 (100)	32 (100)	265 (100)	94 (100)	159 (100)	253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표 4-8. 신규 취농자에 대한 취농전 주변 사람들의 지지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형태		전 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매우 부정적	0 (0)	11 (36.7)	15 (45.5)	1 (9.1)	27 (25.5)	2 (5.4)	24 (35.3)	26 (24.8)
부정적	9 (28.1)	10 (33.3)	12 (36.4)	5 (45.5)	36 (34.0)	12 (32.4)	23 (33.8)	35 (33.3)
보통	5 (15.6)	4 (13.3)	2 (6.1)	4 (36.4)	15 (14.2)	7 (18.9)	8 (11.8)	15 (14.3)
긍정적	13 (40.6)	5 (16.7)	2 (6.1)	1 (9.1)	21 (19.8)	11 (29.7)	11 (16.2)	22 (21.0)
매우 긍정적	5 (15.6)	0 (0)	2 (6.1)	0 (0)	7 (6.6)	5 (13.5)	2 (2.9)	7 (6.7)
합 계	32 (100)	30 (100)	33 (100)	11 (100)	106 (100)	37 (100)	68 (100)	105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적으로 주변사람들의 지지가 적었다. 취농 형태별로는 신규 창업자보다는 경영 승계자일 때가 대체로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높았다.

2.5. 취농 이유

취농 이유는 개인적 가치, 농촌생활, 건강, 능력, 미래 전망, 퇴직 여생, 도시 회피, 영농 승계 등의 8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¹⁵

먼저, 예비 취농자들은<표 4-10>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농촌생활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 등의 이유로 취농하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¹⁵ 김성수 등(2004)이 귀농 동기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사업실패,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등의 이유가 가장 많은 반면, 영농승계, 농업전망 등이 좋아서 등의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나승일 등(2004)이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들의 영농동기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연과 더 붙어 사는 삶이 좋아서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영농승계 때문이었다.

‘도시의 저소득을 피해’, ‘부모 영농승계’ 등의 이유는 적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는 ‘미래 농업 전망을 보고’, ‘부모 영농승계’, ‘도시의 저소득을 피해’ 등의 경제적 이유와 ‘내 능력상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에, 30대 이상은 ‘농촌생활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 ‘퇴직후 여생을 위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같이 비경제적 이유가 많았다. 취농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는 ‘부모 영농승계’ 및 ‘내 능력상 가장 적합’이 많은 반면에, 신규 창업자는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농촌생활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 등의 이유가 많았다.

한편, 신규 취농자들의 취농 이유는 <표 4-10>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농촌생활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 등을 많이 지적하였다. 연령

표 4-9. 예비 취농자의 취농 이유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형태		전 체
	~20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31 (14.8)	12 (33.3)	35 (37.6)	50 (34.5)	20 (24.7)	148 (26.2)	44 (23.4)	95 (27.3)	139 (25.9)
농촌생활이 좋아서	32 (15.2)	5 (13.9)	19 (20.4)	29 (20.0)	17 (21.0)	102 (18.1)	32 (17.0)	66 (19.0)	98 (18.3)
건강을 위해	0 (0)	4 (11.1)	25 (26.9)	35 (24.1)	20 (24.7)	84 (14.9)	21 (11.2)	56 (16.1)	77 (14.4)
내능력상 가장 적합	46 (21.9)	6 (16.7)	2 (2.2)	3 (2.1)	1 (1.2)	58 (10.3)	23 (12.2)	33 (9.5)	56 (10.4)
미래 농업 전망을 보고	39 (18.6)	4 (11.1)	2 (2.2)	4 (2.8)	0 (0)	49 (8.7)	14 (7.4)	32 (9.2)	46 (8.6)
퇴직후 여생을 위해	0 (0)	0 (0)	5 (5.4)	20 (13.8)	19 (23.5)	44 (7.8)	8 (4.3)	35 (10.1)	43 (8.0)
도시의 저소득을 피해	31 (14.8)	2 (5.6)	3 (3.2)	2 (1.4)	3 (3.7)	41 (7.3)	15 (8.0)	25 (7.2)	40 (7.5)
부모 영농승계	31 (14.8)	3 (8.3)	2 (2.2)	2 (1.4)	1 (1.2)	39 (6.9)	31 (16.5)	6 (1.7)	37 (6.9)
합 계	210 (100)	36 (100)	93 (100)	145 (100)	81 (100)	565 (100)	188 (100)	348 (100)	536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복수 응답을 집계한 것임.

별로는 20대는 ‘미래 농업 전망을 보고’, ‘부모 영농승계’, ‘도시의 저소득을 피해’ 등과 같이 경제적 이유와 ‘내 능력상 가장 적합’ 등의 이유가 많은 반면에, 30대 이상은 ‘농촌생활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 ‘퇴직후 여생을 위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등과 같이 비경제적 이유가 많았다. 취농 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는 ‘농촌생활이 좋아서’, ‘부모 영농승계’ 및 ‘내 능력상 가장 적합’ 등의 이유가 많고, 신규 창업자는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농촌생활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 등의 이유가 많았다.

표 4-10. 신규 취농자의 취농 이유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체	취농형태		전체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4 (7.4)	25 (37.3)	27 (36.0)	11 (42.3)	67 (30.2)	9 (13.0)	56 (36.8)	65 (29.4)
농촌생활이 좋아서	14 (25.9)	17 (25.4)	21 (28.0)	7 (26.9)	59 (26.6)	19 (27.5)	40 (26.3)	59 (26.7)
건강을 위해	0 (0)	12 (17.9)	15 (20.0)	4 (15.4)	31 (14.0)	1 (1.4)	30 (19.7)	31 (14.0)
부모 영농승계	15 (27.8)	1 (1.5)	0 (0)	0 (0)	16 (7.2)	15 (21.7)	1 (0.7)	16 (7.2)
내능력상 가장 적합	7 (13.0)	5 (7.5)	3 (4.0)	1 (3.8)	16 (7.2)	11 (15.9)	5 (3.3)	16 (7.2)
미래 농업 전망을 보고	5 (9.3)	6 (9.0)	2 (2.7)	1 (3.8)	14 (6.3)	6 (8.7)	8 (5.3)	14 (6.3)
도시의 저소득을 피해	9 (16.7)	1 (1.5)	1 (1.3)	1 (3.8)	12 (5.4)	8 (11.6)	5 (3.3)	13 (5.9)
퇴직후 여생을 위해	0 (0)	0 (0)	4 (5.3)	0 (0)	4 (1.8)	0 (0)	4 (2.6)	4 (1.8)
사업 실패·실직 때문	0 (0)	0 (0)	2 (2.7)	1 (3.8)	3 (1.4)	0 (0)	3 (2.0)	3 (1.4)
합 계	54 (100)	67 (100)	75 (100)	26 (100)	222 (100)	69 (100)	152 (100)	221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복수 응답을 집계한 것임.

3. 예비 취농자의 취농 의향과 준비 상황

예비 취농자의 취농 의향과 준비 상황은 여주농업전문학교의 재학생과 전국귀농운동본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기로 한다.

3.1. 취농 준비 상황

예비 취농자들의 취농 형태를 연령별로 집계한 것이 <표 4-11>이다. 예비 취농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영 승계보다 신규 창업을 예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경영 승계는 20세 이하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표 4-12>와 같이 예비 취농자들은 대체로 연고지 취농을 예정하고 있었다. 예비 취농자들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연고지를 취농 예정지로 생각하였으며, 취농 형태에 따라서는 경영 승계자는 연고지, 신규 창업자는 비연고지를 취농 예정지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표 4-11. 예비 취농자의 연령대별 취농 형태

단위: 명, (%)

구 분	연령대					전 체
	20세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세이상	
경영승계	55 (47.8)	3 (18.8)	10 (27.8)	15 (26.8)	11 (37.9)	94 (37.3)
신규창업	60 (52.2)	13 (81.3)	26 (72.2)	41 (73.2)	18 (62.1)	158 (62.7)
합 계	115 (100)	16 (100)	36 (100)	56 (100)	29 (100)	252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표 4-12. 예비 취농자의 취농 예정지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형태		전 체
	~20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비연고지	37 (31.6)	7 (43.8)	18 (50.0)	28 (49.1)	20 (62.5)	110 (42.6)	19 (20.0)	87 (54.7)	106 (41.7)
연고지	80 (68.4)	9 (56.3)	18 (50.0)	29 (50.9)	12 (37.5)	148 (57.4)	76 (80.0)	72 (45.3)	148 (58.3)
합 계	117 (100)	16 (100)	36 (100)	57 (100)	32 (100)	258 (100)	95 (100)	159 (100)	254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표 4-13. 예비 취농자의 영농 예정 작목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형태		전 체
	~20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논벼	14 (12.1)	6 (40)	20 (52.6)	23 (41.1)	12 (37.5)	75 (29.2)	26 (27.4)	51 (33.1)	77 (30.9)
일반 밭작물	14 (12.1)	6 (40)	32 (84.2)	33 (58.9)	23 (71.9)	108 (42)	31 (32.6)	74 (48.1)	105 (42.2)
과수	25 (21.6)	4 (26.7)	9 (23.7)	28 (50)	14 (43.8)	80 (31.1)	27 (28.4)	49 (31.8)	76 (30.5)
채소	25 (21.6)	8 (53.3)	30 (78.9)	36 (64.3)	27 (84.4)	126 (49)	36 (37.9)	84 (54.5)	120 (48.2)
특용 작물	12 (10.3)	4 (26.7)	12 (31.6)	15 (26.8)	8 (25)	51 (19.8)	16 (16.8)	33 (21.4)	49 (19.7)
화훼	30 (25.9)	3 (20)	4 (10.5)	8 (14.3)	4 (12.5)	49 (19.1)	18 (18.9)	29 (18.8)	47 (18.9)
축산	64 (55.2)	4 (26.7)	12 (31.6)	20 (35.7)	11 (34.4)	111 (43.2)	55 (57.9)	57 (37)	112 (45)
합 계	118 (100)	16 (100)	39 (100)	61 (100)	33 (100)	267 (100)	95 (100)	159 (100)	254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다음으로, 예비 취농자들의 취농시 희망하는 영농작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표 4-13>, 채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축산, 일반밭작물, 과수 등이 많았지만, 특용작물, 화훼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리고 취농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일반밭작물, 채소, 과수 등이 많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축산, 화훼 등이 많았다. 취농 형태에 따라서는 경영승계자들은 상대적으로 축산이 많았고, 신규창업자들은 논벼, 일반밭작물, 채소 등이 많았다.

3.2. 취농 의향 및 취농 예정 시기

예비 취농자들의 취농 의향은 <표 4-14>와 같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취농 의향이 높고, 취농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보다는 신규 창업자일수록 취농 의향이 더 높았다.

표 4-14. 예비 취농자의 취농 의향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체	취농형태		전체
	~20	21~30	31~40	41~50	51~		경영승계	신규창업	
매우 적음	7 (5.9)	1 (6.3)	0 (0)	0 (0)	1 (3.1)	9 (3.4)	3 (3.2)	4 (2.5)	7 (2.8)
적음	16 (13.4)	1 (6.3)	0 (0)	1 (1.7)	1 (3.1)	19 (7.2)	6 (6.3)	11 (6.9)	17 (6.7)
보통	51 (42.9)	2 (12.5)	7 (18.4)	8 (13.8)	5 (15.6)	73 (27.8)	31 (32.6)	42 (26.4)	73 (28.7)
많음	36 (30.3)	8 (50.0)	21 (55.3)	31 (53.4)	17 (53.1)	113 (43.0)	38 (40.0)	71 (44.7)	109 (42.9)
매우 많음	9 (7.6)	4 (25.0)	10 (26.3)	18 (31.0)	8 (25.0)	49 (18.6)	17 (17.9)	31 (19.5)	48 (18.9)
합 계	119 (100)	16 (100)	38 (100)	58 (100)	32 (100)	263 (100)	95 (100)	159 (100)	254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한편, 예비 취농자들의 취농 예정 시기는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년 이내보다는 3년 이후가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예비 취농자들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까운 시기에 취농을 예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취농을 ‘먼 장래의 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거나 다른 직업의 연고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4-15. 예비 취농자의 취농 예정 시기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형태		전 체
	~20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1~2년 이내	61 (51.7)	4 (25.0)	7 (18.4)	5 (8.9)	3 (9.4)	80 (30.8)	26 (28.0)	49 (30.8)	75 (29.8)
3년 이내	17 (14.4)	2 (12.5)	3 (7.9)	8 (14.3)	7 (21.9)	37 (14.2)	17 (18.3)	20 (12.6)	37 (14.7)
3년 이후	24 (20.3)	2 (12.5)	10 (26.3)	19 (33.9)	11 (34.4)	66 (25.4)	21 (22.6)	45 (28.3)	66 (26.2)
미정	16 (13.6)	8 (50.0)	18 (47.4)	24 (42.9)	11 (34.4)	77 (29.6)	29 (31.2)	45 (28.3)	74 (29.4)
합 계	118 (100)	16 (100)	38 (100)	56 (100)	32 (100)	260 (100)	93 (100)	159 (100)	252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3.3. 취농 준비

예비 취농자들의 취농 준비와 관련한 정신 무장, 자금과 토지, 영농 지식과 기술, 경영기법, 주변 사람들의 지지, 현지 주민과의 관계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표 4-16>부터 <표 4-21>까지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비 취농자들은 상대적으로 정신 무장은 잘 준비되어 있지만, 자금과 토지, 영농지식과 기술, 경영기법, 주변사람들의 지지 등은 미흡하였으며, 특히 영농기술이나 경영기법에 대해서는

스스로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 편이었다. 따라서 영농기술 교육이나 자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신 무장의 경우 예비 취농자들은 대체로 잘 준비되어 있지만, 연령에 따라서 20세 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잘 준비되어 있고, 20세 이하는 다소 미흡하였다. 그리고 취농 형태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예비 취농자들의 자금과 토지와 같은 영농기반에 대한 준비는 전반적으로 미흡하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이 30대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되어 있었다. 취농형태별로는 신규 창업자보다는 경영 승계자가 자금과 토지의 준비정도가 상대적으로 잘되어 있었다.

예비 취농자들은 영농지식과 기술에 대한 준비 수준이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준비가 잘되어 있었고, 취농 형태별로는 상대적으로 경영승계자가 신규창업자보다 준비가 잘되어 있었다. 경영기법의 준비도 역시 대체로 미흡하였다. 연령대별로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준비정도가 미흡하였다. 취농 형태별로는 신규 창업자가 경영 승계자보다 상대적으로 준비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 취농자들은 주변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준비 수준이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준비 정도가 미흡하였고, 취농 형태별로는 신규 창업자가 경영 승계자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정도가 미흡하였다.

취농 준비의 내용 중에서도 현지 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준비도 대체로 미흡하였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준비정도가 미흡하였다. 취농 형태별로는 신규 창업자가 경영 승계자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예비 취농자의 취농 준비 수준: 정신 무장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 형태		전 체
	~20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매우 미흡	13 (10.9)	1 (6.7)	2 (5.3)	0 (0)	1 (3.3)	17 (6.6)	4 (4.4)	12 (7.5)	16 (6.4)
미흡	23 (19.3)	4 (26.7)	4 (10.5)	2 (3.6)	1 (3.3)	34 (13.2)	12 (13.2)	19 (11.9)	31 (12.4)
보통	60 (50.4)	3 (20.0)	8 (21.1)	23 (41.1)	12 (40.0)	106 (41.1)	38 (41.8)	63 (39.6)	101 (40.4)
잘 준비	14 (11.8)	7 (46.7)	23 (60.5)	18 (32.1)	13 (43.3)	75 (29.1)	27 (29.7)	49 (30.8)	76 (30.4)
매우 잘 준비	9 (7.6)	0 (0)	1 (2.6)	13 (23.2)	3 (10.0)	26 (10.1)	10 (11.0)	16 (10.1)	26 (10.4)
합 계	119 (100)	15 (100)	38 (100)	56 (100)	30 (100)	258 (100)	91 (100)	159 (100)	250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표 4-17. 예비 취농자의 취농 준비 수준: 정착기반(자금/토지)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 형태		전 체
	~20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매우 미흡	25 (21.0)	4 (26.7)	11 (28.9)	4 (7.0)	3 (9.4)	47 (18.0)	12 (12.8)	32 (20.1)	44 (17.4)
미흡	40 (33.6)	3 (20.0)	9 (23.7)	10 (17.5)	6 (18.8)	68 (26.1)	25 (26.6)	41 (25.8)	66 (26.1)
보통	32 (26.9)	5 (33.3)	17 (44.7)	28 (49.1)	11 (34.4)	93 (35.6)	32 (34.0)	57 (35.8)	89 (35.2)
잘 준비	13 (10.9)	3 (20.0)	1 (2.6)	10 (17.5)	9 (28.1)	36 (13.8)	17 (18.1)	20 (12.6)	37 (14.6)
매우 잘 준비	9 (7.6)	0 (0)	0 (0)	5 (8.8)	3 (9.4)	17 (6.5)	8 (8.5)	9 (5.7)	17 (6.7)
합 계	119 (100)	15 (100)	38 (100)	57 (100)	32 (100)	261 (100)	94 (100)	159 (100)	253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표 4-18. 예비 취농자의 취농 준비 수준: 영농지식과 기술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형태		전 체
	~20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매우 미흡	13 (11.0)	3 (20.0)	16 (43.2)	18 (31.0)	14 (43.8)	64 (24.6)	15 (15.8)	45 (28.7)	60 (23.8)
미흡	25 (21.2)	7 (46.7)	14 (37.8)	23 (39.7)	10 (31.3)	79 (30.4)	24 (25.3)	53 (33.8)	77 (30.6)
보통	57 (48.3)	3 (20.0)	5 (13.5)	11 (19.0)	5 (15.6)	81 (31.2)	35 (36.8)	44 (28.0)	79 (31.3)
잘 준비	19 (16.1)	2 (13.3)	2 (5.4)	3 (5.2)	3 (9.4)	29 (11.2)	17 (17.9)	12 (7.6)	29 (11.5)
매우 잘 준비	4 (3.4)	0 (0)	0 (0)	3 (5.2)	0 (0)	7 (2.7)	4 (4.2)	3 (1.9)	7 (2.8)
합 계	118 (100)	15 (100)	37 (100)	58 (100)	32 (100)	260 (100)	95 (100)	157 (100)	252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표 4-19. 예비 취농자의 취농 준비 수준: 경영기법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형태		전 체
	~20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매우 미흡	20 (16.8)	4 (26.7)	17 (44.7)	20 (35.1)	15 (46.9)	76 (29.1)	17 (18.1)	56 (35.2)	73 (28.9)
미흡	37 (31.1)	5 (33.3)	14 (36.8)	23 (40.4)	11 (34.4)	90 (34.5)	32 (34.0)	54 (34.0)	86 (34.0)
보통	40 (33.6)	4 (26.7)	6 (15.8)	7 (12.3)	4 (12.5)	61 (23.4)	26 (27.7)	34 (21.4)	60 (23.7)
잘 준비	15 (12.6)	2 (13.3)	0 (0)	4 (7.0)	2 (6.3)	23 (8.8)	13 (13.8)	10 (6.3)	23 (9.1)
매우 잘 준비	7 (5.9)	0 (0)	1 (2.6)	3 (5.3)	0 (0)	11 (4.2)	6 (6.4)	5 (3.1)	11 (4.3)
합 계	119 (100)	15 (100)	38 (100)	57 (100)	32 (100)	261 (100)	94 (100)	159 (100)	253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표 4-20. 예비 취농자의 취농 준비 수준: 주변지지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 형태		전 체
	~20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매우 미흡	16 (13.6)	2 (14.3)	6 (15.8)	6 (10.7)	3 (9.4)	33 (12.8)	8 (8.5)	24 (15.4)	32 (12.8)
미흡	19 (16.1)	6 (42.9)	14 (36.8)	13 (23.2)	11 (34.4)	63 (24.4)	16 (17.0)	43 (27.6)	59 (23.6)
보통	48 (40.7)	2 (14.3)	12 (31.6)	24 (42.9)	13 (40.6)	99 (38.4)	36 (38.3)	59 (37.8)	95 (38.0)
잘 준비	23 (19.5)	2 (14.3)	6 (15.8)	10 (17.9)	5 (15.6)	46 (17.8)	24 (25.5)	23 (14.7)	47 (18.8)
매우 잘 준비	12 (10.2)	2 (14.3)	0 (0)	3 (5.4)	0 (0)	17 (6.6)	10 (10.6)	7 (4.5)	17 (6.8)
합 계	118 (100)	14 (100)	38 (100)	56 (100)	32 (100)	258 (100)	94 (100)	156 (100)	250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표 4-21. 예비 취농자의 취농 준비 수준: 주민과의 관계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 형태		전 체
	~20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매우 미흡	21 (17.6)	1 (7.1)	8 (21.1)	12 (21.1)	5 (15.6)	47 (18.1)	8 (8.5)	36 (22.8)	44 (17.5)
미흡	24 (20.2)	3 (21.4)	16 (42.1)	21 (36.8)	13 (40.6)	77 (29.6)	24 (25.5)	48 (30.4)	72 (28.6)
보통	52 (43.7)	5 (35.7)	12 (31.6)	15 (26.3)	10 (31.3)	94 (36.2)	35 (37.2)	59 (37.3)	94 (37.3)
잘 준비	15 (12.6)	4 (28.6)	2 (5.3)	6 (10.5)	2 (6.3)	29 (11.2)	16 (17.0)	13 (8.2)	29 (11.5)
매우 잘 준비	7 (5.9)	1 (7.1)	0 (0)	3 (5.3)	2 (6.3)	13 (5.0)	11 (11.7)	2 (1.3)	13 (5.2)
합 계	119 (100)	14 (100)	38 (100)	57 (100)	32 (100)	260 (100)	94 (100)	158 (100)	252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4. 신규 취농자의 영농 실태

신규 취농자의 영농 실태는 여주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취농하였거나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교육을 받은 취농자들을 대상으로 영농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기로 한다.

4.1. 취농 상황

먼저, 신규 취농자의 연령대별 취농 형태를 집계한 결과를 <표 4-22>에서 보면, 신규 취농자 중에는 예비 취농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 승계자보다 신규 창업자가 많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규 창업자가 많았다.¹⁶

표 4-22. 신규 취농자의 연령대별 취농 형태

단위: 명, (%)

구 분	연령대				전 체
	21~30세	31~40세	41~50세	51세 이상	
경영 승계	27 (84.4)	8 (27.6)	2 (6.3)	0 (0)	37 (35.6)
신규 창업	5 (15.6)	21 (72.4)	30 (93.8)	11 (100.0)	67 (64.4)
합 계	32 (100)	29 (100)	32 (100)	11 (100)	104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¹⁶ 나승일 등(2004)의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대상 조사 결과에 의하면 창업농은 28.4%, 승계농은 71.6%였다.

표 4-23. 신규 취농자의 취농 장소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 형태		전 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비 연고지	5 (15.6)	21 (70.0)	29 (87.9)	7 (63.6)	62 (58.5)	3 (8.1)	57 (83.8)	60 (57.1)
연고지	27 (84.4)	9 (30.0)	4 (12.1)	4 (36.4)	44 (41.5)	34 (91.9)	11 (16.2)	45 (42.9)
합 계	32 (100)	30 (100)	33 (100)	11 (100)	106 (100)	37 (100)	68 (100)	105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한편, 신규 취농자들이 취농하는 장소는 대체로 비연고지가 많았으며<표 4-23>, 연령대별로는 20대는 연고지가 많고 30대 이상은 비연고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취농형태별로는 경영승계자는 연고지, 신규창업자는 비연고지로의 취농이 많았다. 농촌사회의 인적 관계가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취농자가 비연고지에 정착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신규 취농자들의 현재 재배(사육)하고 있는 영농작목을 조사한 결과를 <표 4-24>에 집계하였는데, 일반밭작물, 논벼 등이 많은 반면, 화훼는 거의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일반밭작물, 채소 등이 많았다. 취농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는 논벼, 축산이 많은 반면, 신규 창업자는 일반밭작물이 많았다.¹⁷⁾

¹⁷⁾ 나승일 등(2004)의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대상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식량작물이 56.7%, 채소가 59.3%, 축산이 31.3% 순이었다. 졸업생들의 영농작목은 재학시절 전공보다는 부모님의 영농작목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축산의 경우 일치도가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용작물들의 경우는 일치도가 낮았다.

표 4-24. 신규 취농자의 영농 작목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 형태		전 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일반 밭작물	9 (28.1)	20 (66.7)	24 (72.7)	10 (90.9)	63 (59.4)	12 (32.4)	49 (72.1)	61 (58.1)
논벼	17 (53.1)	18 (60)	18 (54.5)	4 (36.4)	57 (53.8)	24 (64.9)	33 (48.5)	57 (54.3)
채소	8 (25)	9 (30)	11 (33.3)	5 (45.5)	33 (31.1)	9 (24.3)	23 (33.8)	32 (30.5)
축산	14 (43.8)	5 (16.7)	4 (12.1)	4 (36.4)	27 (25.5)	15 (40.5)	12 (17.6)	27 (25.7)
과수	8 (25)	6 (20)	8 (24.2)	3 (27.3)	25 (23.6)	11 (29.7)	13 (19.1)	24 (22.9)
특용작물	8 (25)	5 (16.7)	3 (9.1)	3 (27.3)	19 (17.9)	11 (29.7)	9 (13.2)	20 (19)
화훼	0 (0)	1 (3.3)	1 (3)	1 (9.1)	3 (2.8)	0 (0)	3 (4.4)	3 (2.9)
합 계	32 (100)	30 (100)	33 (100)	11 (100)	106 (100)	37 (100)	68 (100)	105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4.2. 투자자금 규모 및 조달 방법

신규 취농자들의 영농초기 투자한 자금을 조사한 결과는 <표 4-25>와 같은데, 응답자의 과반수가 총액으로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었다. 세부적인 투자 내역을 보면, 주택에 대한 투자는 과반수가 1000만원 이하였으며, 농장에 대한 투자는 과반수가 3천만원 이하였다. 그리고 초기 투자한 자본은 주택보다는 농장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체 투자액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농장보다는 주택에 대한 투자가 많았다. 취농 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

가 농장 관련 투자가 많은 반면, 신규창업자는 상대적으로 주택 투자에 치중하는 경향이다.

표 4-25. 신규 취농자의 총 초기투자자금 상황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형태		전 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1000만원 이하	2 (15.4)	8 (33.3)	9 (30.0)	1 (9.1)	20 (25.6)	1 (5.6)	18 (31.0)	19 (25.0)
1001~3000만원	2 (15.4)	7 (29.2)	8 (26.7)	2 (18.2)	19 (24.4)	5 (27.8)	13 (22.4)	18 (23.7)
3001~5000만원	4 (30.8)	3 (12.5)	2 (6.7)	2 (18.2)	11 (14.1)	6 (33.3)	5 (8.6)	11 (14.5)
5001~1억원	4 (30.8)	5 (20.8)	4 (13.3)	1 (9.1)	14 (17.9)	5 (27.8)	9 (15.5)	14 (18.4)
1억원 이상	1 (7.7)	1 (4.2)	7 (23.3)	5 (45.5)	14 (17.9)	1 (5.6)	13 (22.4)	14 (18.4)
합 계	13 (100)	24 (100)	30 (100)	11 (100)	78 (100)	18 (100)	58 (100)	76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표 4-26. 신규 취농자의 주택관련 초기투자자금 상황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형태		전 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1000만원 이하	9 (69.2)	18 (75.0)	17 (56.7)	4 (36.4)	48 (61.5)	13 (72.2)	33 (56.9)	46 (60.5)
1001~3000만원	3 (23.1)	4 (16.7)	5 (16.7)	2 (18.2)	14 (17.9)	4 (22.2)	10 (17.2)	14 (18.4)
3001~5000만원	0 (0)	0 (0)	5 (16.7)	1 (9.1)	6 (7.7)	0 (0)	6 (10.3)	6 (7.9)
5001만원 이상	1 (7.7)	2 (8.3)	3 (10.0)	4 (36.4)	10 (12.8)	1 (5.6)	9 (15.5)	10 (13.2)
합 계	13 (100)	24 (100)	30 (100)	11 (100)	78 (100)	18 (100)	58 (100)	76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그리고 신규 취농자들이 영농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방식을 조사한 결과<표 4-28>, 전체적으로 자기자본에 의한 자금조달의 경우가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는 대출, 사채 등으로 자금조달하는 경우가 많으나, 30대 이상의 경우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

표 4-27. 신규 취농자의 농장관련 초기투자자금 상황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 농 형 태		전 체
	21~30	31~40	41~50	51~		경 영 승 계	신 규 창 업	
1000만원 이하	2 (15.4)	12 (48.0)	14 (46.7)	2 (18.2)	30 (38.0)	3 (16.7)	26 (44.1)	29 (37.7)
1001 ~3000만원	4 (30.8)	6 (24.0)	5 (16.7)	4 (36.4)	19 (24.1)	6 (33.3)	12 (20.3)	18 (23.4)
3001 ~5000만원	2 (15.4)	4 (16.0)	3 (10.0)	2 (18.2)	11 (13.9)	4 (22.2)	7 (11.9)	11 (14.3)
5001만원 이상	5 (38.5)	3 (12.0)	8 (26.7)	3 (27.3)	19 (24.1)	5 (27.8)	14 (23.7)	19 (24.7)
합 계	13 (100)	25 (100)	30 (100)	11 (100)	79 (100)	18 (100)	59 (100)	77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표 4-28. 신규 취농자의 자금조달 방법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 농 형 태		전 체
	21~30	31~40	41~50	51~		경 영 승 계	신 규 창 업	
자기 자본	5 (25.0)	24 (85.7)	31 (96.9)	10 (90.9)	70 (76.9)	10 (40.0)	58 (89.2)	68 (75.6)
대출	12 (60.0)	4 (14.3)	0 (0)	0 (0)	16 (17.6)	11 (44.0)	6 (9.2)	17 (18.9)
사채	2 (10.0)	0 (0)	0 (0)	0 (0)	2 (2.2)	2 (8.0)	0 (0)	2 (2.2)
합 계	20 (100)	28 (100)	32 (100)	11 (100)	91 (100)	25 (100)	65 (100)	90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다. 취농 형태별로는 신규 창업자 대부분은 자기자본에 의해 자금조달을 하였으나, 경영 승계자는 과반수 이상이 대출이나 사채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영농규모 및 농산물 판매액

신규 취농자들의 영농 실태와 관련하여 영농규모와 농산물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를 <표 4-29>와 <표 4-30>에서 정리하였다.

먼저, 신규 취농자들의 경영규모는 <표 4-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반수가 3000평 이하의 영세한 경영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영세농이기 때문에 농촌에 정착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경영규모가 큰 경향이며, 취농형태별로는 경영승계자일수록 경영규모가 큰 편이다.

또한 농축산물 판매규모를 조사한 결과는 <표 4-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 취농자의 과반수가 2천만원 이하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는 3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반수를 넘었지만, 30대 이상의 경우 80% 이상이 3천만원 이하였다. 취농형태별로는 경영승계자는 과반수가 3천만원 이상이었지만, 신규창업자의 경우는 대다수(90%)가 3천만원 이하로 나타났다.¹⁸

¹⁸ 나승일 등(2004)의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대상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농기반이 3,000평 이하가 38.5%, 3,000~6,000평이 30.8%였다. 한편 영농매출액은 반수(49.2%)가 3,000만원 이상이었다. 취농형태별로는 창업농 대부분(72.3%)이 3,000만원 이하인 반면, 승계농의 경우 60% 이상이 3,000만원 이상이었다.

표 4-29. 신규 취농자의 경영규모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형태		전 체
	21~30	31~40	41~50	51~		경 영 승 계	신 규 창 업	
1000평 이하	0 (0)	7 (24.1)	8 (26.7)	1 (9.1)	16 (17.0)	0 (0)	14 (22.6)	14 (15.2)
1001~3000평	4 (16.7)	11 (37.9)	10 (33.3)	8 (72.7)	33 (35.1)	2 (6.7)	31 (50.0)	33 (35.9)
3001~5000평	5 (20.8)	2 (6.9)	4 (13.3)	1 (9.1)	12 (12.8)	6 (20.0)	6 (9.7)	12 (13.0)
5001~10000평	6 (25.0)	8 (27.6)	4 (13.3)	1 (9.1)	19 (20.2)	11 (36.7)	8 (12.9)	19 (20.7)
1만평 이상	9 (37.5)	1 (3.4)	4 (13.3)	0 (0)	14 (14.9)	11 (36.7)	3 (4.8)	14 (15.2)
합 계	24 (100)	29 (100)	30 (100)	11 (100)	94 (100)	30 (100)	62 (100)	92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표 4-30. 신규 취농자의 농산물 판매금액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형태		전 체
	21~30	31~40	41~50	51~		경 영 승 계	신 규 창 업	
5백만원 이하	4 (14.3)	8 (32.0)	13 (39.4)	6 (66.7)	31 (32.6)	4 (12.1)	25 (41.0)	29 (30.9)
500~1000만원	0 (0)	7 (28.0)	5 (15.2)	1 (11.1)	13 (13.7)	0 (0)	13 (21.3)	13 (13.8)
1000~2000만원	2 (7.1)	3 (12.0)	7 (21.2)	1 (11.1)	13 (13.7)	4 (12.1)	9 (14.8)	13 (13.8)
2000~3000만원	4 (14.3)	4 (16.0)	3 (9.1)	1 (11.1)	12 (12.6)	5 (15.2)	8 (13.1)	13 (13.8)
3000~5000만원	9 (32.1)	2 (8.0)	2 (6.1)	0 (0)	13 (13.7)	10 (30.3)	3 (4.9)	13 (13.8)
5000~1억원	5 (17.9)	1 (4.0)	1 (3.0)	0 (0)	7 (7.4)	5 (15.2)	2 (3.3)	7 (7.4)
1억원 이상	4 (14.3)	0 (0)	2 (6.1)	0 (0)	6 (6.3)	5 (15.2)	1 (1.6)	6 (6.4)
합 계	28 (100)	25 (100)	33 (100)	9 (100)	95 (100)	33 (100)	61 (100)	94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4.4. 영농목표 달성 정도

신규 취농자들의 영농 목표 달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31>과 같은데, 응답자의 38%가 영농 초기 설정한 영농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취농형태별로는 경영 승계보다 신규 창업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미달성 사례가 많았다.¹⁹ 이것은 신규 취농하여 영농에 정착하기까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표 4-31. 신규 취농자의 영농목표 달성 정도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체	취농형태		전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매우 미달성	3 (9.4)	5 (16.7)	3 (9.7)	1 (9.1)	12 (11.5)	1 (2.7)	10 (14.9)	11 (10.6)
미달성	7 (21.9)	8 (26.7)	10 (32.3)	4 (36.4)	29 (27.9)	8 (21.6)	21 (31.3)	29 (27.9)
보통	18 (56.3)	10 (33.3)	9 (29.0)	5 (45.5)	42 (40.4)	20 (54.1)	23 (34.3)	43 (41.3)
달성	3 (9.4)	4 (13.3)	6 (19.4)	1 (9.1)	14 (13.5)	6 (16.2)	8 (11.9)	14 (13.5)
초과 달성	1 (3.1)	3 (10.0)	3 (9.7)	0 (0)	7 (6.7)	2 (5.4)	5 (7.5)	7 (6.7)
합 계	32 (100)	30 (100)	31 (100)	11 (100)	104 (100)	37 (100)	67 (100)	104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신규취농자들이 초기 설정한 영농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은 <표 4-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 부족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¹⁹ 나승일 등(2004)의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대상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영농성과에 대하여 다소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만족 31.3%, 불만족 29.3%). 취농형태별로는 승계농이 창업농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다음은 자금 문제, 판로 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 등이었다. 연령대별로 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금 문제, 연령이 높을수록 판로 문제나 노동력 부족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취농 형태별로 보면, 신규 창업자는 기술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경영 승계자는 자금과 기술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취농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표 4-32. 신규 취농자들이 생각하는 초기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형태		전 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기술 부족	11 (36.7)	10 (35.7)	14 (46.7)	3 (33.3)	38 (39.2)	12 (35.3)	25 (40.3)	37 (38.5)
자금 문제	10 (33.3)	11 (39.3)	6 (20)	0 (0)	27 (27.8)	13 (38.2)	15 (24.2)	28 (29.2)
판로 문제	4 (13.3)	6 (21.4)	9 (30)	3 (33.3)	22 (22.7)	5 (14.7)	17 (27.4)	22 (22.9)
노동력 문제	5 (16.7)	4 (14.3)	7 (23.3)	3 (33.3)	19 (19.6)	4 (11.8)	14 (22.6)	18 (18.8)
합 계	30 (100)	28 (100)	30 (100)	9 (100)	97 (100)	34 (100)	62 (100)	96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4.5 현재 경영 수준

신규 취농자들의 현재의 경영 수준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 4-33>부터 <표 4-37>까지 정리하였다.

이 문항들은 신규 취농자가 이웃농가와 비교하여 자신의 영농계획 수립, 농자재 구입, 재배(사육)관리 기술, 시장 판매, 경영분석 진단 등의 수준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영농 계획, 재배(사육)관리 기술, 경영분석 진단 등은 자신의 능력을 대체로 높게 평가하지만, 농자재 구입과 시장판매 등은 대체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농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취농 형태별로는 신규 창업자가 경영 승계자보다 영농계획 수준이 낮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농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신규 취농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능력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는 경향이며, 취농 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보다 신규 창업자의 경우가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재배사육 기술에 대해서는 신규 취농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웃농가 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다. 취농 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가 신규 창업자보다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시장 판매에 대해서는 신규 취농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웃농가보다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았고, 취농 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보다 신규 창업자가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경영분석 진단에 대해서는 이웃농가와 비교하여 보통 이상이었지만, 신규 취농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나 취농 형태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경영 승계자보다 신규 창업자가 영농계획 수립이나 영농기술 면에 있어 어려움이 많으며, 따라서 이들의 영농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이나 지도가 중요한 과제이다.

²⁰ 나승일 등(2004)의 연구에서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이 취농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졸업생들의 능력을 평가한 결과, 영농자세, 영농기술, 국제적 안목, 리더십 등에 있어 다른 농민들 보다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영농 규모나 매출액 면에서도 지역주민들은 일반 농민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표 4-33. 신규 취농자들의 경영 수준: 영농계획 수립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체	취농형태		전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매우 낮음	0 (0)	1 (3.3)	4 (12.5)	0 (0)	5 (4.9)	0 (0)	5 (7.7)	5 (5.0)
낮은 편	3 (9.7)	3 (10.0)	5 (15.6)	2 (20.0)	13 (12.6)	2 (5.6)	9 (13.8)	11 (10.9)
보통	17 (54.8)	12 (40.0)	9 (28.1)	4 (40.0)	42 (40.8)	20 (55.6)	22 (33.8)	42 (41.6)
높은 편	10 (32.3)	12 (40.0)	11 (34.4)	4 (40.0)	37 (35.9)	13 (36.1)	24 (36.9)	37 (36.6)
매우 높음	1 (3.2)	2 (6.7)	3 (9.4)	0 (0)	6 (5.8)	1 (2.8)	5 (7.7)	6 (5.9)
합 계	31 (100)	30 (100)	32 (100)	10 (100)	103 (100)	36 (100)	65 (100)	101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표 4-34. 신규 취농자들의 경영 수준: 농자재 구입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체	취농형태		전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매우 낮음	1 (3.2)	5 (17.2)	8 (25.0)	3 (30.0)	17 (16.7)	0 (0)	16 (24.6)	16 (16.0)
낮은 편	2 (6.5)	4 (13.8)	6 (18.8)	1 (10.0)	13 (12.7)	4 (11.4)	9 (13.8)	13 (13.0)
보통	19 (61.3)	13 (44.8)	11 (34.4)	5 (50.0)	48 (47.1)	19 (54.3)	28 (43.1)	47 (47.0)
높은 편	9 (29.0)	7 (24.1)	3 (9.4)	1 (10.0)	20 (19.6)	11 (31.4)	9 (13.8)	20 (20.0)
매우 높음	0 (0)	0 (0)	4 (12.5)	0 (0)	4 (3.9)	1 (2.9)	3 (4.6)	4 (4.0)
전체	31 (100)	29 (100)	32 (100)	10 (100)	102 (100)	35 (100)	65 (100)	100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표 4-35. 신규 취농자들의 경영 수준: 재배(사육관리) 기술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형태		전 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매우 낮음	0 (0)	5 (17.2)	3 (9.4)	2 (18.2)	10 (9.8)	0 (0)	10 (15.2)	10 (10.0)
낮은 편	1 (3.3)	4 (13.8)	9 (28.1)	2 (18.2)	16 (15.7)	0 (0)	14 (21.2)	14 (14.0)
보통	17 (56.7)	13 (44.8)	10 (31.3)	5 (45.5)	45 (44.1)	19 (55.9)	26 (39.4)	45 (45.0)
높은 편	10 (33.3)	5 (17.2)	6 (18.8)	2 (18.2)	23 (22.5)	13 (38.2)	10 (15.2)	23 (23.0)
매우 높음	2 (6.7)	2 (6.9)	4 (12.5)	0 (0)	8 (7.8)	2 (5.9)	6 (9.1)	8 (8.0)
합 계	30 (100)	29 (100)	32 (100)	11 (100)	102 (100)	34 (100)	66 (100)	100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표 4-36. 신규 취농자들의 경영 수준: 시장 판매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형태		전 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매우 낮음	1 (3.3)	3 (10.3)	4 (12.5)	2 (20.0)	10 (9.9)	2 (5.9)	8 (12.3)	10 (10.1)
낮은 편	5 (16.7)	7 (24.1)	10 (31.3)	4 (40.0)	26 (25.7)	5 (14.7)	20 (30.8)	25 (25.3)
보통	14 (46.7)	10 (34.5)	4 (12.5)	2 (20.0)	30 (29.7)	15 (44.1)	15 (23.1)	30 (30.3)
높은 편	7 (23.3)	3 (10.3)	11 (34.4)	2 (20.0)	23 (22.8)	7 (20.6)	15 (23.1)	22 (22.2)
매우 높음	3 (10.0)	6 (20.7)	3 (9.4)	0 (0)	12 (11.9)	5 (14.7)	7 (10.8)	12 (12.1)
합 계	30 (100)	29 (100)	32 (100)	10 (100)	101 (100)	34 (100)	65 (100)	99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표 4-37. 신규 취농자들의 경영 수준: 경영분석 진단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 형태		전 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매우 낮음	0 (0)	2 (7.1)	4 (12.9)	2 (20.0)	8 (8.1)	0 (0)	8 (12.7)	8 (8.2)
낮은 편	7 (23.3)	5 (17.9)	3 (9.7)	1 (10.0)	16 (16.2)	8 (22.9)	7 (11.1)	15 (15.3)
보통	16 (53.3)	9 (32.1)	12 (38.7)	5 (50.0)	42 (42.4)	15 (42.9)	27 (42.9)	42 (42.9)
높은 편	6 (20.0)	11 (39.3)	9 (29.0)	2 (20.0)	28 (28.3)	11 (31.4)	17 (27.0)	28 (28.6)
매우 높음	1 (3.3)	1 (3.6)	3 (9.7)	0 (0)	5 (5.1)	1 (2.9)	4 (6.3)	5 (5.1)
합 계	30 (100)	28 (100)	31 (100)	10 (100)	99 (100)	35 (100)	63 (100)	98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4.6. 주변 사람들의 지지

신규 취농자들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가족과 배우자<표 4-39>, 지역 주민<표 4-40>, 동료 농업인<표 4-40>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주변사람들 전반에 대해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고, 특히 가족 및 배우자의 지지가 높았다.

가족과 배우자의 지지는 연령대나 취농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많은 지지가 있었고, 신규 창업자가 경영 승계자보다 지역 주민의 지지를 더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료 농업인들로부터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신규 창업자가 경영 승계자에 비하여 동료 농업인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8. 신규 취농자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지지: 가족과 배우자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체	취농형태		전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매우 적음	3 (10.0)	4 (13.8)	1 (3.2)	1 (9.1)	9 (8.9)	1 (2.9)	8 (12.3)	9 (9.1)
적은 편	1 (3.3)	2 (6.9)	3 (9.7)	0 (0)	6 (5.9)	3 (8.8)	3 (4.6)	6 (6.1)
보통	8 (26.7)	8 (27.6)	9 (29.0)	4 (36.4)	29 (28.7)	12 (35.3)	16 (24.6)	28 (28.3)
많은 편	11 (36.7)	9 (31.0)	12 (38.7)	2 (18.2)	34 (33.7)	10 (29.4)	23 (35.4)	33 (33.3)
매우 많음	7 (23.3)	6 (20.7)	6 (19.4)	4 (36.4)	23 (22.8)	8 (23.5)	15 (23.1)	23 (23.2)
합 계	30 (100)	29 (100)	31 (100)	11 (100)	101 (100)	34 (100)	65 (100)	99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표 4-39. 신규 취농자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지지: 지역 주민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체	취농형태		전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매우 적음	2 (6.9)	3 (10.3)	3 (9.7)	1 (9.1)	9 (9.0)	2 (6.1)	7 (10.8)	9 (9.2)
적은 편	5 (17.2)	5 (17.2)	4 (12.9)	1 (9.1)	15 (15.0)	5 (15.2)	9 (13.8)	14 (14.3)
보통	15 (51.7)	11 (37.9)	15 (48.4)	2 (18.2)	43 (43.0)	18 (54.5)	25 (38.5)	43 (43.9)
많은 편	6 (20.7)	8 (27.6)	8 (25.8)	6 (54.5)	28 (28.0)	7 (21.2)	20 (30.8)	27 (27.6)
매우 많음	1 (3.4)	2 (6.9)	1 (3.2)	1 (9.1)	5 (5.0)	1 (3.0)	4 (6.2)	5 (5.1)
합 계	29 (100)	29 (100)	31 (100)	11 (100)	100 (100)	33 (100)	65 (100)	98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표 4-40. 신규 취농자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지지: 동료 농업인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형태		전 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매우 적음	0 (0)	4 (13.3)	2 (6.5)	0 (0)	6 (6.0)	1 (3.0)	4 (6.2)	5 (5.1)
적은 편	6 (21.4)	2 (6.7)	3 (9.7)	1 (9.1)	12 (12.0)	5 (15.2)	7 (10.8)	12 (12.2)
보통	14 (50.0)	11 (36.7)	11 (35.5)	4 (36.4)	40 (40.0)	18 (54.5)	22 (33.8)	40 (40.8)
많은 편	7 (25.0)	9 (30.0)	12 (38.7)	6 (54.5)	34 (34.0)	7 (21.2)	26 (40.0)	33 (33.7)
매우 많음	1 (3.6)	4 (13.3)	3 (9.7)	0 (0)	8 (8.0)	2 (6.1)	6 (9.2)	8 (8.2)
합 계	28 (100)	30 (100)	31 (100)	11 (100)	100 (100)	33 (100)	65 (100)	98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4.7. 정보 취득 방법

신규 취농자들의 영농관련 정보취득 경로를 조사한 결과<표 4-41>, 관련 책자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관련기관 방문은 가장 적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 관련책자 이외에 인터넷 검색, 관련기관 방문, 전문가 상담, 선도농가 상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보취득 경로가 한정되어 있었다. 취농 형태별로는 신규 창업자의 경우에 관련책자와 선도농가에 집중되어 있지만, 경영 승계자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정보취득 활동을 하고 있었다.²¹

²¹ 이근수(1993)가 영농후계자들의 신기술 도입처를 조사한 결과, 농촌지도소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방송이나 신문잡지, 이웃농가 순이었다. 김형용

표 4-41. 신규 취농자들의 정보취득 방법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 형태		전 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관련책자 찾기	4 (12.5)	12 (40.0)	21 (65.6)	5 (45.5)	42 (40.0)	8 (21.6)	32 (47.8)	40 (38.5)
인터넷 검색	9 (28.1)	4 (13.3)	2 (6.3)	1 (9.1)	16 (15.2)	9 (24.3)	7 (10.4)	16 (15.4)
교육/ 연수 참가	2 (6.3)	3 (10.0)	1 (3.1)	4 (36.4)	10 (9.5)	4 (10.8)	6 (9.0)	10 (9.6)
관련기관 방문	6 (18.8)	0 (0)	0 (0)	0 (0)	6 (5.7)	4 (10.8)	2 (3.0)	6 (5.8)
전문가와 상담	6 (18.8)	4 (13.3)	2 (6.3)	0 (0)	12 (11.4)	7 (18.9)	6 (9.0)	13 (12.5)
선도농가와 상담	5 (15.6)	7 (23.3)	6 (18.8)	1 (9.1)	19 (18.1)	5 (13.5)	14 (20.9)	19 (18.3)
합 계	32 (100)	30 (100)	32 (100)	11 (100)	105 (100)	37 (100)	67 (100)	104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4.8. 향후 경영 계획

신규 취농자들의 향후 영농계획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4-42>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대다수가 현상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을 가지

(1998)이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영농정보 입수경로를 조사한 결과, 친지(부모, 형제, 친척, 친우 등)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송이나 인터넷, 그다음은 각종 기관 및 단체의 영농교육이었다. 하지만 영농기술서적 등을 통한 정보취득 사례는 매우 적었다. 도시귀농자 정책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자금지원의 획기적 증대, 영농교육 및 상담의 충실 등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김성수 등(2004)이 도시 귀농자를 대상으로 영농지식과 기술을 주로 획득하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 농업기술센터, 주변농민, 귀농교육이 가장 많았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영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고, 취농 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가 신규 창업자보다 경영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표 4-42. 신규 취농자들의 향후 영농계획

단위: 명, (%)

구 분	연령(세)				전 체	취농 형태		전 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영농 포기	0 (0)	0 (0)	0 (0)	0 (0)	0 (0)	0 (0)	1 (1.5)	1 (1.0)
사업 변경	3 (9.4)	2 (6.7)	3 (9.4)	0 (0)	8 (7.6)	3 (8.1)	5 (7.4)	8 (7.6)
축소 경영	2 (6.3)	2 (6.7)	3 (9.4)	2 (18.2)	9 (8.6)	2 (5.4)	7 (10.3)	9 (8.6)
현상 유지	7 (21.9)	13 (43.3)	12 (37.5)	6 (54.5)	38 (36.2)	10 (27.0)	27 (39.7)	37 (35.2)
확대 경영	20 (62.5)	13 (43.3)	14 (43.8)	3 (27.3)	50 (47.6)	22 (59.5)	28 (41.2)	50 (47.6)
합 계	32 (100)	30 (100)	32 (100)	11 (100)	105 (100)	37 (100)	68 (100)	10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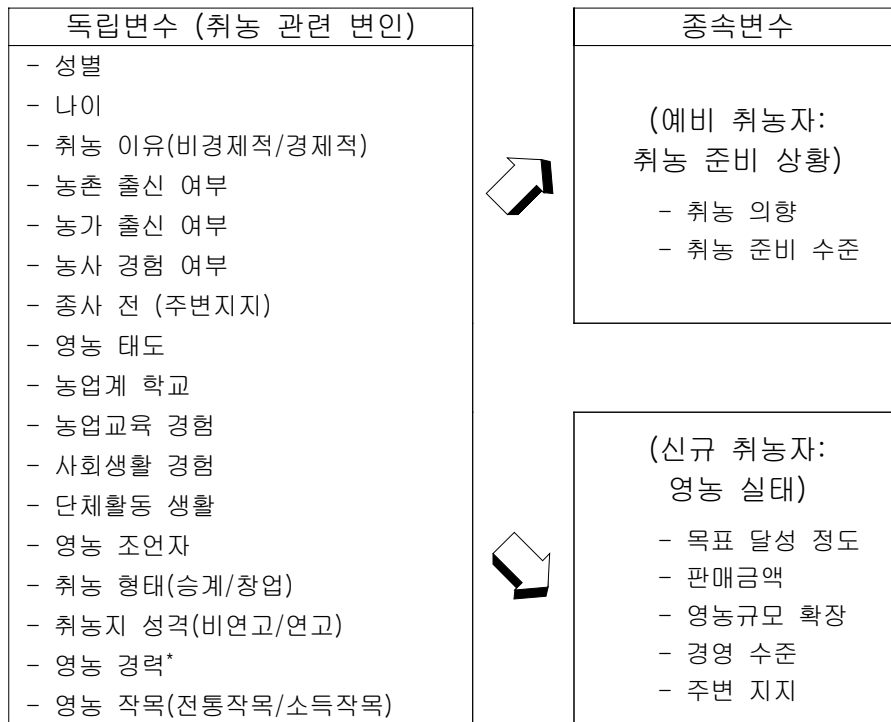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5. 신규 취농의 관련요인 분석

신규 취농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취농 예정자의 준비 상황 및 취농자의 영농 실태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상관관계분석이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것인데 반해, 정준상관분석은 다수의 종속변수와 다수의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 군으로는 취농 예정자의

그림 4-1. 취농 요인의 분석 틀



* 영농 경력은 신규취농자 분석에서만 사용됨.

성별, 나이, 입학 이유(비경제적 이유, 경제적 이유),²² 농촌 출신 여부, 농가 출신 여부, 농사 경험 여부, 주변지지 정도, 영농에 대한 태도,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 학교외 농업교육 경험, 농업관련 사회경험, 농업단체활동 여부, 영농조언자 유무, 취농 형태(승계, 창업), 취농지 특성

22 취농 이유 중에서 농촌생활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 퇴직후 여생을 위해, 사업실패/실직, 추구하는 가치, 내 능력상 적합 등은 비경제적 이유로, 미래 농업전망을 보고, 부모 영농승계, 도시의 저소득을 피해 등은 경제적 이유로 분류.

(연고지, 비연고지) 등의 영농관련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종속 변수로는 예비 취농자의 취농 준비 상황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취농 의향 정도, 취농 준비 수준²³ 등을 선정하였다.

신규 취농자에 대해서는 예비 취농자 분석에서 사용된 독립변인 외에 영농 경력, 작목(전통작목/소득작목)²⁴ 등을 추가한 영농관련 특성 요인군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영농 실태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영농목표 달성 정도, 농산물 판매금액, 영농규모 확장 계획, 경영 수준,²⁵ 주변지지²⁶ 등을 선택하여 두 요인군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5.1. 예비 취농자의 취농 관련 요인

예비 취농자의 영농관련 특성과 취농준비 실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2개의 정준상관이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제1 정준상관에 의하여 영농관련특성 요인이 취농준비 실태 요인을 35.4% 설명하고, 제2정준상관에 의해서는 10.6%를 설명하고 있다.

제1정준상관(0.74)을 통해 취농의향이 영농태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그밖에 나이, 농업계 학교교육 유무 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영농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취농의향

²³ 6개 영역(정신무장, 자금과 토지 등 정착기반, 재배(사육)기술, 경영기법, 주변사람지지, 농촌주민과의 관계)의 취농 준비 수준 합계.

²⁴ 설문조사에서 7개 영농작목으로 조사한 것을 논벼, 일반밭작물은 전통작목, 과수, 채소, 특용작목, 화훼, 축산 등은 소득작목으로 재분류.

²⁵ 5개 영역(영농계획수립, 농자재구입, 재배(사육)관리, 시장판매, 경영분석진단)에서의 이웃농민과의 비교한 자신의 경영수준 판단 합계.

²⁶ 3개 영역(가족 및 배우자, 농촌주민, 동료농민)에서의 지지에 대한 자신의 수준 판단 합계.

이 높았다. 제2정준상관(0.55)을 통해 취농 준비 수준이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즉,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취농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43. 취농 준비의 관련요인 분석결과 개요

	제1정준상관	제2정준상관
정준상관계수	0.74	0.55
Wilk's	0.317	0.699
Chi-SQ	235.8	73.5
DF	30	14
유의도	0.000	0.000

4-44. 취농 준비의 관련요인 부하량

요 인		표준화 정준변량계수		정준부하량		교차부하량	
		제1 정준상관	제2 정준상관	제1 정준상관	제2 정준상관	제1 정준상관	제2 정준상관
관련 특성	성별	0.20	0.20	0.11	0.45	0.08	0.25
	나이	-0.28	-0.33	-0.48	0.44	-0.36	0.24
	입학 이유	-0.05	-0.15	0.31	-0.38	0.23	-0.21
	농촌 출신	-0.11	-0.02	-0.25	-0.31	-0.19	-0.17
	농가 출신	-0.20	0.07	-0.39	-0.30	-0.29	-0.17
	농사 경험	0.04	-0.13	-0.14	-0.45	-0.10	-0.25
	주변 지지	-0.20	-0.30	-0.34	-0.52	-0.25	-0.28
	영농 태도	-0.58	0.18	-0.76	0.06	-0.56	0.03
	농업계 학교교육	0.43	-0.56	0.44	-0.70	0.33	-0.39
	학교외 농업교육	-0.10	-0.11	-0.07	-0.55	-0.05	-0.30
	사회 농업 경험	-0.06	-0.22	-0.23	-0.46	-0.17	-0.25
	농업단체 활동	-0.08	-0.17	-0.28	-0.24	-0.21	-0.13
	영농 조연자	-0.15	-0.16	-0.16	-0.50	-0.12	-0.27
	취농 형태	0.00	-0.01	-0.05	-0.36	-0.04	-0.20
취농 준비	취농지 특성	-0.02	0.23	0.09	0.54	0.07	0.29
	취농 의향	-0.87	0.64	-0.97	0.24	-0.72	0.13
	취농 준비 수준	-0.26	-1.05	-0.60	-0.80	-0.44	-0.44

a: Standardized Canonical Coefficient, b: Canonical Loading, c: Cross Loading

5.2. 신규 취농자의 취농 관련 요인

신규취농자의 영농관련 특성과 영농실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45>와 <표 4-46>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먼저, <표 4-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 취농 관련요인에 대해서는 1개의 정준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제1정준상관에 의하여 영농관련특성 요인이 영농실태 요인을 18.4%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표 4-46>과 같이 영농실태 요인군의 변인들 중에서도 농축산물 판매액 규모와 경영 수준이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밖에 나이, 영농 경력, 취농 이유, 농촌 출신 여부, 농가 출신 여부, 취농 형태, 취농지 특성, 영농 작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이 있고, 연령이 낮으며, 영농 경력이 오래되고, 취농을 건강이나 개인적인 가치 등의 이유보다는 영농 승계나 돈을 벌기 위해 취농하고, 농촌 출신자 또는 농가 출신자이며, 신규 창업보다는 경영 승계인 경우에 취농에 정착하고 있었다. 또한 연고지에 취농하고, 논벼나 일반밭작물보다는 축산, 과수, 채소, 특용, 화훼를 영농작목으로 택한 사람일수록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많고, 경영 수준이 높아 취농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5. 신규 취농 관련요인 분석결과 개요

	제1정준상관
정준상관계수	0.821
Wilk's	0.118
Chi-SQ	140.2
DF	85
유의도	0.000

4-46. 신규 취농의 관련요인 부하량

요 인		표준화 정준변량계수	정준부하량	교차부하량
관련 특성	성별	-0.13	-0.05	-0.04
	나이	-0.20	-0.55	-0.45
	영농 경력	0.57	0.53	0.44
	취농 이유	0.39	0.60	0.49
	농촌 출신	0.25	0.59	0.48
	농가 출신	-0.12	0.55	0.45
	농사 경험	0.18	0.35	0.29
	주변 지지	0.07	0.47	0.39
	영농 태도	-0.11	0.03	0.03
	농업계 학교교육	0.11	0.70	0.58
	학교외 농업교육 경험	-0.04	0.13	0.11
	사회 농업 경험	-0.36	0.35	0.29
	농업단체 활동	0.04	0.27	0.22
	영농 조인자	0.04	0.34	0.28
	취농 형태	-0.54	-0.62	-0.51
	취농지 특성	-0.51	0.52	0.43
	영농 작목	0.26	0.54	0.44
영농 실태	목표 달성	-0.14	0.11	0.09
	판매 금액	0.95	0.98	0.80
	영농규모 확대	0.14	0.22	0.18
	경영 수준	0.11	0.59	0.48
	주변 지지	-0.10	0.07	0.06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6. 신규 취농의 사례

앞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한 취농의 의향과 실태가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사례 조사는 2005년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한 사례 중에서 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농한 사람과 도시 생활을 경험한 후 귀농한 사람의 네 가지 형태를 선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여주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취농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B씨와 이천시 장록면 L씨, 그리고 귀농운동본부의 수료생으로 도시 생활을 정리한 후 귀농하여 정착하고 있는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Y씨와 괴산군 청천면 L씨의 사례에 대하여 취농 과정, 영농 실태, 향후 계획 및 정책 건의 등을 정리하기로 한다.

6.1. 승계형 취농: 여주시 점동면 B씨

6.1.1 취농 과정

올해 29세의 B씨는 경기도 여주에서 부친(54세)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2남 1녀의 장남으로 작년에 결혼을 하였는데, 현재는 여주 시내에 거주하면서 부친의 농사일을 돕는 정도이다. 1997년 여주농고에 입학하여 농기계를 전공하였고, 1999년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양돈경영을 전공하고, 2001년 졸업 후에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3년간 복무하였다.

그가 여주농고를 처음 진학한 것은 농업에 큰 뜻이 있었기보다는 성적이 낮아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고, 인근에 농업계 학교로 유명한 여주농고와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여주농업전문학교 재학시절에 마음이 잘 맞는 친구 4명과 양돈을 크게 해 보려고 계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친구들이 전라도, 경

상도, 경기도 등 서로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영농 정착의 장소를 한 곳으로 정하기가 힘들었고, 각자의 여러 가지 가정 사정상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양돈을 해볼 생각으로 양돈을 크게 하고 있는 전라도의 친구 집에서 졸업 후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배우기도 하였지만, 새로 투자해야 하는 각종 시설과 자재 관련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었다. 또한 부친이 여러 가지로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하고, 본인 대신에 주작목인 벼농사에 전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결국 양돈 창업의 꿈을 포기하였다.

6.1.2 영농 실태

부친은 전업농으로 쌀을 주작목으로 하면서 밭농사를 통해 고추, 고구마, 콩, 깨 등을 재배하고 있다. 경지규모는 논 1만 평과 밭 350평 정도이다. 작년까지는 주변에 쓰레기 매립지 1만 평을 임차하여 벼농사를 하였는데, 올해는 계약이 끝나 영농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작년까지는 2만 평에 벼를 재배하여 해볼만 했는데, 지금은 규모가 작아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쌀 가격은 정곡 80kg 1가마에 18만 원을 받고 있는데(2005년 9월 현재), 절반은 농협에 출하하고, 나머지 절반은 인근 정미소에 판매하였다. 쌀농사를 위해 건조기,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경운기 등의 농기계 및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농고 시절에 농기계 전공하면서 배운 기술로 모든 농기계는 본인이 조작하고 있다. 한편, 농사 외에도 산업기능요원 3년 복무를 마친 후에는 농외 소득을 위해 인근 요업공장에 취직하여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다.

6.1.3 향후 계획 및 정책 건의

지금도 부친의 농사일(특히 농기계 조작·운영)을 도와주고 있는 정

도이지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본격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계획은 없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아직 젊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농사일이 진행이 되고, 근본적으로 농업은 돈이 안되고,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농촌생활의 문화 혜택 부족이 영농 승계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부인이 여주 시내에 따로 집을 마련하여 살고 있으며, 그가 취농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그는 현재 요업공장에 다니면서 번 돈으로 시내에서 장사 일을 계획하고 있다.

6.2. 창업형 취농: 이천시 장록면 L씨

6.2.1 취농 과정

올해 21세의 L씨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시설채소 농사를 짓고 있으며, 2005년 2월에 여주농전을 졸업한 후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2남중 막내인 그는 순수 창업농으로 부친(용접기술공, 51세)과 모친(보험설계사, 54세) 모두 농업과 무관하며, 본인도 농업과 전혀 무관한 인천시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인천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 기르는 것이 좋아서 여주농고 축산과에 입학했고, 이어 여주농전 낙농경영과에 진학하였다. 평소 동물에 관심이 많은 그를 위해 중학교 때 입시지도 교사가 전국에 80개가 넘는 학교를 다 소개시켜 줄 정도로 열의를 보였고, 결국 여주농고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대학에서의 전공을 살려 축산을 하려고 했지만, 여주농전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시설과 자금 상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축산 분노 등으로 인한 민원 등의 문제를 감당할 자

신이 없어 전환하였다. 특히 농전 재학시절 친구의 고모부가 경영하는 시설온실에서 일하면서 채소와 관련하여 많이 배우게 되었으며, 그 배경으로 시설채소 쪽으로 작목을 전환하였다.

6.2.2 영농 실태

그는 현재 시설원에 경영에 전문화하여 열갈이 배추를 재배하고 있다. 그가 열갈이를 택한 이유는 다른 채소보다 잡초가 잘 잡히기 때문에 일손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10동의 하우스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8동은 이전 농민으로부터 인수(대여)하고, 농업인후계자 자금을 대출받아 2동을 더 신축하였다.

생산량은 올해 9월까지 약 1만 상자를 출하하였으며, 시기별로 상자당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 약 3천 원씩 출하하였다고 한다. 1동(200평)에서 보통 300상자를 생산(1년에 4~5번 수확)(봄/가을에는 1달, 겨울에는 3달, 평균 45일에 한 번)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작목반 활동(약 20명)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농자재는 공동구매를 하고 있지만 농산물 출하는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6.2.3 향후 계획 및 정책 건의

그는 아직 농업은 노력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농활동에 대해 회의적이고, 후배들에게도 취농을 권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다. 돈을 많이 벌어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이미 결혼은 포기했다고 할 정도로 의욕이 떨어져 있었다. 농사에 변수가 너무 많아 날씨에 작황이 좌우되고 채소가격을 도매상들이 결정하는 현실에서 계획한 대로 안되는 것이 농업이라고 하면서 농산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특히 생산비와 관련하여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다고 하였는데, 조사 당일에도 4명의 아주머니를 쓰고 있었다. 한 여름에 인건비가 올라 갈 때는 일당 12만 원까지 주어도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신청하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신청하더라도 인력을 공급받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3~4개월) 있다. 또한 이들을 고용할 경우 한 겨울에 일이 적더라도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하는 문제(5만 원 선)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L씨와 같이 대학에서의 전공과 실제 영농작목이 다른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무적으로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바쁜 영농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농업인 후계자의 선정을 위해서는 무조건 정부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이전에 후계자 자금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대상자가 승계농이 아니어서 각종 담보물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과정상에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처리하여 이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하였다. 특히 대출이 필요 없는데 무조건 자금 지원을 받아야만 후계자로 선정이 되는 등의 문제, 영농후계자 대출 지원절차 상에 농협과 농업기술센터간의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져 낭패를 겪은 경험담을 토로하였다.

6.3. 승계형 귀농: 괴산군 청천면 L씨

6.3.1 귀농 과정

L씨는 38세의 귀농 7년 차인 농업인으로, 충북 괴산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의 5남매 중 막내이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그

는 대학 시절에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인도철학과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귀농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모든 환경 파괴의 원인을 결국 물리학이 제공하였다는 회의감에 중도에 대학원 과정을 포기하고, 더불어 건강상의 이유로 부모와 형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귀농하였다. 하지만 귀농 이후 결혼, 집 재건축, 각종 농자재 구입, 친환경농업의 선도적 적용 등을 통해 성공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은 귀농한 것에 대해 부모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

6.3.2 영농 실태

귀농 당시 부친이 논 1,500평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모두 문중 땅이거나 임차한 것이었다. 현재는 쌀 전업농으로서 소유지 논 1,500평을 포함하여 논 6천 평, 밭 3천 평의 농사를 짓고 있다. 밭농사는 부모가 전담하고 본인은 논농사에만 전념하고 있다.

그는 대학시절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생명의 농법”이란 책을 통해 친환경 농업에 접하면서, 벼농사에 친환경농업을 시도하였다. 현재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무농약 인증이 안되는 2천 평에 대해서는 관행농법으로 찰벼를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6천 평에 대해서는 우렁이 농법으로 친환경 쌀을 재배하고 있다. 영농 첫 해에는 4백 평, 이듬해 5백 평, 그 이듬해 2천 평, 이런 식으로 친환경 농업 규모를 넓혀 2005년에 4천 평 논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모두 인증을 받았다.

생산한 쌀의 판매는 농림부 지원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작년에 20kg에 6만원을 받았고, 올해는 6만 8천원(발송비 포함)을 받고 있다. 또한 쌀 생산량은 관행농법의 70~80% 수준이라고 한다.

한편 그는 현재 농사일 이외에 마을의 이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 마을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마을 어른들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본인의 얘기를 귀담아듣지를 않는 것이 고충이라는 의견을 털어놓았다.

6.3.3 향후 계획 및 정책 건의

그는 앞으로도 임차지를 늘려 친환경농업을 확대할 생각이며, 이를 위해 새로 트랙터도 구입할 계획이다. 한편, 그는 귀농 정책과 관련하여 귀농자들에게 절실한 것은 농지보다는 집 문제가 시급한데, 이를 위해 군이나 면의 행정 차원에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그리고 귀농에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므로(농지, 집, 창고, 기계 구입 등에 최소 1억 원 소요) 귀농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융자도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특히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농사짓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농촌에서 산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하였다.

6.4. 창업형 귀농: 괴산군 감물면 Y씨

6.4.1 귀농 과정

올해 40세인 충북 괴산의 Y씨는 부부가 귀농교육을 받고 귀농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부인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괴산읍에 거주하면서 취직 한 상태로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

Y씨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에 경실련, 기독교생 총연맹 등에서 활동하다 귀농을 결심하고 (사)전국귀농운동본부의 사

무를 2년간 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농을 하였다. 대학시절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하면서 사회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사회적 조건 변화보다는 자신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 귀농을 결심하였다.

부모는 농업과 전혀 무관하였고, 귀농 전에 농사 경험이라고는 대학 시절의 농활 경험과 1997년 경북 봉화에서 1년간 쉬기 위해 농촌에서 살았던 경험이 전부였다. 처음 귀농지로 삼은 것은 경북 봉화군이었는데, 주거할 집이 구해지지 않아 귀농운동본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흙살림 후배의 소개로 지금 마을의 이장을 소개받아 괴산으로 귀농하게 되었다. 현재의 주소지인 괴산으로 이동하여 만 2년간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괴산에 와서도 이사를 네 번이나 할 정도로 집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귀농의 어려움을 말하였다.

6.4.2 영농 실태

2004년에 농지를 5천 평까지 임대하여 옥수수, 기장, 브로콜리 등을 재배하였는데, 올해는 흙살림 감물면 지회조직의 간사 활동 때문에 1, 200평으로 줄었다. 작년에는 매출액이 2천만 원, 순수익이 8백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2백만 원 수준이다. 생산한 농산물은 일부 흙사랑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생협으로도 출하하고 있다.

그는 흙살림 지회조직 간사를 하면서 매월 1백만 원을 받고 있어 영농활동으로 부족한 경제적인 보상을 받고 있다. 이 조직에서 친환경 인증, 각종 행사 및 교육 추진, 회의 주재, 출하 담당, 회계 등의 업무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6.4.3 향후 계획 및 정책 건의

그는 농촌이 좋아 귀농을 한 것이기에 앞으로 계속할 생각이라고

하였으나, 현재 귀농자를 위한 정부 정책은 전무하다고 보고 있다. 귀농을 결심한 사람들을 위하여 영농자금 지원과 주택 알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본인의 경험상으로는 결국은 집이 있어야 영농에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집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귀농자에 대한 직접 혜택보다는 귀농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이 정착한 후 이들을 활용한 각종 마을 개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귀농자는 농지, 주택, 창고, 농기계 등 영농과 관련한 물적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에 정착이 늦어진다고 하였으며, 새로 농기계 지원사업이 마을에 배정되어도 귀농자가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귀농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제 5 장

일본의 신규 취농 실태와 정책 동향

1. 농업 인력과 신규 취농의 동향

일본에서는 고도경제성장이 시작된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연평균 약 2%라는 빠른 속도로 농가 수 및 농업 인구가 감소하였다. 이 수치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우리나라 농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여 단기간에 빨리 농업 인구의 감소를 경험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농업 부문에서 신규 인력의 진입이 조금씩이나마 활성화되는 듯한 양상을 나타내어 농정 당국을 즐겁게 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고용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가운데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신규 취농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농림수산성에서 신규 취농자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39세 이하의 신규 취농 청년의 수는 1990년에 4천 명 수준이었으나, 매년 증가하여 2003년에는 1만 2천 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다른 직업에서 전환하는 전직(轉職) 취농이 빠르게 증가하

여 1990년에는 1만 4천명 수준에서 2003년에는 7만 8천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신규 취농가 수는 1990년 1만 6천 명 수준에서 2003년에는 8만 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잠재적인 취농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취농 상담자 수도 1990년에는 7백 명 수준에서 2000년에는 9천 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당분간 신규 취농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표 5-1. 일본의 신규 취농 추이

연 도	신규 취농자					신규취농상담 센터의 취농상담자		
	(천명)	신규 학졸	전직 취농	39세 이하 (B) (천명)	신규 취농 (A+B) (천명)	상담 건수 (건)	상담 자수 (명)	취농 누계 (명)
		취농(A) (천명)						
1990	15.7	1.8	13.9	2.5	4.3	1,831	754	92
1995	48.0	1.8	46.2	5.8	7.6	3,447	2,474	311
2000	77.1	2.1	75.0	9.5	11.6	9,786	8,859	915
2003	79.8	2.2	77.6	9.7	11.9	-	-	-

주: 신규학졸 취농자: 학교 졸업 후 자영농업에 종사하는 자, 전직 취농자: 타산업에서 전직하여 취업 상태가 “농업이 주”인 자.

자료: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 농업구조동태조사, 전국농업회의소 조사 등.

표 5-2. 일본의 취농 분야별 및 취농 형태별 구성비, 2003

구분	취농 분야별				취농 형태별					
					농 가			농업법인		
	계	농가	농업 경영체	농업 서비스 사업체	경영 책임 자	세대 구성원 (가족)	농가 취업	경영 책임자	세대 구성원 (가족)	농가 취업
합계	100.0	90.2	8.3	1.5	26.7	71.5	1.8	2.4	13.7	83.9
남	100.0	92.3	6.6	1.1	28.3	70.3	1.4	3.4	17.4	79.2
여	100.0	74.2	21.5	4.3	11.5	83.1	5.4	1.8	5.2	94.8

자료: 농림수산업 신규 취농자 조사(2003.3)

최근 일본 학계에서도 신규 취농자의 실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본농림수산정책연구소의 예가와(江川章) 박사가 전국 신규취농상담센터의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하기로 한다. 그는 조사결과를 <표 5-3>과 같이 정리하면서 최근 일본의 신규 취농자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지적하였다.²⁷

표 5-3. 일본의 신규 취농자 실태조사 결과, 2002

구 분		취농시 연령			
		29세 이하	30~39	40~49	50세 이상
취농 이유	- 경영 지향	25.0	21.0	22.1	15.1
	- 생활 지향	12.5	15.3	24.2	32.9
농업연수 수강	연수 받음	75.0	72.2	54.7	47.9
농장 등의 영농 경험	영농경험 있음	18.0	21.2	8.5	2.7
정부정책 지원 수혜	지원 받음	58.7	61.5	57.0	37.7
농지확보 방법	- 구입	11.3	10.1	23.7	27.8
	- 임차	64.5	68.5	54.8	47.2
차입금 유무	차입금 있음	68.3	68.6	48.9	34.2

자료: 江川章, 『新規参入者の就農実態と展開方向』, 全国新規就農相談センター, 2003.3.

첫째는 신규 취농자의 유동성이 높다는 점이다. 취농 전후의 거주지를 보면 동일 도부현이 약 4할이고 다른 지역이 6할을 차지할 정도로 타 지역으로 취농 장소를 찾아 유동하는 경향이다. 이 경우에 취농지 선택의 결정 요인은 농지 확보의 가능성, 지원체제 유무, 자연환경 등을 들고 있다.

둘째는 취농 동기의 적극성이다. 신규 취농자는 농업으로 자립하거

²⁷ 江川章, “新たな農業經營者に求められる資質”, 『日本農業の發展を支えるもの』, 全国農業會議所, 2004.

나 농촌 생활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취농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바꾸어 말하면, 예컨대 도시 생활의 회피와 같은 소극적인 동기는 매우 적다는 점이다.

셋째는 취농시 연령에 따른 차이이다. 신규 취농자에 대한 지원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중고령의 취농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 5-3>에서 취농 연령에 따른 각 항목의 비율을 보면, 연수 수강률을 비롯하여 정책지원 수혜 비율 등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더욱이 최근에 취농하는 젊은 사람들은 농지나 자금 등의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 추세이지만, 고령자는 이러한 지원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파악하고 있는 영농 후계자 상황은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현재 동거 후계자를 보유한 농가가 전체의 54%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많은 편이다.

표 5-4. 일본의 영농형태별 영농후계자 보유 상황, 2003

단위: 호, %

구 분	총농가 수(A)	동거 후계자가 있는 농가(B)	150일 이상 영농 종사하는 후계자 보유 농가(C)	B/A	C/A
전 체	2,146,300	1,162,870	67,580	54.2	3.1
단 일 경 영	도 작	1,095,630	603,040	55.0	0.5
	노지채소	79,510	44,410	55.9	7.9
	시설채소	49,540	25,860	52.2	14.9
	과 수	150,900	75,770	50.2	5.6
	화훼	36,160	18,250	50.5	15.5
	낙농	15,040	7,930	52.7	19.5
	육우	25,150	9,860	39.2	7.6
복합경영농가	89,700	50,640	5,490	56.5	6.1

자료: 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그러나 이들 영농 후계자는 대부분이 겸업 형태로 경영주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15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실질적인 영농 후계자를 보유한 농가는 전체의 3%에 불과하다. 또한 영농 형태별로는 고소득 작목으로 불리는 낙농, 화훼, 시설채소 등에 실질적인 영농 후계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후계자 보유의 경향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는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이외에 농림수산성이 특수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2002년 현재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학교교육 기관은 농림수산성 산하에 독립행정법인 농업자대학교 1개와 도부현에 설치된 농업대학교 40개가 있으며, 그리고 문부과학성의 농업계 학교로서 4년제 대학 51개, 2년제 전문대학 13개, 농업고교 376개 등이 존재한다.

이들 교육기관에서 배출한 2002년도 졸업생의 취농 상황을 보면, <표 5-5>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농업고교 졸업생의 2.8%, 농학계 대학 졸업생의 2.6%, 농학계 단기대학 졸업생의 9.8%, 도부현 농업대학 졸업생의 30.1%, 농림수산성 농업자대학교 졸업생의 96.6% 등이다.

표 5-5. 일본의 농업계 학교 졸업생의 진로 상황, 2002

단위: 명, %

	학교수	졸업생 수(A)	진로상황				
			취업			진학	기타
			전체	농업(B)	B/A		
①농업고등학교	376	35,452	17,059	1,000	2.8%	12,355	6,038
②대학(농학부계)	51	16,393	8,976	420	2.6%	4,101	3,316
③단기대(농학부계)	13	1,308	606	128	9.8%	343	359
④도도부현 농업대학	40	1,844	1,324	555	30.1%	160	360
⑤독립행정법인 농업자대학교	1	29	29	28	96.6%	-	1

자료: 문부성 2002년도 학교기본조사보고서.

전체적으로 농업계 학교 졸업생 중에서 매년 2천명 정도의 신규 취농자가 배출되고 있는 셈이다.

2. 신규 취농의 관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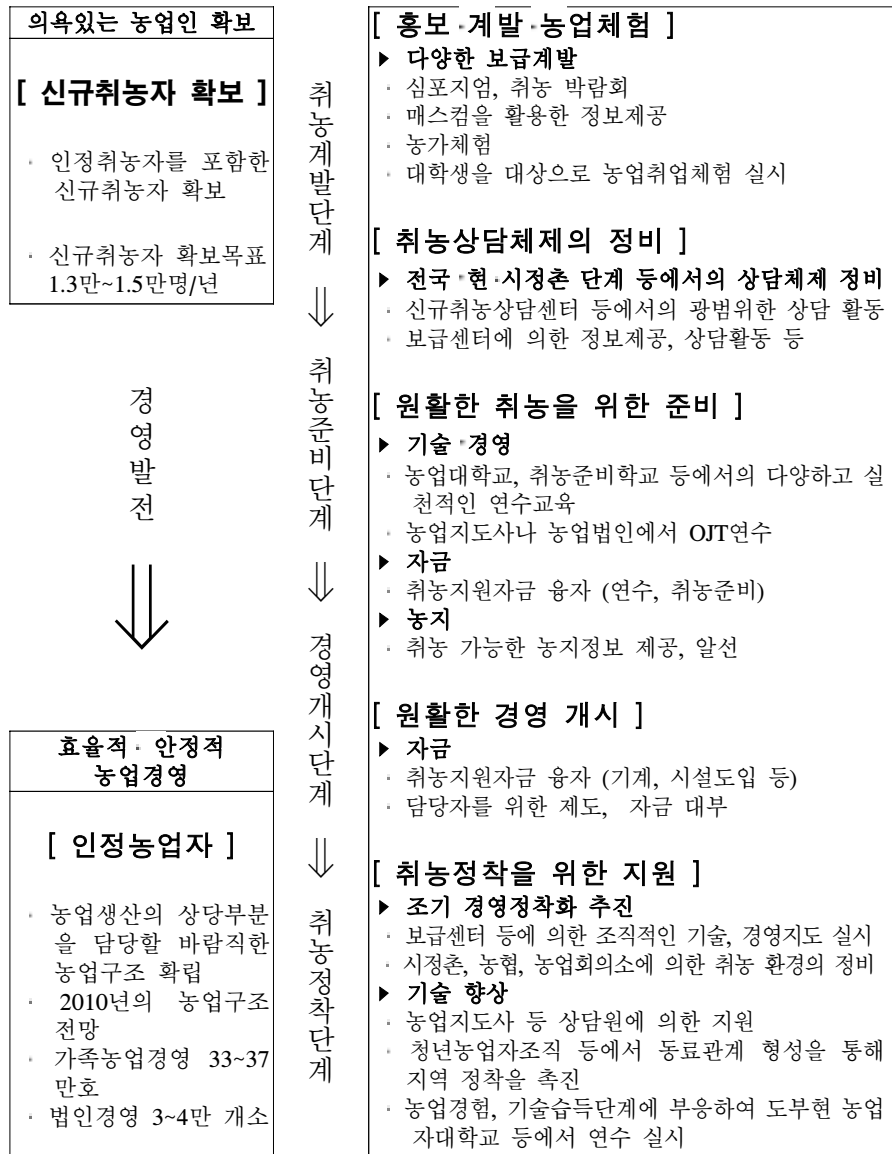
일본 농림수산성은 신규 취농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림 5-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취농의 단계별로 정보 제공과 상담 활동, 원활한 기술 습득, 정착자금 융자, 경영승계 지원, 경영정착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홍보·계발·농업체험의 단계로서 다양한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취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포지엄, 취농 박람회, 매스컴을 활용한 정보 제공, 농가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업취업 체험을 실시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신규 취농을 위한 상담 체제를 정비하여 전국·현·시정촌 단계 등으로 나누어 신규 취농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광범위한 상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농업지도소(보급센터)에서도 정보 제공과 상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단계로 원활한 취농을 위한 준비로서, 기술과 경영에 대해서는 농업대학교, 취농준비학교 등에서 다양하고 실천적인 연수교육을 실시하며, 독농가인 농업지도사나 농업법인에서 현장(OJT)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자금 지원으로는 연수와 취농 준비를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취농 가능한 농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원활한 경영 개시를 위한 단계에서는 농기계나 시설도입 등을 위한 취농지원자금을 융자하고, 영농후계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그림 5-1. 일본의 신규취농 지원 체계



경영발전



표 5-6. 신규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융자 지원내용

구 분	취농연수자금		취농준비자금	취농시설자금
자금 용도 (지원 목적)	농업기술 또는 경영 방법을 실제로 습득 하기 위한 연수에 필요한 자금		주거 이전, 자격 증 취득, 취농지 역 조사 등 취농 에 있어서 사전 조사 활동에 필 요한 자금	농업경영을 시작하는 경우 에 경영에 필요한 시설, 기 계, 자재 등의 구입, 농지 나 방목지에 대한 임대권 획득, 관배수와 토양 개량 등 경지 조건의 정비, 그리 고 묘목의 식수나 가축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 주체	도도부현 청년 영농후계자 육성센터			청년 영농후계자 육성센터 농업, 은행 등의 금융기관
(18세 이상 30세 미만, 도도부현의 지사가 특별히 인정할 경우 40세 미만까지)				
청년	대출 한도 액	농업대학에서 연수를 할 경우 월 5만 엔 선진농가에서 연수를 할 경우 월 15만 엔 지도연수인 경우(주 ¹) 월 200만 엔	200만 엔	경영개시 초년도 2,800만 엔, 경영개시 2년차부터 9 00만엔(주 ²)
	상환 (거치) 기간	12(4)년 이내(조건불리 지역 20(9)년 이내)	12(4)년 이내(조건불리 지역 20(9)년 이내)	12(5)년 이내
(55세 미만, 도도부현의 지사가 특별히 인정할 경우 65세 미만까지)				
중고 령자	대출 한도 액	농업대학에서 연수를 할 경우 월 5만 엔 선진농가에서 연수를 할 경우 월 15만 엔	200만 엔	경영개시 초년도 1,800만 엔, 경영개시 2년차부터 9 00만 엔
	상환 (거치) 기간	7(2)년 이내(조건불리 지역 12(5)년 이내)	7(2)년 이내(조건불리 지역 12(5)년 이내)	12(5)년 이내
채무보증제 도 적용의 유무	없음		없음	농협,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출하는 자금에 대해 농업신 용기금협회의 채무보증 대상

주¹: 지도연수 : 개량보급원 등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는 자택연수주²: 취농시설 자금에 관련된 경영개시 차년도 이후의 대출한도액은 자금수요의 2분의1 이내임.

취농 정착을 위한 지원 단계에서는 조기 경영정착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도소 등에 의한 조직적인 영농기술과 경영지도를 실시하며, 시정촌, 농협, 농업회의소 등이 종합적으로 취농 환경의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취농자의 농업기술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지도사 등 상담원에 의한 지원과 함께, 청년농업자조직 등에서 동료관계형성을 통하여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영농 경험, 기술 습득 단계에 따라 도부현 농업자대학교 등에서 실천적인 영농연수를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농림수산성은 신규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융자로서 <표 5-6>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취농연수자금, 취농준비자금, 취농시설자금 등을 마련하여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취농연수자금은 농업기술 또는 경영방법을 실제로 습득하기 위한 연수에 필요한 자금이며, 취농준비자금은 주거 이전을 위한 주택 취득, 자격증 취득, 취농지역 조사 등 취농을 위한 사전조사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다. 그리고 취농시설자금은 농업경영을 시작하는 경우에 경영에 필요한 시설, 기계, 자재 등의 구입, 농지나 방목지에 대한 임대권 획득, 관배수와 토양 개량 등 경지 조건의 정비, 그리고 묘목의 식수나 가축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특히 농림수산성의 외곽단체인 농업회의소 계통조직을 통하여 취농 희망자·청년 농업자에 대한 취농 상담 활동 및 정보 제공을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써 잠재적인 취농자를 확보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취농 상담의 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담창구 활동: 신규 취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국 및 도도부현의 신규취농 상담센터에서 취농 계발과 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 자금에 관련된 정보, 취농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상담활동 등을 실시

하고 있다.

② 취농설명회 개최: 취농 희망자의 농업법인에 대한 취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도부터 대도시권과 주요 도시에서 농업법인 취농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③ 전국 신규취농상담센터의 무료 상담: 전국 신규취농상담센터는 2003년 5월부터 직업안정법에 의거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취농 희망자와 농업법인을 연계시켜 취농 상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④ 공공직업안정소와 연계한 정보 제공: 신규 취농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제도(취농지원자금, 경영착수자금)를 비롯하여 취농준비학교의 정보를 구직자에게 널리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의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하에 독립행정법인 농업자대학교를 설치하여 신규 취농자를 위한 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농업자대학교는 다른 연수시설과 달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과정을 통한 강의, 전국 선진경영체의 파견 실습, 해외농장의 파견 연수 등으로 이론과 실습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3년의 연수교육을 거쳐 지역농업 리더를 육성하고 있다.

또한 전국 40개 도부현에는 농업자대학교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도부현 농업자대학교는 영농후계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고교 졸업 수준의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의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강의와 연수를 연계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부현 농업대학교 중에는 농업인에 대한 보수교육 차원에서 고도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들 공공기관 외에 민간연수시설에서도 신규 취농을 위한 교육훈

련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鯉淵學園(1945년 설립, 농업경영과학과, 생활영양과학과), 하케타카(ハケ岳)중앙농업실천대학교(1938년 설립, 전수과, 연구과), 일본농업실천학원(1927년 설립, 경영부·생활부 고등과, 본과, 연구과) 등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연구시설이다. 이들 농업연구시설에서는 각각 독특한 철학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한 농업자의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 도시의 취농 희망자가 농업기술과 경영기법을 습득하여 원활한 취농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직장에 다니면서 농업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취농준비학교, 선진 농업경영체에서의 OJT(현장 훈련)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시정촌에서 개설하고 있는 취농준비학교는 생산 현장의 실천적 연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선진 농가의 지도농업사 및 시정촌과 농협 등이 운영하고 있는 실천연수농장(목장) 등이 연수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연수프로그램은 신규 취농자가 영농기술과 경영기법을 익숙하도록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 6 장

신규 취농의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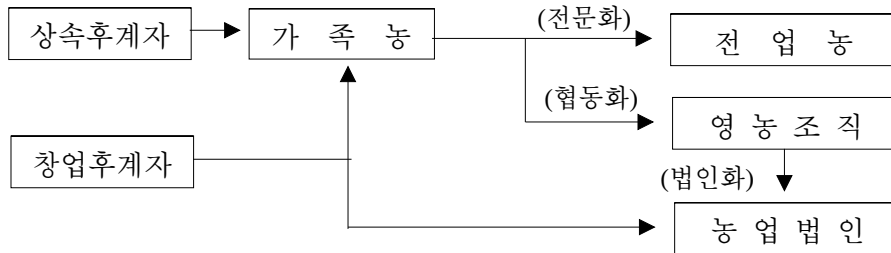
1. 신규 취농 관련정책의 현황

1.1. 신규 취농의 관련 제도

신규 취농은 새로이 농업인이 되어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순 노동자이거나 보조적인 농업노동자보다는 농업경영자를 상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영농 후계자로 취농하는 경우에도 미래의 농업경영자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업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를 창설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농가’ 또는 ‘농업법인’을 창설하는 것이다. 즉, 현행 법상 농업경영체는 농가(가족농)와 농업법인으로 구분되며, 농업인으로서 가족농업경영이나 농업법인경영에 종사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농업경영에 진입하는 형태는 <그림 6-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기존 농가의 경영주를 승계하는 상속후계자이거나 새로이 농업경영을 창설하는 창업후계자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6-1. 신규 취농과 농업경영체의 경로



한편, 농업경영의 승계와 창업의 특징을 비교하면, 경영자의 육성이나 경영기반 및 생활기반 등의 측면에서 창업에 비하여 경영승계에 의한 취농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러한 유리성은 가족농업경영의 장점이기도 하다.

현행 법률상 농업경영체로서의 농가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과 조건이 필요하다.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업인의 자격은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 농가를 창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법』

표 6-1. 경영 승계와 창업의 비교

구 분		농가 자체의 경영승계	신규취농 창업
경영자의 육성 관계		부자 관계	취농자의 노력
경영기반	유형의 경영자산 (농지, 자금, 자본 등)	상속	신규 조달(경영자본)
	무형의 경영자산 (경영기술, 신용력 등)	가족내의 분업과 협업으로 교육에 의한 승계	연수 등을 통해 배양
	취농 소요기간	장기간의 라이프사이클	단기간에 가능
생활기반	주택 등 생활자산	용이	신규 조달
	지역의 인간관계	일상생활을 통해 형성	지역의 교류 기회 활용

에 근거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아 농지원부에 등재해야 한다(1,000㎡이상의 농업경영: 소유+임차, 임차지는 농지임대차계약서 첨부).

또한, 농지 구입 후 그 취득농지에 농지전용을 통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세대원 총수입의 1/2이상이 농업소득일 경우 농지 조성비가 감면된다. 이 때 농가주택을 건축하고 남은 경영경지(소유+임차)면적이 1,0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에 일반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지역(준농림지역)을 기준으로 농지전용 신청시 ㎡당 10,300원(평당 약 34,000원)의 농지조성비를

표 6-2. 농업인의 정의와 자격 기준

관련법령		세 부 내 용
농업 농촌 기본 법	정의 (법 제3조)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준 (시행령 제2조)	1.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 법	정의 (법 제2조)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기준 (시행령 제3조)	1.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전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자료: 관련 법률에서 정리.

납부하여야 하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지조성비가 감면(면적 660m²/200평까지)된다.

1.2. 신규 취농을 위한 지원 정책의 내용

정부는 신규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 초기에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농가 자녀의 영농 승계라는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가 자녀의 취농 감소와 후계자 선정대상 연령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정책의 주된 목적이 기존 농업인의 이농 방지 및 경영 확대 지원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은 신규 취농자를 지원하기 보다는 이미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되었으며, 따라서 이들의 자율적인 조직체인 ‘영농후계자연합회’가 1993년부터 ‘농업경영인연합회’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다.

정부는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이 경영기반을 갖춘 기존 농업인 위주로 선정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2001년부터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을 종합자금제도에 편입하였으며, 신규 후계자 지원과는 별도로 취농창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²⁸

2003년까지 농업인 후계자 육성 현황을 작목별로 보면 벼농사 23,952명, 원예 12,707명, 과수 6,080명, 특작 5,065명, 복합 22,535명, 한우 32,949명, 낙농 7,816명, 기타축산 7,041명, 합계 122,204명이다.

²⁸ 농협을 통한 종합자금제로 바뀐 것에 대하여 농업인단체들은 실질적으로 후계농업인 육성제도가 소멸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6-3. 신규 후계자와 취농창업 지원 실적

연 도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신규 후계자	8,526명 (2270억원)	7,862명 (2400억원)	4,819명 (1500억원)	4,674명 (1500억원)	2,840명 (900억원)	1,425명 (450억원)	766명 (240억원)
취농 창업자	-	-	-	-	430명 (200억원)	1,075명 (550억원)	1,114명 (720억원)

자료: 농림부 경영인력과. () 내는 지원자금 총액.

또한 정부는 2004년에 취농 창업을 후계자 육성사업에서 분리하여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신규 취농하려는 35세 미만의 젊은 농업경영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하였다.²⁹ 한편, 2005년부터 창업농 육성을 보완하기 위한 시책으로 농업 인턴 제도, 창업농 후견인제도, 대학생 창업연수제도³⁰ 등을 도입하였다.

1.3. 도시민의 귀농 지원 교육훈련

도시민의 취농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부터 정부지원프로그램이 강화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도시민의 귀농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단체로 농촌진흥청, 농협, (사)전국귀농운동본부 등이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독교귀농운동본부, 불교귀농학교 등과 같이 종교단

²⁹ 한농전 졸업자, 대학생 창업연수과정·직업훈련과정 이수자 및 농업인턴십 참여자 등 35세 미만의 창업농 1000명을 선정하여 자금 지원: 연리 4%, 5년거치 10년 상환, 20~100백만원(평균 8,000만원).

³⁰ 농업 인턴제: 청(소)년의 영농분야 실무 연수 지원
창업농 후견인제: 창업농에 대한 후견인의 전담 컨설팅 지원
대학생 창업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농 연수프로그램 운영 지원

표 6-4. 귀농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현황

기 관 단 체 명	주 요 내 용
농촌진흥청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정보 및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중견농업인으로 육성 특히, 한국농업전문학교는 2005년 여름부터 귀농교육 단기연수 과정을 신설
농협(지부 포함)	농협 인력개발원에서 1995년에 귀농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한 이래 시도 지부에서도 실시중
전국귀농 운동본부	정농회, 녹색연합, 농업을걱정하는변호사모임,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4-H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등이 개설. 귀농 교육과 친환경농업 체험 등을 통해 도시인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도·농교류 기반을 갖추는 것이 귀농운동본부의 주요 목표. 본부는 서울시 금호동에 소재 광주, 대전, 부산, 청주 등 지방에서도 운영
전국농업 기술자협회	서울시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소재한 협회 회관에서 귀농정착교육 실시. 주로 품목 교육으로 표고, 느타리, 화훼, 시설채소, 특수가축, 특용작목 등이며, 교육기간은 주 2일 4주 교육
더불어살기운동/ 전국귀농학교	충남 예산 대술면 산정리에 있는 농장에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4주간 무료로 실시. 오전 이론, 오후 실습하며 합동숙식이 기본이고 토,일요일은 교육이 없음. 이론보다 실습위주의 창조환경보전농법(유기농법)의 입장
대구기독교 귀농운동본부	대구시 서구 평리2동 작은교회(곽은득 목사)에서 운영하며, 강의 내용은 전국귀농운동본부와 유사하지만 농촌교회와 연대한 새로운 선교 모델을 구상
불교귀농학교	서울 조계사에서 실시. 현장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3박4일 정도 남원의 실상사 농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실시함.
불교장기 귀농학교	현장교육이 중심으로 남원 지리산의 실상사 농장에서 3개월간 숙박 교육

자료: 농림부 자료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정리.

체를 중심으로 귀농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2. 신규 취농의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

2.1. 신규 취농과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취농 의향과 영농 실태를 조사한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 그리고 사단법인 전국귀농운동본부의 교육 참가자 및 귀농자를 대상으로 신규 취농에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설문지를 통하여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표 6-5>와 <표 6-6>에서 취농시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예비 취농자들은 경영기반, 영농지식과 기술 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들었다.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영기반을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영농지식과 기술,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을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신규 취농자는 경영기반, 판로 확보, 영농지식과 기술, 신념 등을 장애요인으로 생각하였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확고한 신념,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을, 연령대가 낮을수록 제반 환경 변화를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취농 형태별로 보면, 신규 창업자는 판로 확보, 확고한 신념, 지역주민과의 관계, 가족/주변 사람들의 지지 등을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경영 승계자는 영농지식과 기술, 제반 환경 변화, 영농 정보 등을 더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³¹

³¹ 이근수(1993)가 영농후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농시 애로사항으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가장 많았고, 그밖에 영농자금 부족, 노동인력 부족 등의 순이었다. 김형용(1998)이 귀농자들의 취농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영농기술 및 경험 부족, 영농정보 취득의 어려움, 정부의 자금지원

표 6-5. 예비 취농자가 생각하는 취농 장애요인

단위: 명, (%)

취농 장애요인	연령(세)					전체	취농형태		전체
	~20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경영기반	71 (60.7)	8 (53.3)	24 (63.2)	28 (48.3)	11 (34.4)	142 (54.6)	53 (56.4)	86 (54.4)	139 (55.2)
영농지식과 기술	45 (38.5)	7 (46.7)	25 (65.8)	37 (63.8)	21 (65.6)	135 (51.9)	50 (53.2)	79 (50)	129 (51.2)
판로 확보	33 (28.2)	7 (46.7)	21 (55.3)	26 (44.8)	11 (34.4)	98 (37.7)	35 (37.2)	62 (39.2)	97 (38.5)
제반 환경변화	44 (37.6)	5 (33.3)	13 (34.2)	20 (34.5)	10 (31.3)	92 (35.4)	38 (40.4)	52 (32.9)	90 (35.7)
지역주민과 관계	21 (17.9)	2 (13.3)	14 (36.8)	24 (41.4)	12 (37.5)	73 (28.1)	20 (21.3)	48 (30.4)	68 (27)
확고한 신념	20 (17.1)	7 (46.7)	18 (47.4)	16 (27.6)	9 (28.1)	70 (26.9)	22 (23.4)	44 (27.8)	66 (26.2)
영농정보	29 (24.8)	1 (6.7)	10 (26.3)	13 (22.4)	9 (28.1)	62 (23.8)	22 (23.4)	38 (24.1)	60 (23.8)
가족/주변 사람 지지	23 (19.7)	2 (13.3)	13 (34.2)	14 (24.1)	8 (25)	60 (23.1)	20 (21.3)	37 (23.4)	57 (22.6)
합 계	118 (100)	16 (100)	39 (100)	61 (100)	33 (100)	267 (100)	95 (100)	159 (100)	254 (100)

주: 복수응답의 집계로서 ()안의 비율은 항목별 응답 수를 사람 수로 나눈 비율이며, 맨 처음 칸의 60.7은 20세 미만인 응답자 118명 중에 71명이 응답하였다는 의미임. 이하 표 6-10까지 같음.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수혜의 어려움, 농지구입 및 농지임차의 어려움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서규선 등(2000)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도시 귀농자들은 자금부족 및 영농기반조성 곤란, 영농기술 부족, 농산물 판매 곤란, 주위 사람들의 시선 및 일손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나승일 등(2004)이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영농시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자금 부족, 농업정책의 급변, 유통 및 판매 문제, 결혼 문제 등을 가장 많이 들었다. 김성수 등(2004)의 도시 귀농자 조사결과에 의하면 귀농 이후 애로사항으로 영농자금 조달, 영농기술 및 경험 부족, 농지 부족, 일손 부족 등의 문제를 들고 있었다.

표 6-6. 신규 취농자가 생각하는 취농 장애요인

단위: 명, (%)

취농장애요인	연령(세)				전체	취농형태		전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경영기반	23 (71.9)	26 (86.7)	26 (78.8)	8 (72.7)	83 (78.3)	28 (75.7)	54 (79.4)	82 (78.1)
판로확보	13 (40.6)	16 (53.3)	23 (69.7)	7 (63.6)	59 (55.7)	14 (37.8)	44 (64.7)	58 (55.2)
영농지식과 기술	17 (53.1)	12 (40)	16 (48.5)	7 (63.6)	52 (49.1)	21 (56.8)	30 (44.1)	51 (48.6)
확고한 신념	6 (18.8)	12 (40)	18 (54.5)	8 (72.7)	44 (41.5)	10 (27)	34 (50)	44 (41.9)
지역 주민과의 관계	6 (18.8)	16 (53.3)	14 (42.4)	6 (54.5)	42 (39.6)	8 (21.6)	33 (48.5)	41 (39)
제반 환경변화	16 (50)	9 (30)	12 (36.4)	3 (27.3)	40 (37.7)	17 (45.9)	22 (32.4)	39 (37.1)
가족/주변사람 지지	7 (21.9)	13 (43.3)	13 (39.4)	5 (45.5)	38 (35.8)	9 (24.3)	27 (39.7)	36 (34.3)
영농정보	9 (28.1)	1 (3.3)	2 (6.1)	0 (0)	12 (11.3)	7 (18.9)	4 (5.9)	11 (10.5)
합 계	32 (100)	30 (100)	33 (100)	11 (100)	106 (100)	37 (100)	68 (100)	105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복수응답 집계.

취농 교육에 대하여 좀 더 보강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표 6-7, 표 6-8>, 예비 취농자들은 취농자 교육에 있어 유기농업이나 환경농업, 재배사육 기술, 시장조사·마케팅 전략, 농산물 가공, 정보 획득 및 학습 전략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세 이하는 시장조사·마케팅 전략, 컴퓨터 및 정보화 등의 교육을 강조하는 반면, 20대 이상의 경우는 유기농업과 환경농업을 강조하였다. 취농 형태별로는 신규 창업자들이 유기농업, 환경농업, 재배사육기술 등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한편, 신규 취농자의 경우에는 유기농업과 환경농업, 재배사육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에 유기농업과 환경농업, 재배사육 기술 이외에 시장조사·마케팅 전략, 경영기법을 강조한 반면, 40대 이상은 농산물 가공, 농업 철학 및 리더십 등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취농 형태별로는 신규 창업자의 경우에는 유기농업과 환경농업, 재배사육 기술, 농산물 가공, 농업 철학 및 리더십을 강조한 반면, 경영 승계자는 재배사육 기술, 시장조사·마케팅 전략, 경영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다.³²

<표 6-9>와 <표 6-10>은 신규 농업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 취농자들은 농가농장체험 프로그램 제공, 취농자 교육 및 연수, 취농정착자금 융자 지원, 영농상담 컨설팅 등을 강조하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았다. 40대 이상에서는 농가농장체험 프로그램 제공, 취농자 교육 및 연수, 취농정착자금 융자 지원, 영농상담 컨설팅 외에 취농정보 제공 및 상담활동 등을 요구하였으며, 50대 이상에서는 이 외에도 농지구입 정보를 요구하였다. 취농형태별로는 신규 창업자는 경영 승계자에 비하여 취농자 교육 및 연수, 취농정착자금 융자 지원 등을 강조한 반면, 경영 승계자는 영농 상담 및 컨설팅을 더 강조하였다.

한편, 신규취농자들은 취농자에 필요한 정책으로 취농정착자금, 영농 상담 및 컨설팅, 농가농장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을 강조하였다. 연령별로는 공통적으로 취농정착자금 외에 20대에서는 농장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요구하였고, 30대 이상에서는 영농상담 및 컨설팅을 요구하

³² 김성수 등(2004)이 도시귀농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영농기술교육을 받고 싶은 작목을 조사한 결과 특용작물, 친환경농업, 과수 등이 가장 많았다.

표 6-7. 예비 취농자가 생각하는 취농교육시 보완이 필요한 교육내용
단위: 명, (%)

취농교육	연령(세)					전체	취농형태		전체
	~20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유기농/ 환경농업	38 (33.3)	6 (40)	16 (43.2)	26 (44.8)	19 (59.4)	105 (41)	34 (37.4)	67 (44.1)	101 (41.6)
재배사육기술	40 (35.1)	4 (26.7)	11 (29.7)	30 (51.7)	15 (46.9)	100 (39.1)	27 (29.7)	68 (44.7)	95 (39.1)
시장조사· 마케팅 전략	49 (43)	3 (20)	11 (29.7)	17 (29.3)	10 (31.3)	90 (35.2)	30 (33)	58 (38.2)	88 (36.2)
농산물 가공	29 (25.4)	6 (40)	16 (43.2)	19 (32.8)	13 (40.6)	83 (32.4)	25 (27.5)	52 (34.2)	77 (31.7)
정보획득 및 학습전략	40 (35.1)	4 (26.7)	11 (29.7)	18 (31)	8 (25)	81 (31.6)	31 (34.1)	46 (30.3)	77 (31.7)
농업철학 및 리더십	29 (25.4)	5 (33.3)	14 (37.8)	19 (32.8)	4 (12.5)	71 (27.7)	23 (25.3)	47 (30.9)	70 (28.8)
농업정책/ 대내외환경변화	21 (18.4)	5 (33.3)	10 (27)	21 (36.2)	11 (34.4)	68 (26.6)	26 (28.6)	40 (26.3)	66 (27.2)
컴퓨터 및 정보화	45 (39.5)	3 (20)	2 (5.4)	7 (12.1)	3 (9.4)	60 (23.4)	24 (26.4)	35 (23)	59 (24.3)
경영기법	32 (28.1)	5 (33.3)	6 (16.2)	11 (19)	6 (18.8)	60 (23.4)	18 (19.8)	42 (27.6)	60 (24.7)
농기계/시설	29 (25.4)	1 (6.7)	8 (21.6)	10 (17.2)	11 (34.4)	59 (23)	22 (24.2)	35 (23)	57 (23.5)
일손관리/공급	20 (17.5)	3 (20)	5 (13.5)	16 (27.6)	8 (25)	52 (20.3)	17 (18.7)	30 (19.7)	47 (19.3)
농촌관광/ 지역개발	17 (14.9)	1 (6.7)	6 (16.2)	11 (19)	9 (28.1)	44 (17.2)	14 (15.4)	28 (18.4)	42 (17.3)
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	14 (12.3)	3 (20)	8 (21.6)	11 (19)	3 (9.4)	39 (15.2)	10 (11)	30 (19.7)	40 (16.5)
회계기록· 분석	21 (18.4)	3 (20)	5 (13.5)	5 (8.6)	4 (12.5)	38 (14.8)	16 (17.6)	19 (12.5)	35 (14.4)
합 계	118 (100)	16 (100)	39 (100)	61 (100)	33 (100)	267 (100)	95 (100)	159 (100)	254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복수응답 집계.

표 6-8. 신규 취농자가 생각하는 취농교육시 보완이 필요한 교육내용
단위: 명, (%)

취농교육	연령(세)				전체	취농형태		전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유기농/ 환경농업	13 (41.9)	14 (46.7)	15 (48.4)	10 (90.9)	52 (50.5)	14 (38.9)	37 (55.2)	51 (49.5)
재배사육기술	17 (54.8)	15 (50)	14 (45.2)	5 (45.5)	51 (49.5)	20 (55.6)	30 (44.8)	50 (48.5)
농산물 가공	9 (29)	9 (30)	15 (48.4)	7 (63.6)	40 (38.8)	8 (22.2)	32 (47.8)	40 (38.8)
시장조사· 마케팅 전략	14 (45.2)	9 (30)	11 (35.5)	3 (27.3)	37 (35.9)	17 (47.2)	19 (28.4)	36 (35)
농업철학 및 리더십	10 (32.3)	8 (26.7)	13 (41.9)	6 (54.5)	37 (35.9)	10 (27.8)	27 (40.3)	37 (35.9)
경영기법	13 (41.9)	6 (20)	8 (25.8)	2 (18.2)	29 (28.2)	15 (41.7)	13 (19.4)	28 (27.2)
농업정책/ 대내외환경변화	8 (25.8)	11 (36.7)	7 (22.6)	1 (9.1)	27 (26.2)	11 (30.6)	16 (23.9)	27 (26.2)
일손관리/공급	8 (25.8)	5 (16.7)	11 (35.5)	2 (18.2)	26 (25.2)	8 (22.2)	18 (26.9)	26 (25.2)
농기계/시설	5 (16.1)	8 (26.7)	6 (19.4)	1 (9.1)	20 (19.4)	8 (22.2)	11 (16.4)	19 (18.4)
농촌관광/ 지역개발	6 (19.4)	6 (20)	3 (9.7)	2 (18.2)	17 (16.5)	6 (16.7)	11 (16.4)	17 (16.5)
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	1 (3.2)	6 (20)	8 (25.8)	2 (18.2)	17 (16.5)	1 (2.8)	16 (23.9)	17 (16.5)
회계기록·분석	9 (29)	4 (13.3)	1 (3.2)	0 (0)	14 (13.6)	11 (30.6)	2 (3)	13 (12.6)
컴퓨터 및 정보화	8 (25.8)	2 (6.7)	0 (0)	3 (27.3)	13 (12.6)	7 (19.4)	5 (7.5)	12 (11.7)
정보획득 및 학습전략	6 (19.4)	2 (6.7)	3 (9.7)	2 (18.2)	13 (12.6)	8 (22.2)	5 (7.5)	13 (12.6)
합 계	31 (100)	30 (100)	31 (100)	11 (100)	103 (100)	36 (100)	67 (100)	103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복수응답 집계.

였다. 취농형태별로는 경영 승계자의 경우 취농정착자금 외에 농장체험프로그램을, 신규창업자의 경우에는 영농상담 컨설팅, 농지구입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하였다.³³

표 6-9. 예비 취농자가 생각하는 신규인력 유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취농정책	연령(세)					전체	취농형태		전체
	~20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농가·농장 체험프로그램 제공	59 (51.3)	6 (40)	19 (50)	27 (45.8)	17 (51.5)	128 (49.2)	43 (47.3)	78 (50)	121 (49)
취농자 교육 및 연수	53 (46.1)	6 (40)	23 (60.5)	30 (50.8)	12 (36.4)	124 (47.7)	37 (40.7)	80 (51.3)	117 (47.4)
취농 정착자금 융자 지원	57 (49.6)	8 (53.3)	20 (52.6)	24 (40.7)	15 (45.5)	124 (47.7)	40 (44)	79 (50.6)	119 (48.2)
영농상담 및 컨설팅	43 (37.4)	7 (46.7)	17 (44.7)	28 (47.5)	15 (45.5)	110 (42.3)	44 (48.4)	62 (39.7)	106 (42.9)
취농 정보 제공 및 상담활동	29 (25.2)	5 (33.3)	15 (39.5)	24 (40.7)	17 (51.5)	90 (34.6)	33 (36.3)	52 (33.3)	85 (34.4)
농지구입정보 제공	28 (24.3)	6 (40)	8 (21.1)	16 (27.1)	16 (48.5)	74 (28.5)	25 (27.5)	46 (29.5)	71 (28.7)
지역 주민과 융화 지원	14 (12.2)	5 (33.3)	10 (26.3)	17 (28.8)	8 (24.2)	54 (20.8)	16 (17.6)	37 (23.7)	53 (21.5)
취농 박람회 개최	27 (23.5)	1 (6.7)	1 (2.6)	10 (16.9)	1 (3)	40 (15.4)	19 (20.9)	18 (11.5)	37 (15)
합 계	118 (100)	16 (100)	39 (100)	61 (100)	33 (100)	267 (100)	95 (100)	159 (100)	254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복수응답 집계.

³³ 김형용(1998)이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도시 귀농자 정책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자금지원의 획기적 증대, 영농교육 및 상담의 충실 등을 지적하였다. 김성수 등(2004)이 도시 귀농자들 대상으로 귀농자 영농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조사한 결과, 영농규모에 맞는 자금지원, 농산물 가격보장 및 판매망 구축이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영농기술교육 등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표 6-10. 신규 취농자가 생각하는 신규인력 유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취농정책	연령(세)				전체	취농형태		전체
	21~30	31~40	41~50	51~		경영 승계	신규 창업	
취농 정착자금 융자 지원	23 (71.9)	14 (48.3)	16 (48.5)	7 (63.6)	60 (57.1)	23 (63.9)	37 (54.4)	60 (57.7)
영농상담 및 컨설팅	10 (31.3)	17 (58.6)	20 (60.6)	7 (63.6)	54 (51.4)	13 (36.1)	40 (58.8)	53 (51)
농가·농장체협 프로그램 제공	18 (56.3)	10 (34.5)	10 (30.3)	5 (45.5)	43 (41)	22 (61.1)	21 (30.9)	43 (41.3)
취농자 교육 및 연수	9 (28.1)	12 (41.4)	12 (36.4)	5 (45.5)	38 (36.2)	14 (38.9)	22 (32.4)	36 (34.6)
농지구입정보 제공	11 (34.4)	9 (31)	14 (42.4)	3 (27.3)	37 (35.2)	9 (25)	28 (41.2)	37 (35.6)
취농정보제공 및 상담활동	8 (25)	7 (24.1)	17 (51.5)	4 (36.4)	36 (34.3)	9 (25)	25 (36.8)	34 (32.7)
지역 주민과 융화지원	7 (21.9)	7 (24.1)	9 (27.3)	1 (9.1)	24 (22.9)	8 (22.2)	14 (20.6)	22 (21.2)
취농박람회개최	2 (6.3)	2 (6.9)	0 (0)	0 (0)	4 (3.8)	3 (8.3)	1 (1.5)	4 (3.8)
합 계	32 (100)	29 (100)	33 (100)	11 (100)	105 (100)	36 (100)	67 (100)	103 (100)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 복수응답 집계.

2.2. 신규 취농의 축진을 위한 정책 과제

이상에서 검토한 조사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신규 취농의 축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정리하기로 한다. 신규 취농의 과정은 동기 개발을 위한 단계와 취농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 그리고 영농에 종사하는 정착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취농의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1 학교교육을 통한 잠재적 농업후계인력 개발

농업에 대한 태도가 신규 취농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학교 교육에서부터 농업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부터 농업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거나 교과 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농업계 학교가 건설한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여 졸업 후에 직업인으로 취농할 수 있도록 농정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업계 학교의 실습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기계나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농업계 대학생(전문대 포함)에 대한 영농장학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5년 도입한 대학생 창업연수 지원제도는 지방대학에서 호응이 높으므로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2 신규취농 예정자에 대한 영농교육훈련 확충

신규취농자가 영농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취농예정자를 대상으로 선진농가나 농장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농업계 대학의 농업경영자 과정을 내실화하는 방안으로 교육여건 및 능력이 우수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심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업관련협회나 농업인단체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전문화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2.3 신규 취농을 위한 정보제공과 상담 활동의 활성화

신규취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상시적으로 상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나 농촌진흥청 계통(시군 농업기술센터)으로 가칭 『신규취농상담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도시민의 귀농을 지원하는 (사)전국귀농운동본부를 비롯한 민간 부문의 귀농교육훈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농정 차원의 재정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나아가 신규 취농자의 교육훈련, 상담, 컨설팅 등의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간의 정보 교류와 연계 활동을 위하여 가칭 『취농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2.4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의 개선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특히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과 관련된 정책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과 통합되었으므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조건이나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에 있어서 지역별 안배보다는 신청자의 수가 많은 지역에 더욱 많은 인원의 배정이 필요하며, 기존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하여 경영 성과를 평가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자에 대한 후속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2.2.5 신규 취농자의 유연한 경영승계를 위한 제도 확립

부모의 영농을 승계하는 후계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경영

을 이양받기까지 농업인으로서 독립적인 활동이 제약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가의 영농후계자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농업경영상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가족경영협약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가족경영협약 제도는 경영주와 후계자 사이에 경영 분담, 수익 분배, 근로 조건, 장래 경영이양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여 가족경영 내에서 후계자의 책임과 성과를 분담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³⁴ 가족경영협약 제도는 영농후계자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이 가족경영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확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2.2.6 신규 취농에 관한 통계의 작성

최근 들어 고학력자의 창업이나 도시로부터의 이직 취농이 증가하는 경향이며, 정책적으로도 신규 취농이 강조되고 있으나, 관련 통계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농림부에서 행정계통으로 귀농자 수를 파악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는 농업총조사에서 창설 농가를 파악하여 그들의 성격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농림부 차원에서도 신규 취농자의 성격과 경영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³⁴ 일본의 가족경영협약은 경영주와 배우자 또는 후계자가 노동에 따른 보수, 노동시간, 휴가, 경영승계 등의 조건에 합의하고 문서로 작성하고, 지자체 또는 농업관련단체의 장이 참관인으로 날인하고 있다.

제 7 장

요약 및 결론

1. 보고서의 요약

최근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업의 미래를 담당할 농업경영자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4년 현재 60세 이상 농업경영자가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령경영주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 고령 경영주는 대부분이 영농 후계자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의 존속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부는 2004년부터 창업농 지원제도를 창설하여 젊은 사람들의 신규 취농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신규 취농자가 영농을 하게 된 배경, 영농에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현재의 농업경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영농에 대한 의향 및 취농 실태에 관한 조사는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 그리고 사단법인 전국귀농운동본부의 교육 참가자 및 귀농자 중에서 각각 100명씩 임의로 선정하여 2005년 6월부터 10월까지 설문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표가 회수된 총 380명을 대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농림부의 정책 자료와 농업총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농업 후계 인력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농업총조사에서 영농 승계자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은 1990년 16.4%, 1995년 13.1%, 2000년 11.0%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농림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통하여 2014년에 우리나라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업농으로 약 20만 호를 상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주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30년으로 가정할 때 연간 약 7천 명의 인력이 신규로 유입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취농은 단지 농업 인력이 아니라 농업 경영자를 확보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취농의 경로는 농가를 상속하는 경영 승계와 외부에서 진입하는 경영 창업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최근의 신규 취농자 수는 ‘학교 졸업 취농자’ 약 1,500명과 ‘귀농자’ 약 1,000명을 합하여 연간 총 2,500명 정도로 추정되며, 과거에는 후계자가 경영주의 농업경영을 승계하는 경영 승계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고학력자의 창업농이나 도시로부터의 이직(離職) 취농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다.

취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영농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이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취농 예정자와 신규 취농자를 대상으로 리커트 척도에 의한 태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취농 예정자와 신규 취농자의 영농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영농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농가 출신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촌 출신 여부, 영농 경험 유무,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 등은 영농에 대한 태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농업계 학

교교육의 경험 여부는 영농에 대한 태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영농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이 영농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비 취농자와 신규 취농자들의 취농 환경과 여건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출신을 보면 도시와 농촌 출신, 농가와 비농가 출신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들은 대체로 영농 준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언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취농의 이유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아’, ‘농촌 생활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 등 비경제적인 배경이라고 하였으며, 도시로부터 전직이나 영농을 통한 소득 확보 또는 부모의 영농 승계 등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예비 취농자의 취농 의향과 준비 상황을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경영 승계보다 신규 창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연고지에 취농을 예정하고 있었다. 또한 취농시의 영농 작목으로는 채소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축산, 일반 밭작물, 과수 등이었으며, 특용작물이나 화훼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예비 취농자들의 취농 의향은 대체로 높았으며, 취농 예정 시기는 3년 후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예비 취농자들은 취농 준비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정신 무장은 잘 되어 있지만, 영농자금과 토지, 영농지식과 기술, 경영기법, 주변 사람들의 지지 등은 미흡하였다. 특히 영농기술이나 경영기법에 대해서는 스스로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편, 신규 취농자들의 영농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영 승계보다 신규 창업의 형태가 많았고, 대체로 비연고지에 취농하고 있었으며, 일반 밭작물이나 논벼와 같이 영농기술이 덜 요하는 작목을 경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신규 취농자들이 영농 초기에 투자한 자금은

영농과 주택 자금을 포함하여 3천만원 이하가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취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은 대부분이 자기자본에 의존한다고 응답하였다. 신규 취농자의 영농규모를 보면 과반수가 3천 평 이하의 영세한 경영규모이며, 이들의 농축산물 판매규모도 과반수가 2천만원 이하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영농 초기 설정한 영농 목표를 대체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기술 부족이 가장 크고, 그 밖에 자금 문제, 판로 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 등이었다. 이들의 경영 수준을 자가 진단한 결과를 보면 영농 계획, 재배(사육)관리 기술, 경영분석 진단 등은 높게 평가하지만, 농자재 구입, 농산물 판매 등을 대체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들 신규 취농자들은 대체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특히 가족 및 배우자의 지지가 높았다. 그리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영농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현상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앞에서 조사한 취농의 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예비 취농자들의 취농 의향과 취농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영농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이 없을수록 취농 의향이 높았으며, 반면에 실제 취농 준비는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잘 되어 있었다.

신규 취농자들의 영농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농촌이나 농가 출신으로 농업계 학교 졸업생이며 나이가 적을수록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취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규 취농자들은 논벼나 일반 밭작물보다는 축산, 과수, 채소, 특용작물, 화훼 등과 같은 고소득 작목을 경영함으로써 다른 농업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축산물 판매 규모나 경영 성과가 양호하였다.

외국 사례로서 일본은 최근 들어 신규 취농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직업에서 전환하는 전직 취농이 증가하는 것은 농업의 미래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신규취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과 상담 활동, 원활한 기술 습득, 정착 자금 융자, 경영 승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성의 외곽단체인 농업회의소 계통조직을 통하여 취농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한 취농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써 잠재적인 신규 취농자를 확보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 결론 및 정책 건의

이 연구에서는 신규 취농자의 취농 동기, 영농 정착을 위한 경영 기반과 생활 기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영농정착 관련 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신규 취농자의 영농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농업계 학교교육 경험 등이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영농기술 중심의 학교교육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또한 영농에 정착하고 있는 신규 취농자들이 학교 졸업 후의 신속한 경영 승계보다는 직장이나 도시에서 사회적 경험을 쌓고 귀농한 경우에 성공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여건에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최근에 신규 취농이 늘어나는 경향이며, 그 배경으로 최근의 경기 불황이라는 여건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특히 도시 귀농자가 활발하게 취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유익한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규 취농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정책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신규 농업인력 정책의 기본방향, 신규 취농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신규 취농자의 영농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첫째, 신규 취농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확충해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부터 농업에 관한 긍정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교과서에 반영하거나 교과 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계 학교 교육을 통하여 취농 예정자의 농업경영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영농교육이 필요하며, 농업계 대학의 농업경영자 과정을 내실화하고 심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 취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상시적으로 취농을 위한 정보 제공과 상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취농상담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민의 귀농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하는 전국 귀농운동본부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단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셋째, 농가의 경영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족경영협약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가족경영 협약은 경영주와 후계자 사이에 경영 분담, 수익 분배, 근로 조건, 장래 경영이양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영농 후계자가 가족경영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여성 농업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신규 취농이 강조되고 있으나 관련 통계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5년마다 실시되는 농업총조사에서 신규 취농자와 창설 농가를 파악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농림부 차원에서 신규 취농자의 성격과 경영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록 1

예비 취농자의 취농 관련 특성 및
취농 의향에 관한 설문 조사지

생업에 종사하시는 시간을 쪼개어 귀농 교육을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교육을 통해 좋은 성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이 조사는 선생님의 귀농과 관련한 제반 특성과 귀농 의향, 그리고 귀농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함으로써 귀농 의향자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농업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개인적 사항은 분석되지 않으며, 또한 조사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이 앞으로 귀농자들을 위한 농업 정책 수립에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므로 충실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호

전문연구원 마상진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사무처장 성여경

부 장 이진천

※ 다음 각 문항을 잘 읽고, ()안에 해당사항을 직접 기입하시거나 또는 해당번호 앞()에 표기(○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특성】

1. 선생님의 금년 연세를 적어주십시오. ()세
2. 선생님의 성별은? ()①남 ()②여
3. 선생님의 현재 직업상태는?
 ()①직장생활 ()②자영업
 ()③실직 / 퇴직 ()④주부
 ()⑤기타 ()
4. 선생님이 귀농을 생각하시는 이유는(해당사항 모두 표기)?
 ()①농촌생활이 좋아서 ()②자신·가족건강을 위하여
 ()③퇴직 후 여생을 위해 ()④앞으로의 농업전망이 좋아서
 ()⑤부모의 영농승계를 위해 ()⑥도시에서의 저소득을 피해서
 ()⑦사업실패 또는 실직 때문
 ()⑧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생태, 대안교육, 소박한 삶, 종교적 가치 등)
 ()⑨기타 ()
- 4-1. 상기 귀농이유 중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 든다면? ()

【영농배경】

5. 선생님은 초·중·고등학교 시절을 농촌에서 보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6. 선생님 부모님 직업은 농업입니까(이었습니다)?
 ()①예 ()②아니오
7. 선생님은 과거에 농사를 직접 지어보신 경험이 있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8. 선생님이 귀농하시는 것에 대해 주변 사람(가족이나 친구)들은 지지를 합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9. 다음 농업·농촌에 관한 각 진술문을 읽고, 오른쪽 5개의 응답 예 중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하나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그런편 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 나는 영농이전에도 농업인이 되기를 원해 왔다.	()	()	()	()	()
• 나는 내 자식이 농업인과 결혼하는 것을 찬성한다.	()	()	()	()	()
• 농업에 종사하려면 다른 직업만큼 교육을 많이 받을 필요는 없다.	()	()	()	()	()
• 농업은 젊은 사람들이 장래를 위해 한번 뛰어 들 가치가 있는 분야이다.	()	()	()	()	()
• 농촌생활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	()	()	()	()	()
• 나는 작물이나 가축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다.	()	()	()	()	()
• 나는 농업이 도시 직장만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	()	()	()	()
• 농업은 육체적으로 고달픈 노동을 많이 해야 한다.	()	()	()	()	()
• 농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	()	()	()	()
• 농사짓는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	()	()	()	()
• 나는 앞으로 평생을 농촌에서 살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	()	()	()	()

【교육경력 및 사회경험】

10.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①중졸 이하 ()②고졸 ()③대졸 ()④대학원졸

11. 선생님의 농업계 학교(농고, 농전, 농대)를 졸업하셨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12. 선생님은 귀농과 관련하여 귀농운동본부 외에 다른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매우많다 ()②많다 ()③조금있다 ()④거의없다 ()⑤전혀없다

13. 선생님의 현 직업은 농업과 관련성이 있습니까?

()①매우관련높다 ()②높은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적은편이다 ()⑤전혀관련없다

14. 선생님은 귀농과 관련하여 귀농운동본부 외에 어떤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15. 선생님은 영농과 관련하여 귀농운동본부 외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연자가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영농실태】

16. 선생님은 앞으로 귀농할 의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①매우높다 ()②높은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적은편이다 ()⑤매우적다

17. 선생님이 앞으로 귀농하신다면 앞으로 얼마 후로 예상하십니까?

()①1-2년 이내 ()②3년 이내 ()③3년 후 ()④아직 미정

18. 만약 귀농한다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귀농지는 다음 중 어디입니까?

()①연고지(가족,친지,친구 등이 있는곳) ()②비연고지(나와 전혀 관련없는곳)

19. 선생님의 취농 형태는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①경영승계(가족,친지,친구 등의 농업을 승계 또는 협동) ()②신규 창업

20. 귀농과 관련한 선생님의 현재 준비정도를 평가하신다면?

	매우 잘되어 있다	잘되어 있는 편이다	보통 이다	아직 미흡한 편이다	매우 미흡하다
· 귀농과 관련한 정신적 무장(철학)	()	()	()	()	()
· 정착기반(자금이나 토지)	()	()	()	()	()
· 작물(가축) 재배(사양) 지식과 기술	()	()	()	()	()
· 경영기법(영농의사결정능력 / 유통망 확보)	()	()	()	()	()
· 주변사람(부모, 가족 및 친구)의 지지	()	()	()	()	()
· 농촌 지역사회 주민과의 관계 준비	()	()	()	()	()

21. 선생님은 앞으로 어떤 영농 작목(가축)을 가꿀 생각이십니까?(해당사항 모두 표기)

- ()①논벼 ()②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등)
 ()③채소 ()④특용작물(깨, 땅콩, 차, 담배 등)
 ()⑤화훼 ()⑥일반 밭작물(고구마, 감자 등)
 ()⑦축산(한우, 육우, 젓소, 돼지, 닭 등)
 ()⑧기타()

21-1. 상기 작목(가축)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하나 든다면? ()

【요구사항】

22. 선생님이 귀농을 하시어 정착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해당사항 모두 표기)

- ()①영농지식과 기술 ()②영농기반(자금, 토지)
 ()③영농생산물 판로 확보 ()④지역주민들과의 인간관계
 ()⑤가족 및 주변사람들의 지지 ()⑥영농정보
 ()⑦농업·농촌 정책 및 제반 환경변화 ()⑧확고한 신념
 ()⑨기타()

23.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귀농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좀 더 강조되거나 보강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해당사항 모두 표기)

- ()①회계(자금)기록·관리·분석 ()②시장조사·마케팅전략
 ()③컴퓨터 및 정보화 ()④경영기법(계획, 의사결정, 차별화전략)
 ()⑤작물재배(가축사양) 신기술 ()⑥유기농/환경농업
 ()⑦농촌관광/지역개발 ()⑧농기계/영농시설 선정·조작·유지
 ()⑨정보획득 및 학습전략 ()⑩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 유지
 ()⑪농업철학 및 리더십 ()⑫농업정책 및 대내외 환경 변화
 ()⑬농촌일손공급 및 관리 ()⑭농산물 가공(품질 및 안전성 관리)
 ()⑮기타()

24.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농촌으로 신규 농업인력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입니까?(세 가지만 표기하여 주십시오)
- ()①취농 박람회 개최 ()②농가·농장체험 프로그램 제공
 ()③취농정보 제공 및 상담활동 ()④취농자 교육 및 연수
 ()⑤취농 정착자금 융자 지원 ()⑥농지구입정보 제공
 ()⑦지속적인 영농상담과 컨설팅 ()⑧영농회 가입 등 지역 주민과 융화 지원
 ()⑨기타()
25. 성공적 귀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간략히 선생님의 생각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신규 취농자의 영농 관련 특성 및 영농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지

무더운 날씨와 더불어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농활동에 종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농사에 좋은 성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이 조사는 선생님의 영농과 관련한 제반 특성과 영농 실태, 그리고 영농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함으로써 신규로 취농하려는 사람들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업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개인적 사항은 분석되지 않으며, 또한 조사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이 앞으로 신규 취농자들을 위한 농업 정책 수립에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므로 충실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호

전문연구원 마상진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학 장 두창목

교 수 정하일

※ 다음 각 문항을 잘 읽고, ()안에 해당사항을 직접 기입하시거나 또는 해당번호 앞()에 표기(○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특성】

1. 선생님의 성별은? ()①남 ()②여
2. 선생님의 금년 연세를 적어주십시오. ()세
- 2-1. 처음 영농에 종사하기 시작한 시기는? ()세
3. 선생님이 영농에 종사하게 된 이유는?(해당사항 모두 표기)
 - ()①농촌생활이 좋아서
 - ()②앞으로의 농업전망이 좋아서
 - ()③부모의 영농승계를 위해
 - ()④도시 직장생활보다 안정적이어서
 - ()⑤내 능력을 고려할 때 다른 분야보다 적합할 것 같아서
 - ()⑥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생태, 대안교육, 소박한 삶, 종교적 가치 등)
 - ()⑦기타 ()
- 3-1. 상기 영농이유 중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 든다면? ()

【영농배경】

5. 선생님은 초·중·고등학교 시절을 농촌에서 보냈습니까?
 - ()①예 ()②아니오
6. 선생님 부모님 직업은 농업입니까(이었습니다)?
 - ()①예 ()②아니오
7. 선생님은 영농 종사하기 이전에 농사를 직접 지어보신 경험이 있었습니까?
 - ()①예 ()②아니오
8. 선생님이 영농을 시작할 때 주변 사람(가족이나 친구)들은 지지를 하셨습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③보통이다
 -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9. 다음 농업·농촌에 관한 각 진술문을 읽고, 오른쪽 5개의 응답 예 중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하나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그런편 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 나는 영농이전에도 농업인이 되기를 원해 왔다.	()	()	()	()	()
• 나는 내 자식이 농업인과 결혼하는 것을 찬성한다.	()	()	()	()	()
• 농업에 종사하려면 다른 직업만큼 교육을 많이 받을 필요는 없다.	()	()	()	()	()
• 농업은 젊은 사람들이 장래를 위해 한번 뛰어 들 가치가 있는 분야이다.	()	()	()	()	()
• 농촌생활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	()	()	()	()	()
• 나는 작물이나 가축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다.	()	()	()	()	()
• 나는 농업이 도시 직장만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	()	()	()	()
• 농업은 육체적으로 고달픈 노동을 많이 해야 한다.	()	()	()	()	()
• 농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	()	()	()	()
• 농사짓는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	()	()	()	()
• 나는 앞으로 평생을 농촌에서 살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	()	()	()	()

【교육경력 및 사회경험】

10. 선생님의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입학전 학력은?
 ()①고졸 ()②전문대졸 ()③대졸 ()④대학원졸
11. 선생님은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입학전에도 농업계 학교(농고, 농전, 농대)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12. 선생님은 영농 종사 전에 농업과 관련하여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교육 외에 다른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①매우많다 ()②많다 ()③조금있다 ()④거의없다 ()⑤전혀없다
13. 선생님은 영농 종사전에 농업 관련 사회생활(직장생활, 자영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매우많다 ()②많다 ()③조금있다 ()④거의없다 ()⑤전혀없다
14. 선생님은 영농 종사전에 농업 관련단체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15. 선생님은 영농 종사전에 개인적으로 지속적인 도움을 받았던 영농 조언자가 있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영농실태】

16. 선생님께서 처음 영농에 종사하게 된 형태는?
 ()①경영승계(가족,친지,친구 등의 농업을 승계 또는 협동) ()②신규 창업
17. 선생님의 영농 장소는 다음 중 어디입니까?
 ()①연고지(가족,친지,친구 등이 있는 곳) ()②비연고지(나와 전혀 관련없는 곳)
18. 선생님은 취농 당시 초기자본을 어느정도 투자하셨습니다?
 • 주택 ()만원 • 농장 ()만원
- 18-1. 상기 초기자본은 주로 어떻게 조달하셨습니다?
 ()①자기자본 ()②금융기관 대출 ()③사채
19. 선생님의 현 경작지 규모는?
 • 논 ()평 • 밭 ()평
 • 과수원()평 • 초지()평
20. 선생님의 영농작목(가축)은?(해당사항 모두 표기)
 ()①논벼 ()②과수 ()③채소
 ()④특용작물 ()⑤화훼 ()⑥일반밭작물
 ()⑦축산 ()⑧기타()

- 20-1. 상기 작목(가축)중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것을 하나 들면? ()
21. 선생님이 작년에 직접 수확하신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은?
 ()①500만원 미만 ()②500~1000만원 ()③1000~2000만원
 ()④2000~3000만원 ()⑤3000~5000만원 ()⑥5000~1억원
 ()⑦1억원 이상
22. 선생님의 취농초기 계획했던 목표와 현재의 성과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초과달성 ()②달성 ()③보통 ()④미달성 ()⑤매우 미달성
- 22-1. 취농초기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은?
 ()①기술 부족 ()②자금 문제
 ()③노동력 문제 ()④판로 문제
 ()⑤기타()
23. 선생님의 향후 영농규모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①확대경영 ()②현상유지 ()③축소경영 ()④사업변경 ()⑤영농포기
24. 선생님의 영농능력을 이웃 농가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영농계획 수립
- 농자재 구입
- 재배(사육)관리
- 시장판매
- 경영분석진단

매우 높음	높은 편임	보통	낮은 편임	매우 낮음
매우 높음	높은 편임	보통	낮은 편임	매우 낮음
매우 높음	높은 편임	보통	낮은 편임	매우 낮음
매우 높음	높은 편임	보통	낮은 편임	매우 낮음
매우 높음	높은 편임	보통	낮은 편임	매우 낮음

27.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좀 더 강조되거나 보장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해당사항 모두 표기)
- ()①회계(자금)기록·관리·분석 ()②시장조사·마케팅전략
 ()③컴퓨터 및 정보화 ()④경영기법(계획,의사결정,차별화전략)
 ()⑤작물재배(가축사양) 신기술 ()⑥유기농/환경농업
 ()⑦농촌관광/지역개발 ()⑧농기계/영농시설 선정·조작·유지
 ()⑨정보획득 및 학습전략 ()⑩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 유지
 ()⑪농업철학 및 리더십 ()⑫농업정책 및 대내외 환경 변화
 ()⑬농촌일손공급 및 관리 ()⑭농산물 가공(품질 및 안전성 관리)
 ()⑮기타()
28.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농촌으로 신규 농업인력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입니까?(세 가지만 표기하여 주십시오)
- ()①취농 박람회 개최 ()②농가·농장체험 프로그램 제공
 ()③취농정보 제공 및 상담활동 ()④취농자 교육 및 연수
 ()⑤취농 정착자금 융자 지원 ()⑥농지구입정보 제공
 ()⑦지속적인 영농상담과 컨설팅 ()⑧영농회 가입 등 지역 주민과 융화 지원
 ()⑨기타()
29. 신규 인력의 성공적인 취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간략히 선생님의 생각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문 헌

- 강대구, 이근수, 정철영. 2002. 『창업농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농림부.
- 곽기상, 송해균. 1985.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태도와 관련변인.”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7(1): 1-7.
- 구본석. 1999. 『귀농자의 영농정착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금견숙. 1995. 『농업고등학교 여학생의 영농정착을 위한 교육방안』.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금명호. 1995. 『농민후계자의 영농의사결정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 김천시, 성주군, 청송군을 중심으로』. 계명대 정책개발대학원 석사논문.
- 김성수 등. 2004. “귀농자의 영농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1): 53-65. 한국농촌지도학회.
- 김정호. 1999. “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 『한국농정50년사』. 농림부.
- 김정호, 김태곤, 이병훈. 2003. 『1990·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종숙, 민상기. 1994.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주현. 1999. 『귀농인의 농업기술정보 획득과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구. 2003.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와 고등농업교육기관간의 연계 방향.”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5(4): 15-33.
- 김진균, 최민호, 김재호. 1997. “농업인 교육과정 개발모형의 설정.” 『한국농촌지도학회지』 4(1): 257-268. 한국농촌지도학회.
- 김향숙. 2003. 『영농후계자의 영농의식 동향에 관한 연구: 공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형용. 1998. “귀농자의 실태와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축산경영연구』 14(1):

205-223.

- 농림부. 2004.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 _____. 2004.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 류창렬. 1982. “영농정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4(1): 49-54.
- 민상기, 정명채. 1995. 『12월 연구 보고: 귀농자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영일. 1998.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연구 : 귀농사례 중심으로』. 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성의 등. 1998. 『귀농가의 성공적인 영농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도농업기술원.
- 복근채. 1999. 『농업인후계자의 성공적 영농정착과 관련된 특성 분석』. 공주대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규선, 변재면. 2001. “U턴 귀농자를 위한 장·단기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1): 137-153. 한국농촌지도학회.
- 서규선·박덕병. 1997.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산논총 제5권.
- 서병준. 1990. 『한국의 농촌사회구조 변화와 영농정착모형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해균, 강경중. 1989. “농촌생활개선 사업의 총체적 성과 측정을 위한 농가주부의 KAP 기초수준 측정.”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1(2): 1-11.
- 송해균 등. 1990. “농촌지도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성인농민의 KAP 기초수준 측정.”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2(1): 11-31.
- _____. 1972. “농업에 대한 태도 검사척.” 『한국농업교육학회지』 4(1): 1-6.
- _____. 1973. “비농민의 농업에 대한 태도.” 『한국농업교육학회지』 5(1): 21-24.
- _____. 1995. “농촌사회의 변화와 농촌여성의 농업에 대한 태도.”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7(3): 1-12.
- 원상봉. 1983. “영농인에게 필요한 정의적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직업교

육연구』 2(1): 74-97.

이근수. 1993. 『농업후계자, 농업교사, 학생들의 영농의식 분석』.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_____. 2003. “초등학교 교사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5(2): 131-142.

이동하. 1998. 『귀농자의 농촌적응과 관련변인』. 서울대 석사논문.

이상용. 1998. 『귀농농가의 경영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이영대. 1981. 『성공적인 영농정착자의 영농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_____. 1995. “농민의 직업관 및 거주지역에 대한 의식구조.” 『농촌사회』 5: 151-170.

이영만. 2005. “농업인력 육성.” 『경상남도 농업로드맵 수립』.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이용환 등. 2000. 『21C 신지식농업인화 방안 및 교육·훈련 연구』. 농림부.

이정관. 1998. 『귀농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된 특성분석』. 공주대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혜영. 1999. 『귀농자의 적응과 복지에 관한 연구-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전국귀농운동본부(편). 1999. 『귀농, 아름다운 삶을 찾아서』. 두레.

전라북도농촌진흥원. 1997. “전북지역 U턴 농가의 영농정착에 관한 연구.” 『지역농업개발연구』: 102-111.

정대영. 2001.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의 농촌정착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를 사례로』.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성봉. 1987.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 자영자의 영농 정착과 관련변인』.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정인영. 1988. 『농업고등학교 자영농과 학생의 영농정착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지웅, 김성수. 2000.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농림부.

정철영, 서우석. 1998. “고등학교 학생들의 농업과 농업직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0(2): 1-20.
- 정철영 등. 2001. 『21세기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방안』. 서울대학교.
- 정철영. 2000. “IMF에 따른 귀농희망 실업자를 위한 영농교육훈련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1): 1-26.
- 정하석 등. 1998. “U-턴(귀)농가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농경·농기계논문집』 40(2): 16-25.
- 정한모. 2002. 『귀농인의 농촌생활과 영농정착 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2004.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결과』.
- 허 장 등. 1989. 『농촌주민의 의식, 가치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jhkim@krei.re.kr**

서울대 농업교육과, 일본 교토대 농업경제학 박사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농림부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주요 연구실적 및 저서

『쌀농업 구조변화 동향과 전망』(2004)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2005)

마상진**msj@krei.re.kr**

서울대학교 농업교육과, 서울대학교 농업교육학 박사

주요 연구실적 및 저서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
 (2005)
 『제천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2005)

연구보고 R504 | 2005.12

신규 취농의 실태와 정책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5. 12.

발 행 2005. 12.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59-6110

<http://www.krei.re.kr>

인쇄처 (주)문원사 02-739-3911~4

ISBN 89-89225-98-1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